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논문

## 주거지역 근린양육환경 사례 연구

- 미취학모의 양육활동 및 양육환경인식을 중심으로 -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최 정 선



# 주거지역 근린양육환경 사례 연구

- 미취학모의 양육활동 및 양육환경인식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광 중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최 정 선

최정선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포용도시(inclusive city)의 관점에서 서민층 여성 양육자가 근린주거환경에서 겪는 양육의 부담과 어려움을 조명한다.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형성된 서울시 양천구 신월4동을 단일사례지역으로 하여 197명의 여성 양육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10명의 여성 양육자에 면접조사를 통해 근린환경과 양육활동, 물리적 환경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과 사회적 이웃관계망에 대하여 알아보고, 양육자가 근린환경에서 경험하는 양육부담과 양육스트레스의 정도 및 요인을 파악하였다.

설문응답자는 모두 영유아자녀를 둔 미취학모로서 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20~40대의 연령대이며, 중위 또는 그 이하의 가구소득계층에 속하는 서민층 여성양육자이다.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취업상태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주중에는 하루 6.0시간, 주말에는 하루 9.8시간을 아이를 키우는데 쓰고 있다. 응답자의 약 80%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고, 약 20%는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고 있다.

동네에서 집 밖으로 나가는 양육활동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공원녹지, 상업시설, 놀이터, 의료시설, 공공보육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활동은 일간, 주간, 월간단위로 그 빈도를 구분할 수 있는데, 보육시설, 놀이터, 교육시설, 상업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일간 또는 주간의 방문빈도를 보이는 가장 자주 방문하는 시설로 나타났다. 이용시간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데, 가장 자주 방문하는 놀이터, 공공문화시설, 상업시설의 경우 30분~1시간 또는 1시간 내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양육관련 시설로의 이동은 주로 보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활동범위는 영아와 유아 두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보행권은 200미터, 유아 이상의 경우는 400미터 범위가 일반적이다. 주중 양육활동은 주로 400미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주말에는 신월4동의 경계 밖에 위치한 공원이나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양육활동범위는

800미터로 확대된다. 그러나 주말이라도 양육자 혼자 자녀를 동반하여 활동하는 경우 활동범위는 400미터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자의 활동범위는 목적 장소, 자녀 연령, 동행 여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신월4동의 시설환경에 대해서 양육자들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리커트 5점 척도 중 평균 2.6~2.7). 보육시설과 놀이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감을 나타냈으나 전반적으로 동네에서는 자녀를 데리고 갈만한 곳이 없고 부족한 시설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공원, 공공문화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에 대한 결핍감이 크게 나타났다. 보행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 정도의 수준(리커트척도 2.95)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인식은 범죄안전성에 대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인식한 응답결과를 반영한 평균값으로서, 차량안전성, 보행편의성, 대중교통 접근성 측면에 대해서는 보다 부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육자들은 차량으로 인한 위험과 불편을 자녀를 동반하여 걸어 다니는 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주차, 보도 부재 및 연속성 단절, 차량의 골목길 지배 등이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넓은 폭의 간선도로, 신호등이 없는 집산도로, 블록 내부 교차로가 위험한 지점으로 지적되었다.

양육자의 물리적 근린환경(시설환경,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양육활동은 총량적으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보육시설, 놀이터 등 필수적인 활동보다 공공문화체육시설과 같이 선택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상관성을 보였다. 놀이여가시설은 시설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이 높을수록 활동시간이 늘어나며, 상업편의시설은 활동빈도가 증가한다. 공공시설에 대한 인식은 활동빈도 및 시간 둘 다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는 물리적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양육활동이 위축되거나 활성화될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합한다. 그러므로 선택적인 활동의 경우 시설환경과 보행환경의 안전성, 편의성, 접근성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양육자의 외부활동은 제약을 받는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시설환경 및 보행환경에 따라 외출에 대한 부담감, 외출제약으

로 인한 고립감, 자녀교육 미흡에 대한 자책감 같은 양육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데 대해 신월4동의 양육자는 보통이하(리커트 척도 2.56~2.96)로 응답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리커트 척도별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부담감(33%), 고립감(13%), 자책감(31%) 유형별로 일부의 응답자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월4동 여성양육자의 약 1/3은 집 밖으로의 외출에 부담을 느끼고 이에 따라 자녀에게 미안한 자책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시설환경보다 보행환경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 양육자보다 영아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크게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활동에 대해 양방향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양육활동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양육스트레스 중 외출 부담감이 늘어날수록 양육활동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월4동의 여성 양육자들이 일부이기는 하지만 양육활동을 매개로 서로 알게 되고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때로는 양육에 도움을 주는 단계에 이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양육을 통해 알게 된 이웃의 수는 평균 4.6명이며, 응답자의 1/4은 이웃관계가 없다. 이웃은 주로 보육시설, 놀이터, 집근처에서 마주친 것을 계기로 알게 되었고, 놀이터, 보육시설, 시장 같은 거의 매일 들리는 일상생활공간에서 이웃과 만나 대화하고 교류한다. 양육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만남의 횟수가 증가하면서 강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주고받는다. 도움의 형태로는 육아정보공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지지, 자녀친구관계, 육아물품공유, 자녀돌봄부탁 순으로 나타났다.

이웃의 양육도움은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육자에게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자녀돌봄을 부탁하는 이웃도움은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아정보 공유, 정서적지지, 육아물품공유 역시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영향 관계를 가진다. 이웃교류빈도도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주 만날수록 당면한 양육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웃의 경험담을 들으며 정

신적으로 위안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면접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는 한국의 기성시가지 내 일반적인 서민 주거지역이 보다 바람직한 양육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활동범위를 고려한 계획, 다양한 공공시설의 확충, 주거지역 보행환경의 개선, 양육자간 사회적 교류를 높일 수 있는 커뮤니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근린양육환경, 여성 양육자, 양육활동, 양육자 인식, 양육스트레스

학 번 : 2008-30677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6
1. 연구 범위 .....	6
2. 연구 대상지 .....	7
3. 사례연구 방법 .....	8
제3절 연구의 흐름 .....	10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	11
제1절 양육자와 도시환경에 대한 이론적 토대 .....	11
제2절 근린환경에서의 양육활동과 양육자 인식 .....	16
1. 근린양육환경에 관한 선행연구 .....	16
2. 양육자의 활동과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	18
제3절 분석의 틀 .....	26
제3장 사례지역 근린환경과 양육활동 .....	30
제1절 사례지역의 근린환경 .....	30
1. 입지적 맥락 .....	30
2. 근린환경 현황 .....	32

제2절 양육자 개인 특성 분석 .....	38
1. 설문조사 대상자 개인 특성 .....	38
2. 면접조사 대상자 개인 특성 .....	40
제3절 근린환경에서의 양육활동 특성 분석 .....	41
1. 자녀 양육의 일반적 특성 .....	41
2. 양육활동의 시설이용 특성 .....	44
3. 양육활동의 공간범위 특성 .....	52
제4절 소결 .....	59
 제4장 물리적 근린양육환경에 대한 양육자 인식 분석 .....	61
제1절 시설환경에 대한 양육자 인식 .....	62
1. 시설환경 만족도 인식 .....	62
2. 시설환경 접근성·안전성·편의성 인식 .....	70
3. 양육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환경 .....	72
제2절 보행환경에 대한 양육자 인식 .....	79
1. 보행환경 만족도 인식 .....	79
2. 보행환경 접근성·안전성·편의성 인식 .....	81
3. 양육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보행환경 .....	86
제3절 양육환경인식 및 양육활동과 양육스트레스 영향 관계 .....	94
1. 근린환경만족도와 양육활동 관계 .....	94
2. 양육스트레스 영향 요인 추정 .....	99
제4절 소결 .....	106

제5장 사회적 근린양육환경에 대한 양육자 인식 분석 .....	109
제1절 근린양육환경에서의 이웃관계망 형성 .....	110
1. 이웃관계망 형성과 발전 .....	110
2. 이웃관계의 발전과 양육도움 .....	118
제2절 양육도움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 영향 관계 .....	124
1. 이웃의 양육도움에 대한 만족도 .....	124
2. 양육스트레스 영향 요인 추정 .....	127
제3절 소결 .....	134
제6장 결론 .....	136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136
제2절 정책적 함의 .....	142
제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	146
참고문헌 .....	148
부록 .....	157
Abstract .....	163



## 표 차례

<표 2-1> 조사 항목의 설정 .....	30
<표 3-1> 대상지 인구 현황 .....	33
<표 3-2> 대상지 주택 현황 .....	36
<표 3-3>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	39
<표 3-4> 면접조사 대상자 특성 .....	40
<표 3-5> 자녀의 특성 .....	41
<표 3-6> 자녀의 주양육자 .....	42
<표 3-7> 주중 및 주말에 자녀를 돌보는 평균 시간 .....	43
<표 3-8> 자녀의 보육방법 .....	44
<표 3-9> 양육자가 자녀와 함께 활동하는 주요 장소 .....	45
<표 3-10> 양육자가 자녀와 함께 장소를 방문하는 빈도 .....	47
<표 3-11> 양육자가 자녀와 함께 장소를 이용하는 시간 .....	49
<표 3-12> 양육자가 자녀와 함께 장소까지 이동하는 수단 .....	50
<표 4-1> 시설충족도와 만족도 .....	62
<표 4-2> 시설충족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	65
<표 4-3> 근린환경 내 부족한 시설 .....	67
<표 4-4> 시설환경에 대한 접근성·안전성·편의성 인식 .....	70
<표 4-5> 보행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	79
<표 4-6> 보행환경 불만족 요인 .....	81
<표 4-7> 보행환경에 대한 접근성·편의성·안전성 인식 .....	82
<표 4-8> 양육활동과 근린환경인식 상관관계 .....	95
<표 4-9> 양육활동과 보행환경인식 상관관계 .....	95
<표 4-10> 놀이여가시설 양육활동과 양육환경인식 상관관계 .....	96

<표 4-11> 상업편의시설 양육활동과 양육환경인식 상관관계 .....	97
<표 4-12> 공공시설 양육활동과 양육환경인식 상관관계 .....	98
<표 4-13> 물리적 환경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특성 .....	99
<표 4-14>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활동 요인 변수 설정 .....	100
<표 4-15>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활동 요인 .....	101
<표 4-16>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요인 변수 설정 .....	102
<표 4-17> 근린환경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영향 요인 .....	103
<표 4-18> 양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 요인 변수 설정 .....	104
<표 4-19> 양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 요인 .....	105
<표 5-1> 이웃관계 형성의 정도 .....	110
<표 5-2> 이웃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	111
<표 5-3> 양육도움 이웃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	111
<표 5-4> 이웃을 알게 된 계기 .....	113
<표 5-5> 이웃교류 장소 .....	114
<표 5-6> 이웃교류 빈도 및 시간 .....	116
<표 5-7> 이웃교류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	117
<표 5-8> 이웃의 양육도움 형태 .....	121
<표 5-9> 이웃의 양육도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	125
<표 5-10> 이웃교류 활동과 양육도움 인식 관계 .....	126
<표 5-11> 이웃관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	128
<표 5-12>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 특성 .....	129
<표 5-13>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웃도움 요인 변수 설정 .....	130
<표 5-14>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이웃도움 요인 .....	131
<표 5-15> 양육스트레스 요인 추정을 위한 변수 설정 .....	132
<표 5-16>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이웃교류 요인 .....	133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 .....	10
<그림 2-1> 분석의 틀 .....	26
<그림 3-1> 대상지 위치 .....	31
<그림 3-2> 대상지 및 주변 개발 현황 .....	32
<그림 3-3> 대상지 가로 현황 .....	35
<그림 3-4> 대상지 주택 현황 .....	37
<그림 3-5> 대상지 시설 현황 .....	38
<그림 3-4> 주중 양육활동 범위 .....	54
<그림 3-5> 주말 양육활동 범위 .....	58
<그림 4-1> 안전성 인식과 관련된 시설환경 .....	74
<그림 4-2> 편의성 인식과 관련된 시설환경 .....	75
<그림 4-3> 보행환경에 대한 인식 분포 .....	85
<그림 4-4> 안전성 인식과 관련된 보행환경 .....	87
<그림 4-5> 편의성 인식과 관련된 보행환경 .....	91
<그림 5-1> 이웃도움에 대한 인식 분포 .....	122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포용도시(inclusive city)의 관점에서 서민층 여성 양육자가 근린주거환경에서 겪는 양육의 부담과 어려움을 사례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도시환경은 다양한 도시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하며, 공간적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포용도시 의제가 확산되고 있다(UN-Habitat, 2016; OECD, 2014; 박인권, 2015; 김수진, 2015; 변미리, 2018).

기존의 성인 남성 중심의 도시 및 주거지 계획에 따라 여성이 받는 제약과 구속에 대한 젠더 관점에서의 연구도 여성 양육자의 도시환경을 재조명 할 것을 요청한다. 여성 양육자의 경우 자녀를 동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므로 양육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은 양육자의 도시 공간 이용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Hayden, 1980; Tivers, 1985; Fortuijin & Karsten, 1989; Massey, 1994; Fainstein, 2005). 이러한 관점은 여성, 아동, 고령자 등 다양한 구성원을 고려한 도시환경 논의로 확대되고 있으며(Chawla, 2002; UNICEF, 2004; Gleeson & Sipe, 2006; Warner & Rukus, 2013; 박소현 외, 2007; 송향숙, 2013 ; 홍승애, 2012) 모든 계층이 배제되지 않는 포용도시를 지향할 때 도시계획은 보다 다양한 관점을 포괄한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자녀를 키우는 여성 양육자의 부담과 어려움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핵가족화로 인한 도움의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양육 어려움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양육자가 자녀와 함께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는 부담과 스트레스는 지속성을 띠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Crinic & Greenberg, 1990; 서주현·김진경, 2012). 나아가 양육스트레스의

요인을 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개인적 특성에서 찾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양육활동의 어려움이 공간적 사회적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Prezza et al., 2005; Santos et al., 2013; Mitra et al., 2013; Kepper et al., 2016).

국내에서도 양육환경을 조명하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수행된 다수의 연구는 양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동네 근린환경이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주거지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양육자의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천현숙 외, 2013; 이주립, 2014; 유인창 외, 2014, 오성훈 외, 2015; 황명주, 2015). 또한 동네의 물리적 환경과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양육스트레스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도 밝혀지고 있다(김진경·서주현, 2010; 차삼숙·신유립, 2005; 이정신·최영희, 2010; 노신애·진미정, 2012). 근린환경에 따라 여성이 인식하는 양육의 부담은 출산의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천현숙 외, 2013).

이 연구도 여성 양육자의 관점에서 근린양육환경에 주목한다. 근린양육환경은 일상적인 양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집 밖의 동네환경으로서, 양육의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인식되는 장소이다. 근린양육환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1) 양육행위가 일어나는 ‘근린환경’, 2) 근린환경에서 일어나는 ‘양육활동’, 3) 근린환경에서의 양육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양육자의 인식’, 4) 이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

‘근린환경’은 양육행위가 일어나는 환경적 조건(setting)으로서 (가) 양육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로 구성된 물리적 환경과 (나) 양육에 도움을 주는 이웃 간의 관계를 말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육활동’은 아이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 동네에서 수행하는 행동으로서, (가) 목적지(시설)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과 (나) 집과 목적지 사이를 이동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양육자의 인식’은 근린양육환경에 대한 양육자의 주관적인 평가와 심리적 인지를 의미하며, (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육자의 인식’은 양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환경으로 인한 양

육스트레스를 포함한다. 근린환경-양육활동-양육자 인식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는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와 함께 양육자의 개인적 특성이 이들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때 보다 설명력 있는 이해를 달성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포용도시의 관점에서 서민층 여성 양육자가 기성시가지의 일반적인 주거지역에서 겪는 양육의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여기서 ‘서민층’이라 함은 중위소득 및 차하위의 소득계층을 의미하고, ‘일반적인 주거지역’은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도시나 대형 아파트단지가 아닌 서민층 주거지역할을 수행하는 기성시가지의 주거지역을 말한다. 기성시가지의 주거지역은 흔히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단독주택지역으로 조성된 후 고밀화 과정을 거쳐 온 주거지역으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흔히 나홀로 아파트와 소형아파트 단지가 혼합되어 있다. 이들 기성시가지의 일반적인 주택지는 저렴주택을 제공하면서 생애주기 상 자녀 양육단계에 있는 20~40대 가구의 일상적인 양육활동을 지원하는 근린양육환경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성시가지의 일반적인 서민주거지가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양육자에게 어떠한 근린환경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구하려는 것이다.

### 1. 근린환경과 양육활동에 대한 이해

근린양육환경에 대한 기존의 학술적, 정책적 연구는 제한된 관심변수에 대한 실증적 규명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근린환경에서의 양육활동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추구한다. 근린양육환경은 양육자가 아이를 키우는데 집 밖의 동네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일반적인 서민주거지가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양육자에게 어떠한 근린환경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근린양육환경은 양

육활동과 함께 이해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양육환경의 관점에서 물리적 근린환경을 파악하고, 근린환경에서 양육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양육활동’이란 자녀의 양육을 위해 또는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아이들 동반하여 집 밖으로 나가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양육활동은 양육자가 아이를 키우는데 집 밖의 동네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양육부담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기초배경을 알게 해준다. 양육활동은 방문한 시설에서 수행하는 활동(시설활동)과 목적지 까지 이동하는 활동(보행활동)으로 구분하여 활동빈도, 소요시간, 활동범위 등 동네에서 양육자가 자녀와 함께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 및 양육활동 상관성 이해

선행연구에서 양육자는 자녀를 동반하여 활동하므로 활동의 범위가 제한적이며(김현미, 2008; 최유진, 2013), 물리적 환경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은 양육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근린환경의 질이 좋고 근린환경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이 좋을수록 외부 양육활동과 아동 활동이 늘어나게 되고(Gehl, 1987; Gehl, 2010; Preziza et al, 2005; Santos et al, 2013; Mitra et al, 2013; Kepper et al, 2016), 근린환경의 질이 좋지 않으면 외부 활동은 줄어들게 되며 이는 양육스트레스의 증가로 이어진다(오성훈 외, 2015; 황명주, 2015). 따라서 물리적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과 양육자의 활동, 그리고 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의 연결 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례대상지의 구체적 양육환경맥락에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서, 어떤 물리적 환경 조건이 양육자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제한시키는지, 물리적 환경 인식과 양육자의 활동의 상관성을 밝히고, 이들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3.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및 이웃관계 상관성 이해

공간 환경의 특성에 따라 사람들의 사회적 행태와 관계는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고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Jacobs, 1961; Whyte, 1980; Sommer, 1983; Gehl, 1987).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도 물리적 근린환경은 양육자의 사회적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옥외공간에서의 활동은 사회적 관계와 커뮤니티 의식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으며(Lund, 2002; Leyden, 2003; Wood, 2010; French et al., 2014), 양육부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진경·서주현, 2010; 차삼숙·신유림, 2005; 이정신·최영희, 2010; 노신애·진미정, 2012). 이 연구는 근린환경에서 양육활동을 통해 양육자의 사회적인 이웃관계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형성되고 이것이 양육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자는 어디서, 어떤 계기로, 어느 정도 이웃을 만나 이웃관계를 형성하는지, 얼마나 이웃과 교류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는 이웃관계로 발전하는지, 이웃의 양육도움은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이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다. 미취학 아동은 영아(0~2세)와 유아(3~6세)로서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자녀를 의미한다. 영유아기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육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시기로서, 양육자의 부담과 어려움이 가장 집중되어 체험되는 시기이다.

양육자의 범위는 부모를 포함하여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조부모 등 친인척까지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양육자의 관점에서 근린양육환경을 살펴본다. 현대 도시의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임신, 출산, 육아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근린양육환경을 보고자 한다. 양육자의 물리적 활동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까지 포함되므로 이웃관계 형성과정을 살펴본다는 점에서도 여성 양육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단일한 대상지로 한정한다. 즉, 근린양육환경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하나의 일반 저층주거지역을 선택하여 단일사례연구(single case study)를 수행한다. 하나의 대상지를 선택한 것은 ‘근린환경,’ ‘양육활동,’ ‘양육자 인식’을 구분된 변수집단이 아닌 상호 긴밀히 연결된 전체로서 근린양육환경을 이룬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양육자가 겪는 부담과 어려움을 물리적, 사회적 환경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의도적인 선택이다(Yin, 2006).

## 2. 연구 대상지

연구 대상지는 서울시 내 일반적인 서민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으로 선정한다.

첫째, 아동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한다. 주거지역을 선택할 때 대부분 경제적 여건이나 통근 거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아동 비율이 높은 지역이 지속적으로 비슷한 연령대의 아동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

둘째, 서울시 주거지역 중 일반적인 주거지역의 형태로 선정한다. 주거지역은 크게 자연발생형, 격자형, 단지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격자형 주거지가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sup>1)</sup> 본 연구에서는 격자형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일반적인 주거지역 블록 내에는 단독·다세대·연립 주택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단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sup>2)</sup> 300세대이상의 아파트는 주민편의시설이 단지 내에 확보되어<sup>3)</sup> 상대적으로 양호한 환경이 조성되므로 그 이하의 소형아파트와 단독·다세대·연립 주택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구획정리 된 시가지에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저층주택과 소형아파트가 혼재된 서민주거지를 대상으로 연구하도록 한다.

셋째, 가구소득이 중위 또는 그 차하위의 일반 서민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평균 매매가와 전세가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지역으로 선정한다. 평균 매매가와 전세가는 소득수준을 반영하므로 소득이 낮은 양육자가 거주하는 지역 선정을 위한 지표로 활용한다.

- 
- 1) 임희지(2006)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주거지 중 격자형 주거지는 전체 주거지의 52.8%로 자연발생형 주거지 26.8%, 단지형 주거지 20.4%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2) 황세원(2018)의 연구에 따르면 인접된 아파트와 분리된 아파트가 저층 주거지와 혼합되어 있는 지역이 서울시 전체의 46.1%를 차지하여 주거지역의 일반적 형태를 보인다.
  -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8.12.31 일부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에는 다음과 같은 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150세대이상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300세대이상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500세대이상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고려에 따라 서울 양천구 신월4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신월4동 지역은 1970년대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형성된 격자형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 소형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독주택과 소형 아파트 단지가 산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서민층 주거지역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므로 4미터 내외의 골목길이 개별필지로 이루어진 주거블록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형 아파트 단지에 비해 촘촘한 공공가로망으로 짜여 있다. 이러한 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어린이 놀이터, 보육시설, 커뮤니티 시설, 공원, 녹지, 문화시설, 민간 상업 및 의료시설이 주거지에 산재되어 분포하고 있다. 상업시설, 의료시설, 대중교통 정차지점은 주로 대로를 따라 위치하고, 안쪽의 주거블록에는 주거기능이 우세하다.

### 3. 사례연구 방법

이 연구는 단일사례연구로서 연구대상 현상에 대한 종합적, 심층적 이해를 위하여 현장관찰,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 정성적, 정량적 연구방법을 도입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신월4동의 근린양육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 및 공간정보 자료 검토와 함께 현장답사 진행하여 대상지의 근린양육환경을 분석한다.

양육자의 일반적인 양육환경인식과 양육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대상지에 거주하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양육자를 대상으로 2018년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무작위로 표본추출과정을 거쳐 총 200명의 여성 양육자를 조사하였다. 이 중 응답이 유효하지 않은 설문 3부를 제외하고 총 19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결과는 SPSS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양육자의 활동과 인식이 주택유형과 양육자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는 빈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양육자의 활동과 인식의 영향관계 분석은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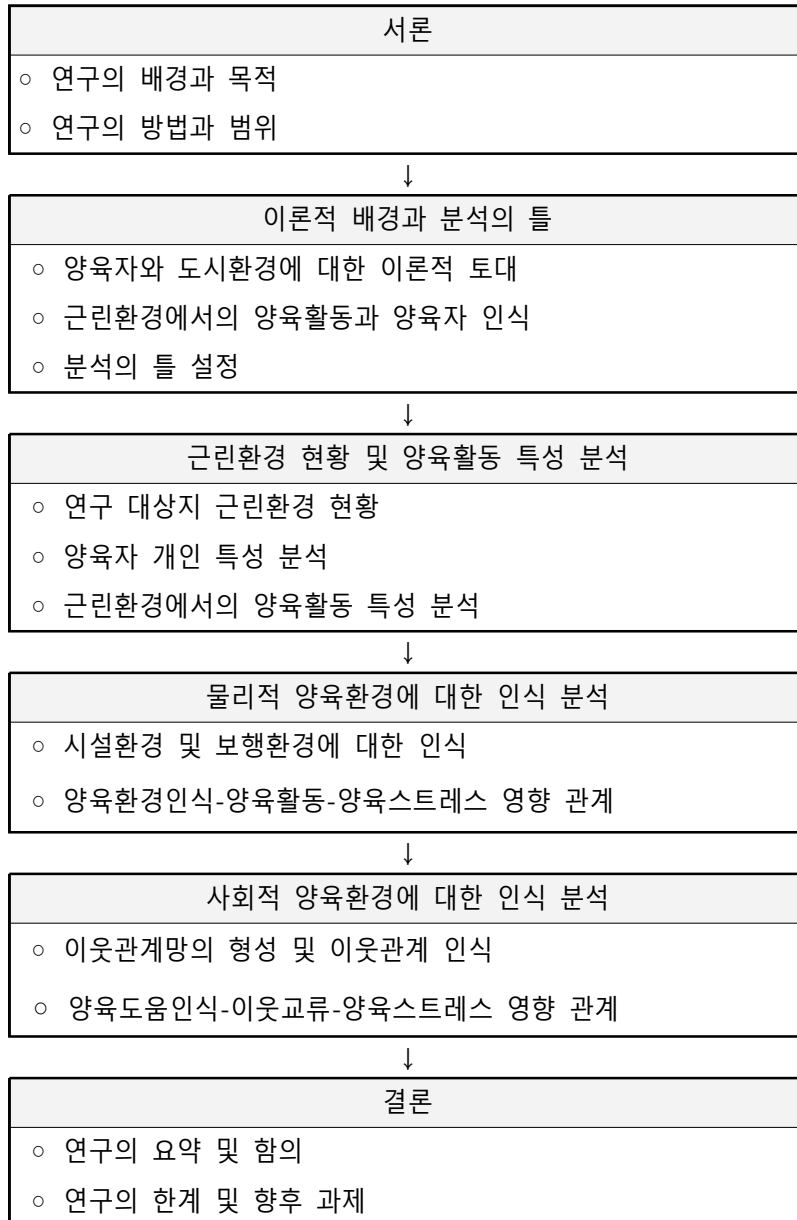
양육자의 활동과 인식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위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1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조사에 응할 용의를 표명한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방문조사하고, 눈덩이표집방식(snowball)에 따라 면접대상자를 추가하였다.

면접조사는 연구자가 관찰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개방적인 면접(open-ended interview)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Patton, 1980). 면접조사는 유연한 대화 형식을 빌려 연구 대상자의 구두 진술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건들의 순서와 구체적인 과정 및 사건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연구 방법으로는 연구하기 힘든 풍부하고 생생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신혜란, 2007).

면접은 참여자가 본 연구를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하여 참여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면접조사는 개방적인 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질문을 이어가는 비구조화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질적 자료 분석 방법에 의해 정리되고 분석되었다. 녹음 파일을 문서화 한 면접자료는 같은 범주의 답변끼리 묶어 분류하여 방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공간적으로 도식화할 수 있는 부분은 도면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 제3절 연구의 흐름



<그림 1-1> 연구의 흐름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 제1절 양육자와 도시환경에 대한 이론적 토대

도시 구성원은 도시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환경은 양육자가 자녀를 데리고 함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양육자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도시 구성원이 배제되지 않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근대 이후 도시계획은 전통적으로 성인 남성 위주로 계획을 수립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이 1980년대 지리학 분야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가사와 양육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었으나, 점차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활동과 부합하지 않는 도시와 주택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가사역할 때문에 여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제약을 강조하면서 젠더관계가 여성들의 시공간 이동패턴을 결정짓는다고 비판하였다(로즈, 2011).

헤이든은 도시공간을 젠더 관점에서 바라보며 여성들이 사회로 더 많이 진출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도시와 주택은 여전히 집에 구속된 여성을 위해 계획되었음을 비판했다(Hayden, 1980; Hayden, 2002). 티버스는 5세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양육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이를 키우면서 여성이 겪는 제약에 대해 밝히고 있다. 밖에서 일하고 싶은 여성은 많지만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 디자인은 여성의 활동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Tivers, 1985). 여성의 이동패턴에 관심을 가진 포투인과 카스톤의 연구<sup>4)</sup>와 물리적 공간의 이면에 존재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밝히고자

---

4) 시간과 예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여성들의 이동패턴을 조사하였으며, 전통형 가정형, 새로운 지역토착형, 새로운 이동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Fortuijin & Karsten, 1989).

하는 메시의 연구<sup>5)</sup>에서도 젠더관점에서 여성의 역할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공간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페인스타인 역시 남성 위주의 도시계획은 돌봄, 통행, 커뮤니티 지원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를 배제시킨다는 점을 비판하였다(Fainstein, 2005).

이상의 연구에서는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 따라 여성의 공간적인 제약이 발생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양육이나 가사와 같은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로 인해 도시공간의 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획일적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전통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은 1990년대 접어들면서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인 관점에 대해 비판하면서 보다 다양한 도시 구성원에 대한 관점으로 확대되었다(장미현, 2012).

1990년대 접어들면서 여성과 함께 아동, 가족, 고령자와 같은 다양한 도시 구성원을 고려한 환경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가족친화마을이라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으며 도시 내 다양한 구성원들을 위한 도시차원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도시 내 모든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포용적 도시로 이어진다.

양육이라는 역할이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따라 배우자나 조부모, 양육도우미 등 다양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여성친화도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성의 관점에서 정책 변화와 도시공간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은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공식의제로 채택하면서 확산되었고, 성주류화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정책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나라의 여성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장미현, 2012).

---

5) 공간은 물리적인 것이지만 공간이 구축되는 과정은 사회적인 관계를 포함하므로, 공간에 대한 이해는 경제와 사회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분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Massey, 1994).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2009년 익산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면서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8년 총 8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sup>6)</sup> 또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관련된 다수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자녀나 고령자 등 돌봄대상자를 동반하여 활동한다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공간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다(최유진 외, 2013; 남수현 외, 2014; 장명선 외, 2016).

여성친화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포함하여 도시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 중 물리적 공간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계획에서 제시하는 획일적인 도시계획시설 분류에서 벗어나 여성들이 도시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를 중심으로 계획목표를 설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돌봄 대상자를 동반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어 양육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양육환경 조성에도 시사점을 가진다.

양육자의 일상생활은 아동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유니세프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도시 및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회복력 있고, 안전하며, 역량이 있으며,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UNICEF, 2004). Chawla(2002)와 Gleeson & Sipe(2006)는 저서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아동의 권리와 참여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외부 활동과 독립적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antos et al., 2013; Mitra et al., 2013), 이웃교류와 사회적 네트워크도 아동을 양육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

6)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8.do](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8.do)



밝혀져(Kepper et al., 2016; Prezza et al., 2005; 홍승애, 2012),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근린환경이 아동을 위해서도 양육자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양육자와 아동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양육자의 이웃교류는 양육자와 아동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므로 이와 관련된 도시계획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가족친화마을은 생애주기의 다양한 단계를 고려하여 돌봄을 지원하는 환경을 갖추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Sweet, Swisher & Moen, 2005). 국내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모델 중 하나로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가족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지역에서 필요한 물리적 지표에 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Warner & Rukus, 2013; 차성란, 2001; 박소현 외, 2007). 또한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해서 돌봄을 위한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하는 연구도 있어(Voydanoff, 2001; 김혜영 외, 2009; 노신애·진미정, 2012)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가족친화마을은 생애주기적으로 다르게 요구되는 물리적 환경과 돌봄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또한 물리적 환경과 함께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양육자를 위한 근린환경 조성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여성, 아동, 고령자 등 다양한 도시 구성원의 관점을 배려한 도시개념은 이후 모두를 위한 도시인 포용도시의 개념으로 이어진다.

포용적 도시는 기존 도시계획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포용적 도시는 포용력 있는 도시재개발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sup>7)</sup>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모든 거주민이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거주하고 생

---

7) 포용력 있는 도시재개발이란 주거환경정비를 통해 도심 내 만연한 슬럼지역을 활력 있는 도시의 한 부분으로 공간적으로 포용하는 것을 말한다.(아시아 개발 은행(ADB), 2011)

산할 수 있는 정의롭고, 안전하며, 건강하고, 접근성이 좋고,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UN-Habitat, 2016; 박인권·이민주, 2016 재인용)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배경, 거주지, 성별, 민족과 관계없이 성장에 기여하고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하는 포용적 성장의 의미를 포함한다(OECD, 2014). 관련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고 포용적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종합적인 비전이 필요하며(박인권, 2015), 이와 함께 물리적으로 포용적 도시를 이루기 위한 도시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생활인프라 접근성은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변미리, 2018)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양육자의 경우 아동을 동반하여 활동하므로 도시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일반 성인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시공간과 시설의 접근과 이용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소득에 따른 차이에 따라 접근 가능한 환경이 다르게 나타나 사회적 배제가 심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도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동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포용적 도시 구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 제2절 근린환경에서의 양육활동과 양육자 인식

### 1. 근린양육환경에 관한 선행연구

양육자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주거지역 근린환경이다. 아동과 양육자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은 주거지역이며 여성 양육자의 활동 범위는 일반적으로 주거지 주변에 머무르기 때문이다(최유진 외, 2013). 그러므로 주거지역 근린환경이 양육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며, 양육자에게 필요한 근린환경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와 같은 도시 차원에서의 환경 조성과 가족친화마을, 양육친화환경과 같은 근린차원에서의 양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아동과 여성이 이용하는 근린 환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표 연구가 수행되고 있어 양육과 관련된 요소에 중점을 두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박소현 외, 2007; 홍승애, 2012; 천현숙 외, 2013; 송향숙, 2013; 이주림, 201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도시환경 조성 기준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되는데 그 중 주거지역에 관련된 기준은 유럽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부유럽에서 진행된 UrbSpace 프로젝트에서는 환경기준, 공공참여기준, 젠더측면, 보안 및 사회응집력 기준, 접근성 측면, 디자인-건축 측면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장미현, 2012). 비엔나의 Frauen Werk Stadt Vienna 프로젝트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주거단지 조성, 성인지적 공간디자인, 안전한 도시, 무장애 이동 경로 확보, 지역사회 시스템의 성 주류화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이미원, 2009). 국내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체 단체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수립한 여성친화 도시 조성 매뉴얼을 바탕으로 서울시, 부평구, 익산시, 시흥시, 아산시, 세종시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sup>8)</sup> 초기에 수립된 가이드

8)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에서는 도시계획 관련 사업, 주거단지 조성, 도로 및 교통, 공공시설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안하고 있

라인은 개별 시설에 대한 지표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도시차원에서의 환경조성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립된 여성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는 안전성, 편의성, 접근성 등과 같은 젠더이슈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으며 영유아를 동반한 양육자를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sup>9)</sup> 여성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도 이어졌다. 박태원(2013)의 연구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념모델로 주거단지의 안전성, 육아친화성, 자아실현성, 생활편의성, 심미경관성, 보행쾌적성을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여성친화적 주거단지를 위한 물리적 지표를 도출한 송향숙(2013)의 연구에서는 여성친화 도시계획요소로 6가지의 요인을 제시하였고, 이 중 안전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안정, 돌봄, 생활편의, 교통보행, 심미경관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친화도시 관련 연구에서도 물리적 환경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Chawla(2002), Gleeson & Sipe(2006), Horelli(2007)에서 제시하는 아동친화적 환경요소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함께 충분한 녹지공간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사회적 교류와 사회적 소속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를 개발한 홍승애(2012)의 연구에서는 건강환경, 안전과 보호환경, 교육환경, 놀이와 여가 환경, 사회참여, 정책 기반이 중요한 구성 요소로 선정되었으며, 구체적인 근린환경으로는 보행환경, 대중교통환경, 보육시설, 도서관, 놀이공간, 녹지공간, 의료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친화지표를 도출한 박소현(2007)의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지표와 시설의 정량적 지표를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설 지표는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설을 포함한다.

---

다. 이어 2011년 발간한 여성친화 지정도시 이행점검 연구 및 컨설팅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시설조성 가이드라인을 부록으로 제시하며 여성친화적인 공간 조성 시 고려해야 할 점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적합한 공간조성 및 시설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남수현 외, 2014)

- 9)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과 함께 공동체 공간 마련을 중심으로 하며,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및 이를 동반한 여성과 남성의 공간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공공시설을 신·개축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공원, 보행로와 같은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한 양육자를 고려한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장미현 외, 2017).

양육과 관련한 환경조성 기준은 프랑스와 네덜란드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프랑스는 도시 내 육아환경 정비, 유모차 이동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 다양화 및 관련 시설 정비를 통해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sup>10)</sup> 네덜란드의 경우 어린이 친화 로테르담 프로젝트와 본에르프 지정을 통해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sup>11)</sup>. 국내에서는 양육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지표를 도출한 연구로 천현숙(2013)과 이주림(2014)의 연구가 있다. 천현숙(2013)의 연구에서는 출산·양육과 관련된 근린환경 만족도 분석을 위해 안전성, 양육친화성, 자아실현성, 생활편의성, 정책지원성을 제시하였다. 이주림(2014)의 연구에서는 육아환경 평가를 위한 지표로 보육시설환경, 양육지원환경, 공원녹지환경, 문화환경, 복합상업환경, 의료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에서는 도시의 다양한 구성원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조성해야하는 도시 및 근린환경 기준을 수립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양육자와 관련된 근린환경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며, 양육자의 구체적인 활동과 인식에 기반한 근린환경 조성 기준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린환경이 양육자의 양육에 관련된 활동과 어떠한 상관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향후 양육친화적 근린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양육자의 활동과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양육자의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물리적 환경에 따라 활동이 달라진다는 연구들은 다수 진행되었다. 관련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이 보행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에 대한 인식 역시 보행활동에

---

10) 육아환경 정비는 공공보육시설의 확보. 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정비, 보행자를 배려하는 공유지 대 조성을 포함하며, 안전한 대중교통 정비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다양한 형태의 자전거 개발, 저상버스 운영, 섬세한 보도블럭 경사도 조절을 포함한다(천현숙 외, 2013).

11) 어린이 친화 로테르담 프로젝트의 4가지 실천계획은 어린이친화적 주택, 공공장소 제공, 공공시설 제공, 도로안전으로 제시되었다(천현숙 외, 2013).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ndy, 1996; Ewing, 2003; Handy et al., 2006; Ewing & Handy, 2009; 이경환·안건혁, 2008; 박소현 외, 2009), 특히 보행의 목적에 따라 목적보행과 여가보행으로 구분하여 근린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늘어나고 있어(Handy, 2006; Sugiyama et al., 2008; Inoue et al., 2010; 이경환·안건혁, 2008; 조혜민·이수기, 2016) 활동의 목적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근린 오픈스페이스의 쾌적성과 방해요소는 여가형 보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giyama et al., 2008), 산책 및 운동과 같은 보행활동은 보행환경의 질과 영향관계가 있지만 통근 및 통학과 같은 보행활동은 보행환경의 질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환·안건혁, 2008). 또한 객관적인 보행환경보다 주관적인 보행인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박소현 외, 2009; 조혜민·이수기, 2016) 근린환경 내에서 양육자의 활동과 인식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리적 근린환경이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밝혀져 왔다. 사회적 관계형성이 물리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간 환경의 특성에 따라 사람들의 사회적 행태와 관계는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고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Jacobs, 1961; Whyte, 1980; Sommer, 1983; Gehl, 1987). 물리적 환경이 좋으면 외부활동이 많아지고 교류활동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Gehl, 1987; Gehl, 2010), 옥외공간에서의 활동은 사회적 관계와 커뮤니티 의식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어(Lund, 2002; Leyden, 2003; Wood, 2010; French et al., 2014)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해서도 물리적 환경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주거지역의 물리적 근린환경은 아동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활동은 근린환경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Davison & Lawson, 2006; Islam et al., 2016; 박진희, 2013), 근린환경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에 따라 아동의 외부 활동이 영향을 받는다고 나타나(Prezza et al., 2005; Santos et al., 2013; Mitra et al., 2013; Kepper et

al., 2016) 근린의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이 양육자와 아동 모두의 활동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육자의 인식 중 차량으로부터의 안전과 범죄로부터의 안전 인식은 아동의 독립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보도에 대한 인식과 가로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아동의 독립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양육자의 물리적 활동 역시 아동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수행되었다(Santos et al., 2013). 근린환경에 대한 안전성, 범죄 위험, 사회성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 역시 아동의 독립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itra et al., 2013).

양육자의 이웃관계와 커뮤니티 의식도 아동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epper et al., 2016; Prezza et al., 2005). 사회적인 위험 인식은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커뮤니티 의식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의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사람들은 더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과 더 높은 커뮤니티 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이웃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나타나(Prezza et al., 2005) 주거지역의 물리적 근린환경과 사회적 근린환경 모두 아동의 활동 모두에 영향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아동의 활동은 양육자의 활동에 영향을 받으며(Santos et al., 2013), 동시에 미취학 아동의 경우 양육자는 아동을 동반하여 활동하므로 양육자의 활동이 아동의 활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은 만 0~2세까지의 영아기와 만 3~6세까지의 유아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조복희, 2006), 영아기와 유아기의 활동 형태는 연령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sup>12)</sup> 0~2세 영아의 경우 스스로 활동하지 못하고 양육자에 의존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유모차 사용여부에 따라 활동범위와 활동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3~6세 유아의 경우 양육자의 보호 하에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아동의

---

12) 0~2세까지는 활동의 범위나 활동량이 많지만, 3세 이후는 스스로 걷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활동의 범위와 활동량이 급격히 늘어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다 다양한 놀이 활동과 모험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3세 부터는 또래와의 사회적 활동도 시작된다(최재순, 2013)

외부활동 요구가 늘어난다. 양육자의 활동도 아동의 활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양육자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을 동반하여 이동해야하는 양육자의 활동 범위는 일반 성인에 비해 활동범위가 매우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양육자의 활동 범위는 주로 주거지역 근처로 한정되며,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활동 범위는 더욱 좁게 나타난다(김현미, 2008; 최유진, 2013). 또한 일부 연구에서 양육자의 이웃교류가 아동의 연령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정유진, 2014), 양육자의 교류활동이 아동의 놀이 활동과 함께 형성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김효정 외, 2018) 양육자의 활동은 아동의 연령과 아동의 활동과도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양육자와 아동의 활동에 양육자의 인식이 관련됨을 알 수 있으며, 몇몇 연구에서는 양육자의 근린환경만족도는 주거유형에 따라 달라짐을 밝히고 있다(천현숙 외, 2013; 이주림, 2014; 유인창 외, 2014; 김효정 외, 2018). 천현숙(2103)은 근린환경이 기성시가지 신시가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근린환경이 출산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기성시가지와 신시가지에 따라 안전성과 생활편의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안전성, 양육친화성에 대한 만족도는 출산의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sup>13)</sup> 근린환경 개선은 출산을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주림(2014)은 주거 유형과 양육자 특성에 따라 양육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차이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에 따른 육아관련 생활인프라 만족도는 차이가 거의 없으나, 일반 생활인프라 만족도는 다세대·다가구 양육자의 육아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양육자에게 경제적 영향력보다 생활인프라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 비아파트 양육자에게 생활인프라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로 자녀 연령, 양육자의 취업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유아 자녀를 둔 양육자와 미취업 모가 근린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자의 특성에 따라서도

13) 기성시가지는 안전성, 양육친화성, 생활편의성이 근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안전성, 양육친화성이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시가지는 양육친화성 생활편의성이 근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안전성, 양육친화성이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환경 만족도 차이가 나타났다.<sup>14)</sup> 유인창(2014)은 주거 유형별로 근린환경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나 아파트에 비해 비아파트 거주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sup>15)</sup> 특히 이동안전성과 인접성은 기타주거에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주거지 유형에 따라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취학 아동의 육아환경이 가장 좋은 주거환경에 관해 조사하였는데<sup>16)</sup> 비아파트 중 특히 다세대·다가구 거주자들의 71.4%가 아파트를 선택해 다세대·다가구의 주거환경은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김효정(2018)의 연구에서는 주거 유형별로 사회적 교류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교류빈도와 교류장소는 주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아동과 함께 이용하기 좋은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는 다세대 거주 양육자의 경우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아파트 거주 양육자의 경우는 놀이터와 도서관 등으로 나타나 다세대에 거주하는 양육자는 이웃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보여준다. 아동과 함께 갈만한 곳에 대해서도 다세대 양육자는 전혀 없다고 답한 반면 아파트 양육자는 단지 외부공간과 단지 주변 길이라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외부공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자동차로 인한 위험과 주거지 내 자연요소 부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선요구에서는 아파트 양육자는 도보권 내 환경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다세대 양육자들은 야외에서의 불편함과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을 응답하여 주거 유형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 
- 14)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5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영아(0~2세)와 유아(3~5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영아부모는 일반생활인프라, 경제적 특성이 육아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부모는 육아관련생활인프라, 일반생활인프라, 육아도움, 경제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 부모의 육아환경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자녀 연령에 따라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의 중요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모와 미취업모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미취업모가 일반생활인프라, 양육도움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근린지역에서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는 전업주부에게는 일반적인 생활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15) 내부환경 만족도는 안전사고 예방과 범죄예방, 외부환경 만족도는 접근성과 시설안전, 보육시설 만족도는 이동안전성과 이동성에서 아파트가 유의미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 16)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기 좋은 주거환경은 아파트 58.6%, 단독주택 36.8%, 다세대 다가구와 연립주택은 4.6%로 나타났다(유인창 외, 2014).

근린환경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은 만족도 외에도 부담감이나 스트레스의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출산과 양육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며, 일시적이기보다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가진다(Crinic & Greenberg, 1990; 안지영·박성연, 2002; 유진아, 2016). 이제까지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양육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과 부부관계나 사회적 지지망과 같은 가정환경 특성 요인, 그리고 양육 대상인 자녀 특성 요인으로 나누어 주로 연구되고 있다(김동진, 2012; 서주현·김진경, 2012).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감은 개인적인 요인 뿐 아니라 양육자가 자녀를 동반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근린환경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오성훈 외, 2015; 황명주, 2015; 구민지, 2017). 양육자는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하므로 환경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그와 관련된 연구는 일부에 불과하다. 오성훈(2015), 황명주(2015)의 연구에 따르면 근린환경의 질이 좋지 않으면 활동은 줄어들게 되며 이는 양육스트레스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인창(2014)은 아파트가 저층주거지보다 양육친화적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오성훈(2015)과 구민지(2017)의 연구에서는 유모차를 가지고 외출하는 경우 보행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보행환경의 질에 의해 양육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점을 밝히고 있다. 황명주(2015)의 연구에서는 아파트 내에서 지상부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한 신아파트보다 지상부에 차가 다니는 구아파트에서 양육자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이는 양육자와 아동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활동반경이 넓어지거나 통학을 하게 되면서 보행환경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된다면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 근린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자가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양

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진경·서주현, 2010; 차삼숙·신유림, 2005; 이정신·최영희, 2010; 노신애·진미정, 2012). 차삼숙·신유림(2005)의 연구에서는 이웃 및 친인척의 지원이 높을수록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이웃의 양육도움이 양육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정신·최영희(2010)의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이 돌봄지원 영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며 보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도움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신애·진미정(2012)의 연구에서는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사회 자본을 높게 평가할수록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가족친화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친화성 인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과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에서 주거지역 근린환경은 양육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양육자의 인식은 양육자의 활동과 아동의 활동과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활동과 인식은 아동 연령과 주거 유형과 같은 특성의 차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양육자의 인식은 대체로 기성시가지이며 저층주거지인 경우 근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근린환경에 따라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도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물리적 근린환경이 아동과 양육자가 활동하기에 안전하지 못하면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며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 양육 도움을 받으면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자에게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과 함께 이웃의 양육도움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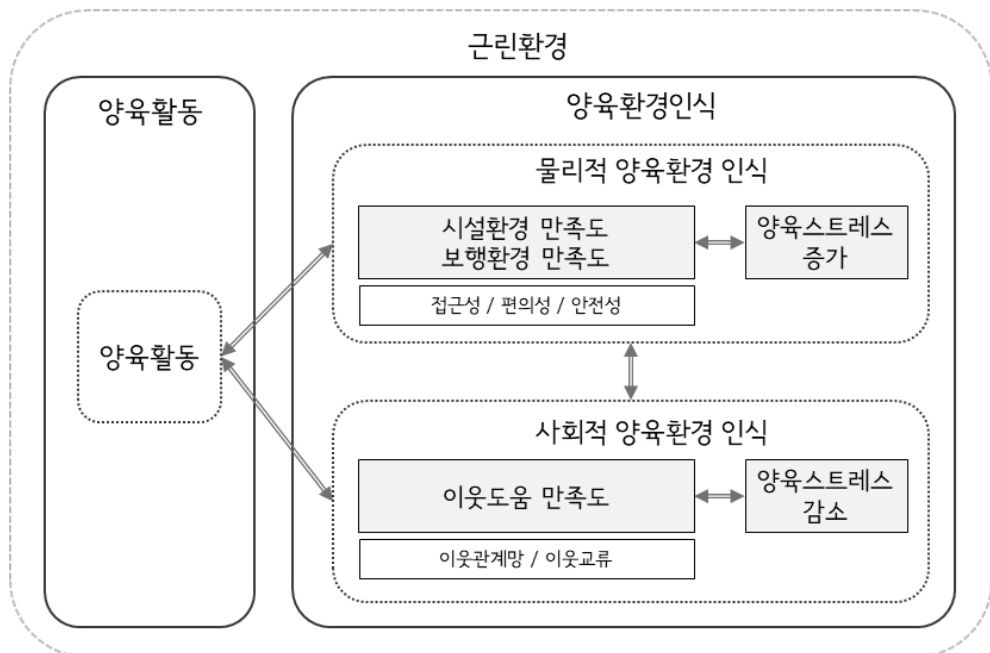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탐색적 초기단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근린환경에서의 양육자의 활동과 근린환경에 대한 환경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양육자의 인식에 대해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그 차이가 발생하

는 구체적인 원인과 상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은 제한적으로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근린환경에서 일어나는 양육활동과 양육자 인식은 구체적인 근린환경 맥락과 연결시켜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으며, 양육환경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근린환경-양육활동-양육자인식-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

### 제3절 분석의 틀

서울의 일반 서민주거지에 대한 단일사례연구를 통해 근린환경에서 일어나는 양육활동과 양육자 인식을 구체적인 근린환경 맥락과 연결시켜 심층적·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의 근린양육환경을 ‘물리적인 근린환경’과 ‘사회적 근린환경’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한다. 물리적인 근린환경은 양육과 관련된 시설과 이동공간으로 구성된 하드웨어적 양육조건이다. 사회적 근린환경을 양육자간의 사회적 교류와 도움의 관계망으로 구성되는 소프트웨어적 조건이다.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근린양육환경에 대한 양육자의 활동과 인식을 그림 2-1과 같은 흐름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신월4동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근린환경에서의 수행되는 양육자의 양육활동을 파악한다. 여성 양육자의 연령, 취업유형, 경제수준, 주거유형 등 사



<그림 2-1> 분석의 틀

회경제적 특성과 자녀의 수와 연령 등 피양육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양육에 참여하는 역할과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파악한다. 이어 양육자가 일상적으로 방문하고 이용하는 시설의 이용빈도와 시간으로 측정한다. 양육자가 이용하는 시설은 근린환경 내에서 아동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양육활동의 범위를 측정하여 양육자가 주중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범위와 목적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범위, 그리고 주말에 활동하는 범위를 측정하여 분석한다. 양육자의 특성에 따라 양육활동의 빈도, 시간, 범위가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다.

근린환경에 대한 양육환경인식은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를 의미하며 양육환경 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한다. 또한 양육환경 인식은 물리적 환경 인식과 사회적 환경 인식으로 구분하여, 일상적 활동을 하는 물리적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웃관계에 따른 사회적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물리적 환경은 보행환경과 시설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은 만족도와 활동제약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증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사회적 환경 인식 역시 이웃도움 만족도와 양육도움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감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웃도움 만족도는 이웃관계망과 이웃교류 측면에서 조사 분석한다.

조사 분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양육활동과 양육환경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먼저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육활동은 양육환경만족도(시설환경만족도, 보행환경만족도)와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 분석하고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양육활동 및 물리적 양육환경 만족도가 활동제약 양육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 관계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육활동과 이웃도움만족도와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이웃도움관계가 양육활동과 이웃교류를 통해 어떠한 과정으로 형성되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이웃교류가 양육도움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근린양육환경 사례조사를 위한 항목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양육자의 활동은 이용장소, 활동빈도, 활동시간으로 측정한다. 활동빈도와 시간은 활동에 대한 정량적 측정을 위한 연구에서 다수 활용되고 있다. 활동 범위는 정량적인 측정이 어려우므로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한다. 양육자의 물리적 환경 인식은 보행환경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로 측정하며, 환경에 대한 인식은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으로 구분하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이러한 구분은 젠더관점의 연구들에서 다수 활용되고 있다. 사회적 환경 인식은 양육도움에 관한 이웃관계 만족도로 측정하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서적지지, 정보 공유, 물품 공유, 자녀돌봄부탁, 자녀친구관계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러한 구분은 사회적 자본, 커뮤니티 의식, 이웃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측정항목을 참고하였으며 양육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을 수립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물리적 환경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와 이웃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로 구분하여 측정하며,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물리적 환경과 이웃도움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구체화하였다.

<표 2-1> 조사 항목의 설정

구분	항목		세부항목
양육자 활동	양육활동		활동장소
			활동빈도
			활동시간
양육자 인식	물리적 환경	시설환경 만족도	시설접근성
			시설안전성
			시설편의성
		보행환경 만족도	대중교통접근성
			차량안전성
			범죄안전성
			보행편의성
	사회적 환경	이웃관계 만족도	이웃관계망
			이웃교류
			양육도움만족도
	물리적 환경부담	양육스트레스 증가	양육스트레스-부담감
			양육스트레스-고립감
			양육스트레스-자책감
	사회적 이웃도움	양육스트레스 감소	양육스트레스-이웃대화
			양육스트레스-돌봄부탁
			양육스트레스-자녀관계
양육자 특성	인구학적 특성		양육자 연령
			자녀연령
			미취학 자녀수
	경제적 특성		가구소득
			취업여부
			고용형태
	주거 특성		주택유형
			거주기간
			점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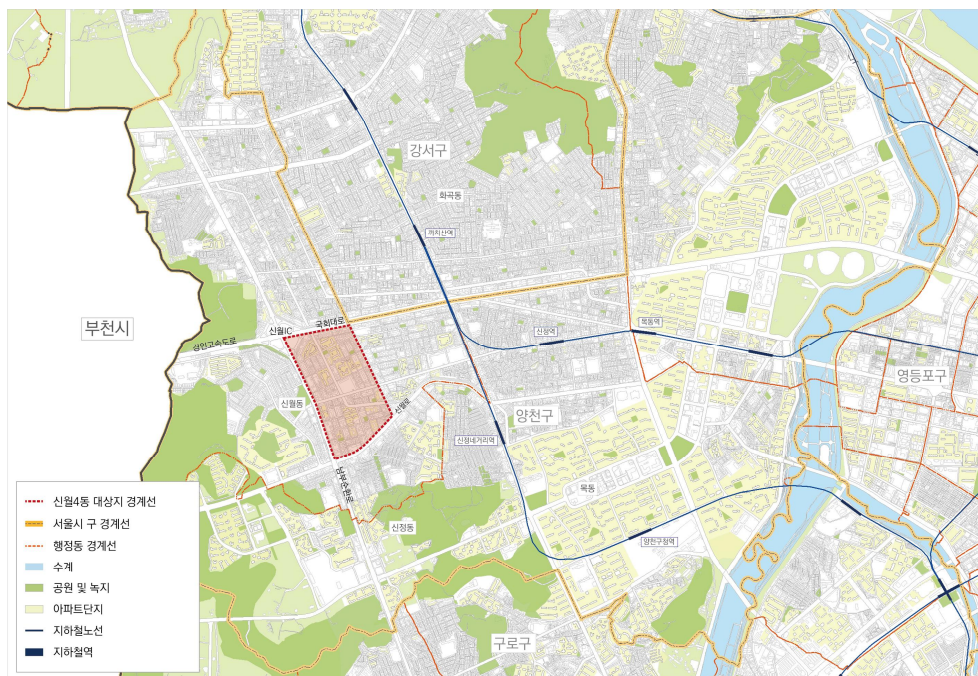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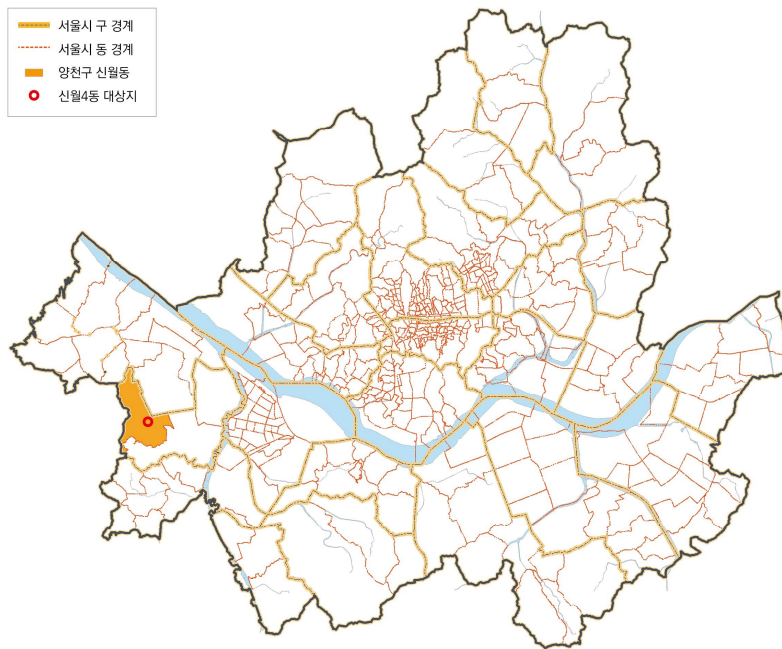
## 제3장 사례지역 근린환경과 양육활동

이 장에서는 연구대상지인 신월4동을 대상으로 서울의 일반적인 서민주거지가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양육자에게 어떠한 근린환경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양육활동’이란 아이의 양육을 위해 또는 불가피하게 아이들 동반하여 집 밖으로 나가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1) 양육환경의 관점에서 물리적 근린환경을 파악하고, 2) 근린환경에서 양육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본다. 물리적 근린양육환경은 현장조사 및 행정자료를 토대로 하며, 양육자의 근린환경에서의 양육활동은 197명의 미취학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10명의 미취학모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 특히 근린환경에서의 활동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면접조사 시 활동 범위를 도면에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양육활동을 분석하였다.

### 제1절 사례지역의 근린환경

#### 1. 입지적 맥락

연구 대상지인 신월4동은 서울시 양천구에 속하며 부천시와 연접한 서울시 서측 경계부 신월동의 일부이다. 이 지역 일대는 1960년대 화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1970년대 경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일반적인 격자형 주거지역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초기에 단독주택지로 계획되었으나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현재 빌라형태의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건축되었다. 블록 내부에는 저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함께 소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산재된 혼합 주택지 성격을 가진다.



<그림 3-1> 대상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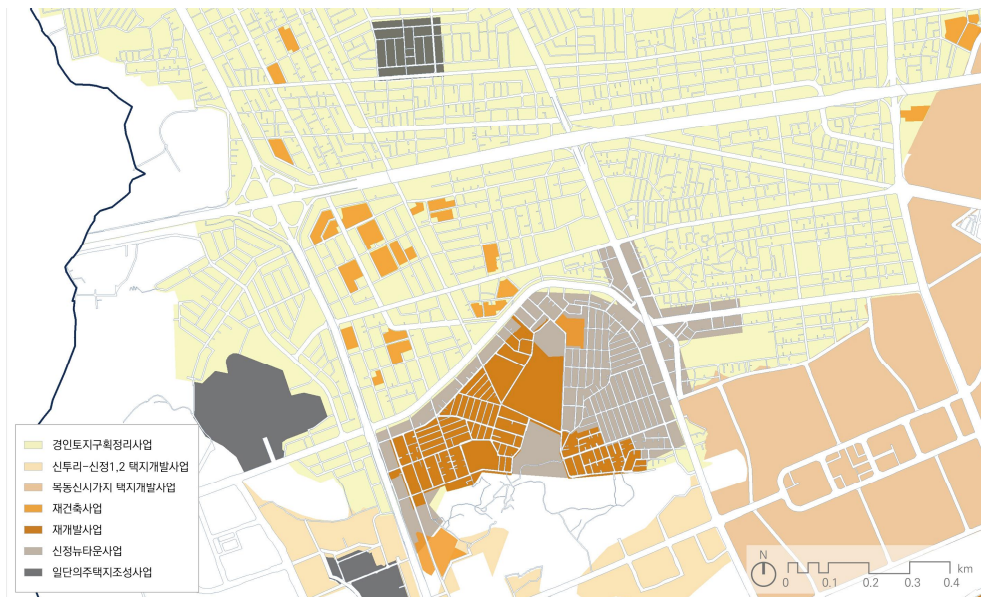
자료출처 : 국가공간정보포털(2016), <http://www.nsdi.go.kr/?menu=2679> 「새주소기본도」

대상지는 북측으로 국회대로(8차선), 서측으로 남부순환로(8차선), 남측으로 신월로(6차선), 동측으로는 월정로(4차선)에 접해 있고, 내부는 격자형 블록형태를 이루고 있다. 외곽 경계부의 간선도로를 따라 버스정류장이 있고,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2호선과 5호선 환승이 가능한 까치산역이며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다.

대상지의 남측에 연접해서는 신정동 일대에 뉴타운 사업지구가 지정 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신정 1·2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동측으로 가까운 거리에 택지개발사업으로 형성된 목동신시가지가 위치한다. 대상지 내부에는 단독주택지 재건축 사업에 의한 소규모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 2. 근린환경 현황

연구대상지인 신월4동은 총 면적 0.52km<sup>2</sup>이며 총 인구 19,444명(6,918세대)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0-9세 아동 인구는 1,851명이며 아동 비율은



<그림 3-2> 대상지 및 주변 개발 현황

자료출처 : 국가공간정보포털(2016), <http://www.nsdi.go.kr/?menu=2679> 「새주소기본도」

9.5%로 서울시 평균 동별 아동비율 7.1%에 비해 높다. 이는 신월4동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용을 지불하는 젊은 층 부부가 거주하는 일반적인 저층 주택지의 성격을 가졌음을 반영한다.

<표 3-1> 대상지 인구 현황

구분	총인구(명)	아동인구(명)			아동인구 비율(%)
		계	0-4세	5-9세	
서울시	10,068,381	712,923	338,142	374,781	7.1
신월4동	19,444	1,851	830	1,021	9.5

자료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2018), <http://data.seoul.go.kr> 「서울시 동별 연령별 인구 현황」

대상지는 1960~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주택지의 전형적인 특성인 간선가로로 구획된 수퍼블록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북, 서, 남측으로는 통과교통을 담당하는 간선가로로 둘러싸여 있고, 내부는 격자형 국지도로와 골목길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블록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4~8차선의 간선도로변에는 보도가 확보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 주변에도 보도가 확보되어 있으나 그 외 내부 골목길은 4m 내외의 폭으로 보도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 대상지 내부에는 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교 주변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시속 30km/h이하로 속도제한이 있다.

사례지역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단독주택지역으로 출발했으나 이후 고밀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을 대체하여 다양한 주택유형이 혼합되어 있다. 단독주택 필지를 합병하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 또는 소형 아파트 단지도 산재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지역도 아니고 저층주택지도 아닌 ‘혼합 주택지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연구는 이러한 혼합적 특성을 서울의 서민주거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그 동안 ‘아파트지역’과 ‘저층주거지역’으로 구분해온 서울의 주택시가지의 유형구분에서 나아가 주택 유형의 혼재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대상지의 주택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그림 3-3> 대상지 가로 현황

자료출처 : 국가공간정보포털(2016), <http://www.nsdi.go.kr/?menuno=2679> 「새주소기본도」



<그림 3-4> 대상지 주택 현황

자료출처 : 국가공간정보포털(2016), <http://www.nsdi.go.kr/?menu=2679> 「새주소기본도」

194세대, 다세대주택 1,836세대, 연립주택 473세대, 아파트 3,415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비율은 57.5%를 차지하여 저층주택과 아파트가 절반 정도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다.

<표 3-2> 대상지 주택 현황

주택 종류	전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기타
주택수(세대)	5,942	3,415	473	1,836	194	24
비율(%)	100.0	57.5	8.0	30.9	3.3	0.4

자료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2018), <http://data.seoul.go.kr> 「서울시 동별 주택 현황」

대상지 내에는 다수의 양육관련 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어린이공원 외에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어린이공원이 4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대상지 주변으로 도보권(800m) 내에 오솔길공원, 서서울 공원 등 근린공원도 존재한다. 구립도서관은 도보권 내에 1개소 위치해 있으며, 대상지 내부 신월4동 주민센터에 어린이도서관(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어 총 2개의 도서관이 이용가능하다. 신월문화체육센터 1개소가 대상지에 인접하여 도보권 거리에 위치한다.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구립공공시설로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문화실 등을 갖추고 있다. 어린이집은 대상지 내에 14개소, 유치원은 2개소가 대상지 내에 위치해 있다. 병원은 도보권 내 5개 정도 위치해 있으나 그 중 소아과는 대상지 내에는 없으며 대상지와 바로 접한 도보권 내에 2개소가 위치해 있다. 마트 등 상업시설은 6개소 있으며, 동측으로는 경창시장, 남측으로는 신곡시장 등 재래시장이 대상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그림 3-5> 대상지 시설 현황

자료출처 : 국가공간정보포털(2016), <http://www.nsdi.go.kr/?menu=2679> 「새주소기본도」

다음지도(2018), <http://map.daum.net>



## 제2절 양육자 개인 특성 분석

### 1. 설문조사 대상자 개인 특성

설문대상자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여성에 국한되었으며, 무작위로 선정된 표본 수는 총 197명이다. 양육자의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은 75.6%, 40대 15.7%로서, 30~40대 미취학모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일부 20대(7.1%) 및 50대(1.5%)의 양육자가 포함되어 있다.

취업 상태는 전업주부가 38.1%, 전일제 취업이 34.0%, 시간제 취업이 18.8%, 육아 휴직이 9.1%로 나타나 응답여성이 육아를 담당하는 시간적 조건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300~500만원 사이가 61.4%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300만원 미만이 19.8%, 500만원이상이 18.7%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80%이상이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3~5인 가구 기준 중위계층(약 300~500만원) 또는 그 이하의 계층에 속해 있어 일반적인 서민주거지역으로 볼 수 있다. 운전 여부는 운전을 하는 경우가 54.3%로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가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다가구·다세대·연립이 41.6%, 단독주택이 5.6%를 차지하고 있고, 2개동이상 아파트가 41.1%, 1개 동 아파트가 11.7%로서 저층주택과 아파트가 약 절반 정도의 비슷한 수준으로 신월4동의 전체적인 주택유형 구성과 유사하다. 주거 점유형태는 전·월세가 56.9%, 자가가 43.1%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3년이상에서 5년미만이 39.6%, 1년이상 3년미만이 34.5%로 나타나 거주기간이 1년~5년 사이가 응답자의 약 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3> 설문조사 대상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N)			197	100.0
연령대	20대		14	7.1
	30대		149	75.6
	40대		31	15.7
	50대		3	1.5
취업 상태	취업	전일제 취업	67	34.0
		시간제 취업	37	18.8
	미취업	육아휴직 중	18	9.1
		전업주부	75	38.1
월 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9	19.8
	300만원~500만원		121	61.4
	500만원이상		37	18.7
거주 주택유형	아파트	1개동 아파트	23	11.7
		2개동이상 아파트	81	41.1
	비아파트	단독주택	11	5.6
		다가구, 다세대, 연립	82	41.6
주거점유형태	자가		85	43.1
	전세, 월세		112	56.9
거주기간	3년 미만		71	35.0
	3년~5년		78	39.6
	5년~10년		38	19.3
	10년이상		10	5.1
자가용 운전여부	운전을 함		107	54.3
	운전을 하지 않음		90	45.7

## 2. 면접조사 대상자 개인 특성

면접조사에는 양육자의 취업형태, 자녀 연령, 자녀의 수, 거주 주택 유형, 거주기간이 서로 다른 양육자가 참여하였다<sup>17)</sup>. 양육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 구분해보면 전일제 취업 1명, 시간제 취업 2명, 전업주부 7명이며, 전업주부 중 2명은 취업 및 시험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녀 특성에 따라서는 미취학 아동 2명이상이 5명, 미취학 아동이 1명인 경우가 5명이며, 막내 자녀 연령이 영아인 경우가 4명, 유아인 경우가 6명이다. 주택 유형에 따라서는 아파트 거주자가 7명, 비아파트 거주자가 3명 참여하였다. 거주기간은 2년에서 20년까지 다양하다. 연령대는 모두 30~40대 이고, 자녀 조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1명을 포함, 모두 본인이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

<표 3-4> 면접조사 대상자 특성

구분	연령대	취업여부	주양육자	자녀수	자녀연령	주택유형	거주기간
1	40대	전업주부	본인	취학 1명 미취학 1명	6세	아파트	6년
2	30대	전일제 취업	자녀조모 본인	취학 1명 미취학 1명	2세	아파트	8년
3	30대	전업주부 (취업준비)	본인	취학 1명 미취학 1명	3세	아파트	3년
4	30대	전업주부	본인	미취학 2명	0세/3세	아파트	20년
5	30대	시간제 취업	본인	미취학 2명	2세/4세	다세대 주택	6년
6	30대	시간제 취업	본인	미취학 2명	2세/5세	아파트	7년
7	30대	전업주부 (시험준비)	본인	미취학 2명	3세/6세	다세대 주택	2년
8	30대	전업주부	본인	미취학 2명	4세/6세	단독 주택	8년
9	40대	전업주부	본인	취학 2명 미취학 1명	5세	아파트	13년
10	40대	전업주부	본인	취학 2명 미취학 1명	5세	아파트	11년

17) 면접조사 대상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면접의사를 확인하는 한편 눈덩이 표집방식(snowball)을 통해 선정하였다.

### 제3절 근린환경에서의 양육활동 특성 분석

#### 1. 자녀 양육의 일반적 특성

본 절에서는 일반적인 서민 저층주거지인 신월4동의 물리적 환경에서 여성 양육자들이 수행하는 양육활동의 특성에 대해 설문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면접조사결과를 통합하여 살펴본다. 설문조사대상 197명의 양육자가 양육하는 자녀의 수는 2명이 가장 많은 61.9%를 차지했으며, 1명을 키우는 경우는 24.0%이고 3명인 경우는 4.1%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인 미취학 자녀의 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가 1명인 양육자는 58.4%, 2명인 양육자는 41.6%로 나타났다. 자녀 출생년도는 미취학 자녀가 2명 이상의 경우 막내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막내 자녀가 유아인 양육자는 60.9%, 영아인 양육자는 39.1%로 나타났다.

<표 3-5> 자녀의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자녀 수	1명	67	34.0
	2명	122	61.9
	3명	8	4.1
미취학 자녀 수	1명	115	58.4
	2명	82	41.6
막내자녀출생년도	영아(2016~2018년)	77	39.1
	유아(2012~2015년)	120	60.9

설문조사에 응답한 양육자의 직업종사유형이 다양한 만큼 이들의 자녀 양육활동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누가 자녀양육을 담당하는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는 주중과 주말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주중에 자녀를 돌보는 주양육자<sup>18)</sup>의 경우 전체의 54.8%는 응답자가 직접 담당하고 있

으며, 친인척은 27.9%로 나타나 친인척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배우자가 주로 양육하는 경우는 10.7%로 남성의 참여 비중도 확인할 수 있다. 주말의 경우 응답자 본인이 담당하는 경우가 84.3%로 높아지고, 배우자 양육참여도 14.2%로 증가하며, 친인척은 1.5%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주말은 대부분 자녀의 부모가 직접양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중에는 5.6%의 응답자가 도우미에게 의존하지만 주말에는 도움을 받지 않는 것도 이러한 패턴을 나타내 준다. 이는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 양육자 및 배우자의 주말과 주중의 근무여건의 차이들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6> 자녀의 주양육자

구분	주중		주말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본인	108	54.8	166	84.3
배우자	21	10.7	28	14.2
친인척	55	27.9	3	1.5
도우미	11	5.6	-	-
기타	2	1.0	-	-
계	197	100.0	197	100.0

설문에 응답한 양육자가 자녀를 돌보는 평균시간은 주중은 6시간, 주말은 9.3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중에는 보육시설에 보내거나 취업 양육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주 양육을 담당하므로 나타나는 차이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아는 평균 8시간, 유아는 평균 4.6시간으로 나타나 영아를 돌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아는 가정보육을 하거나 보육시설에 보내더라도 긴 시간 보내지 않고 양육자 본인이 돌보는 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를 돌보는 시간 역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전일제 취업은 3.7시간, 시간제 취업은 5.3시간, 육아휴직은 9.8시간, 전업주부는 7.4시

18) 자는 시간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을 의미한다.

간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자녀 연령이 대부분 2017~2018년생으로 나타나 출산 후 가정보육을 하며 돌보는 시간이 긴 것으로 파악된다. 전업주부의 경우 보육시설 정규반을 보내면서 돌보는 시간이 육아휴직자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나며, 취업자의 경우 전일제와 시간제에 따라 돌보는 시간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표 3-7> 주중 및 주말에 자녀를 돌보는 평균 시간

구분		사례수(명)	주중(시간)	주말(시간)
전체		197	6.0	9.3
자녀 연령	영아	77	8.0	10.2
	유아	120	4.6	8.7
미취학 자녀수	1명	115	5.7	8.7
	2명	82	6.4	10.1
취업 상태	전일제 취업	67	3.7	8.8
	시간제 취업	37	5.3	9.1
	육아휴직	18	9.8	9.5
	전업주부	75	7.4	9.8

자녀의 보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집 밖의 보육시설이나 학원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오후 2시~3시까지 보육하는 정규반과 저녁 7시 반까지 보육하는 종일반으로 구분된다. 유아학원시설은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와 같은 유아학원시설을 포함한다. 자녀의 보육방법을 조사한 결과 영아의 경우 53.2%는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으며, 나머지 45.8%는 보육시설 정규반이나 종일반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경우는 모두 가정에서 보육하지 않고, 91.7%가 보육시설 정규반(62.5%)이나 종일반(29.2%)에 보내며, 8.3%는 유아학원시설을 이용한다. 취업 양육자의 경우 종일반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전일제 취업의 경우 시간제보다 높은 41.8%가 종일반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가 2명인 경우 첫째는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

하는 경우가 93.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취업 양육자는 보육시설 종일반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서 주중에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미취업 양육자에 비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유아의 경우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중에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영아에 비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8> 자녀의 보육방법

구분		사례수 (명)	보육시설 정규반	보육시설 종일반	유아학원 시설	가정에서 보육	계(%)
전체		197	50.8	23.4	5.1	20.8	100.0
자녀 연령	영아	77	32.5	14.3	-	53.2	100.0
	유아	120	62.5	29.2	8.3	-	100.0
미취학 자녀수	1명	115	47.0	24.3	7.0	21.7	100.0
	2명	82	56.1	22.0	2.4	19.5	100.0
취업 상태	전일제취업	67	38.8	41.8	13.4	6.0	100.0
	시간제취업	37	54.1	35.1	-	10.8	100.0
	육아휴직	18	11.1	-	-	88.9	100.0
	전업주부	75	69.3	6.7	1.3	22.7	100.0

## 2. 양육활동의 시설이용 특성

### (1) 양육활동의 주요 장소

양육자는 자녀를 돌보면서 다양한 필요에 따라 자녀를 데리고 집 밖의 동네에서 활동을 한다. 이를 근린양육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자녀와 함께하는 집 밖으로의 외출활동은 목적지에서의 활동과 그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조사대상인 신월4동에서 자녀와 함께 가는 목적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연구자의 양육경험에 근거하여 다양한 목적지를 열거하고

복수응답 하도록 한 결과는 표 3-9과 같다. 제시된 목적지 외에 다른 목적지가 있으면 기입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70%이상의 응답자가 공원·녹지, 상업시설, 놀이터, 의료시설, 공공보육시설, 민간놀이시설을 자녀와 함께 활동하는 주요 장소로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공원·녹지, 상업시설, 놀이터는 응답자의 90%이상, 의료시설과 공공보육시설은 응답자의 80%이상이 자녀와 함께 가는 동네 시설임을 밝혔다. 동네에 있는 공원·녹지와 놀이터는 거의 모든 양육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주요한 양육활동의 장소이며, 동네의 상업시설과 의료시설도 아이를 데리고 가는 주요 목적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집 밖을 나가 아이를 놀게 하고 함께 산책하는 활동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동네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아이에게 물품을 사주기 위해 상업시설을 방문하며, 인근 병원에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것도 대부분의 양육자가 수행하는 양육활동임을 나타낸다. 이어서 공공보육시설과 민간놀이시설 또한 대부분의 양육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는 주요 목적지로 응답되었다. 공공보육시설에 아이들 맡기는 것

<표 3-9> 양육자가 자녀와 함께 활동하는 주요 장소

구분	이용자수(명)	비율(%)
공원, 녹지	190	96.4
상업시설	187	94.9
놀이터	182	92.4
의료시설	171	86.8
공공보육시설	165	83.8
민간놀이시설	146	74.1
기타편의시설	90	45.7
도서관	88	44.7
교육시설	77	39.1
이웃집	64	32.5
주민커뮤니티시설	37	18.8
공공문화체육시설	34	17.3
유아학원시설	20	10.2



은 80%가 넘는 응답자에게 일상적인 양육활동이며, 74%에 이르는 응답자는 아이의 놀이활동을 위해 민간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0%에 미치지 못하지만 도서관, 교육시설, 이웃집, 주민커뮤니티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아학원시설도 일부 응답자가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목적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이용비율은 44.7%로서 약 절반의 응답자가 아이와 함께 도서관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민커뮤니티시설(18.8%), 공공문화체육시설(17.3%)은 양육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근린양육활동으로서의 비중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45.7%의 응답자는 은행과 같은 기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이들 제시된 시설이외의 다양한 다른 시설도 아이와 함께 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시설의 위치에 따른 접근성의 정도나 시설의 만족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자체로서 자녀 양육에 있어 시설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동네에서 자녀와 함께 가장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는 놀이터, 공공보육시설, 공원녹지, 상업시설, 의료시설이며 자녀를 동반하여 이러한 시설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양육자에게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2) 양육활동 장소 이용빈도 및 시간

위에서 살펴 본 방문시설은 얼마나 많은 응답자가 공통적으로 시설을 방문하는지를 나타낼 뿐, 그 시설의 이용빈도나 이용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아이와 함께 가는 이들 시설의 방문 빈도 및 체류 시간은 근린양육활동을 이해하는 주요한 측면이다. 양육자가 장소를 방문하는 빈도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3-10). 첫째는 일 단위 방문시설로서 거의 매일 방문하는 공공보육시설과 유아학원시설이 여기에 속한다.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은 정해진 횟수만큼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하므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 둘째는 주로 주간단위 시설로서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서너 번

방문하는 시설이다. 놀이터, 교육시설, 상업시설이 여기에 속한다. 의무적으로 방문하지 않는 시설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시설은 놀이터이며, 놀이터는 매주 이용하는 비율이 9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 역시 매주 이용하는 비율이 77%로 나타났다. 셋째는 주단위와 월단위가 혼합된 시설로서 일주일에 한두 번 가거나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시설이다. 공공문화체육시설, 이웃집, 공원·녹지, 도서관, 주민커뮤니티시설, 민간놀이시설, 기타 편의시설이 여기에 속한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일주일에 1~2번 이용하는 빈도가 64.7%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원·녹지, 도서관, 기타 편의시설, 민간놀이시설, 의료시설은 한 달에 1-2번 방문한다는 응답이 높아 다른 시설들에 비해 방문 빈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10> 양육자가 자녀와 함께 장소를 방문하는 빈도

구분	이용자 수(명)	방문 횟수				계(%)
		한달에 1~2번	일주일 1~2번	일주일 3~4번	거의 매일	
공공보육시설	165	0.0	0.0	1.2	98.8	100.0
유아학원시설	20	0.0	0.0	15.0	85.0	100.0
놀이터	182	9.3	39.6	34.1	17.0	100.0
교육시설	77	6.5	42.9	50.6	0.0	100.0
상업시설	187	23	58.3	11.2	7.5	100.0
공공문화체육시설	34	35.3	64.7	0.0	0.0	100.0
이웃집	64	39.1	57.8	3.1	0.0	100.0
공원, 녹지	190	65.8	31.1	2.1	1.1	100.0
기타편의시설	90	63.3	36.7	0.0	0.0	100.0
도서관	88	65.9	33.0	1.1	0.0	100.0
주민커뮤니티시설	37	75.7	24.3	0.0	0.0	100.0
민간놀이시설	146	89.0	11.0	0.0	0.0	100.0
의료시설	171	91.2	8.8	0	0	100.0

하원하면 주로 놀이터에서 놀아요. 주위에 있는 애들은 다 여기 와서 놀아요.

(4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 단독주택 8년 거주)

바로 집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활동적이라서. 그러면 놀이터에서 기다렸다가 오는 친구들 있으면 같이 놀고 해요. 놀이터는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나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많이 놀아요.

(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취업준비중, 아파트 3년 거주)

이러한 방문 빈도는 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방문 빈도에 이용자수를 고려하면 근린양육환경에서 가장 많은 양육자가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시설을 유추할 수 있다. 신월4동 연구대상지에서 대부분의 양육자에게 공공보육시설은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어린이 놀이터 또한 양육자와 양육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업시설은 자녀를 돌보는 목적 보다는 필요한 물품구매 시 자녀를 동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거의 모든 양육자가 매주 한번 이상 방문함을 알 수 있고, 방문 빈도는 주간 또는 월간으로 낮아지지만 공원, 녹지도 대다수의 양육자가 자녀를 동반하여 집 밖으로 나가는 주요한 양육활동 목적지로 나타난다.

방문하는 장소에서 머무르는 시간도 근린환경에서의 양육활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측면인데, 조사결과는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표 3-12). 방문 시 이용시간은 보육시설이 대부분 3시간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양육자가 함께 이용하는 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이용시간이 높은 장소를 차례로 살펴보면 민간놀이시설, 공원·녹지, 이웃집, 교육시설, 도서관, 주민커뮤니티시설, 놀이터, 상업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기타편의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시간에서 2~3시간이상 오랜 시간 머무르는 빈도가 높은 시설은 민간놀이시설과 공원·녹지로서 자녀의 놀이와 산책을 위해 방문하는 시설이며, 표 3-11에서 보듯이 빈번하게 방문하기보다는 다수가 월 단위로 방문하여 한 번 방문하면 머무르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시간이 1시간~2시간 비율이 높은 시설은 도서관과 교육시설로 나타났다. 책을 읽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길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0분~1시간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놀이터, 주민커뮤니티 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상업시설로 나타났으며 이 시설들은 집에서 멀지 않은 시설로 자주 방문하여 짧은 시간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0분미만 비율이 높은 시설은 의료시설과 기타편의시설로 이는 병원진료, 은행업무, 세탁물 위탁과 같이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목적에 따라 이용시간이 짧은 것으로 판단된다.

방문장소의 이용빈도와 시간을 살펴본 결과 양육활동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는 보육시설, 놀이터, 교육시설, 상업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은 정기적으로 등하원을 해야 하는 시설임을 고려할 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중 놀이터와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표 3-11> 양육자가 자녀와 함께 장소를 이용하는 시간

구분	이용자 수(명)	방문 시 이용시간					계(%)
		30분 미만	30분~1시간	1~2시간	2~3시간	3시간 이상	
공공보육시설	165	0.0	0.0	0.0	1.2	98.8	100.0
유아학원시설	20	0.0	5.0	5.0	5.0	85.0	100.0
민간놀이시설	146	0.0	15.8	61	23.3	0.0	100.0
공원, 녹지	190	0.5	23.2	56.3	17.9	2.1	100.0
이웃집	64	1.6	29.7	59.4	9.4	0.0	100.0
교육시설	77	1.3	32.5	66.2	0.0	0.0	100.0
도서관	88	0.0	36.4	63.6	0.0	0.0	100.0
주민커뮤니티시설	37	0.0	70.3	29.7	0.0	0.0	100.0
놀이터	182	4.4	63.7	31.9	0.0	0.0	100.0
상업시설	187	32.6	50.3	17.1	0.0	0.0	100.0
공공문화체육시설	34	44.1	52.9	2.9	0.0	0.0	100.0
의료시설	171	53.8	45.6	0.6	0.0	0.0	100.0
기타편의시설	90	64.4	33.3	2.2	0.0	0.0	100.0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용시간은 보육시설, 민간놀이시설, 공원·녹지, 이웃집, 교육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을 제외하면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이용시간이 길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3) 양육활동 장소 이동 수단

동네에서 아이를 데리고 위의 목적지에 가서 수행하는 양육활동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이들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도 근린양육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양육자가 자녀를 데리고 주로 이용하는 장소까지 가는 방법을 살펴본 결과 도보로 가는 비율이 높은 순으로 놀이터, 이웃집, 기타편의시설, 의료시설, 상업시설, 공공보육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공원·녹지, 도서관, 공공문화체육시설, 민간놀이시설, 유아학원시설, 교육시설로 나타났다.

<표 3-12> 양육자가 자녀와 함께 장소까지 이동하는 수단

구분	이용자 수(명)	이동 수단			계(%)
		도보	버스·택시	자가용	
놀이터	182	99.5	0.0	0.5	100.0
이웃집	64	98.4	0.0	1.6	100.0
기타편의시설	90	95.6	1.1	3.3	100.0
의료시설	171	89.5	0.6	9.9	100.0
상업시설	187	73.3	0.0	26.7	100.0
공공보육시설	165	62.4	35.8	1.8	100.0
주민커뮤니티시설	37	59.5	18.9	21.6	100.0
공원, 녹지	190	56.8	0.5	42.6	100.0
도서관	88	56.8	6.8	36.4	100.0
공공문화체육시설	34	47.1	26.5	26.5	100.0
민간놀이시설	146	43.2	10.3	46.6	100.0
유아학원시설	20	30.0	70.0	0.0	100.0
교육시설	77	20.8	64.9	14.3	100.0

놀이터, 이웃집, 기타 편의시설은 집 근처에 위치해 있어 자녀를 데리고 거의(95%이상) 걸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시설과 상업시설도 도보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 현황분석에서도 이 시설들은 대상지 내에 비교적 고루 분포해서 거리가 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공공보육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공원·녹지, 도서관은 도보 이동 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버스·택시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게 조사되었다. 이 시설들은 대상지 현황분석에서 도보 10~15분 거리 이내에 위치하여 도보접근이 가능하지만 차량이용빈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민간놀이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교육시설, 유아학원시설은 도보 이동 비율이 50% 보다 낮게 나타나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교육시설과 유아학원시설의 경우 자체적으로 차량을 제공하므로 버스 이용빈도가 64.9%, 70%로 높게 나타나며,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셔틀버스가 제공되므로 버스 이용빈도가 26.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상업시설의 경우는 동네에 위치한 상점을 이용하는 경우는 도보로 이동하지만(73.3%), 26.7%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도보로 접근하기 어려운 거리에 위치한 대형 또는 전문상업시설을 방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시설별 접근 이동수단의 다양한 선택은 시설의 공간분포 패턴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대상지의 경우 양육활동이 주로 일어나고 동네 안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주요 장소에 대해서는 도보접근이 가능하여 일상적인 생활은 도보로 가능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원·녹지, 도서관, 공공문화체육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은 신월4동 밖에 위치하여 도보접근 대신 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양육활동의 공간범위 특성

본 절에서는 현장면접조사를 토대로 근린환경에서 자녀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는 양육활동이 어느 정도의 공간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근린양육활동은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면접대상자에게 지역에 대한 지도를 놓고 가는 곳과 이동 경로를 표시하게 하였다. 그림 3-1과 그림 3-2는 주중과 주말의 양육활동 공간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 (1) 주중 양육활동 범위

그림 3-1이 나타내듯이 주중에 자녀를 데리고 자주 다니는 장소는 주로 집 주변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육활동의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부합되는 것으로서 집 근처에 있는 보육시설, 놀이터, 교육시설을 주중에 주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장과 주민센터도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육아활동의 공간범위는 크게 200미터 반경과 400미터 반경의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100~200미터 반경의 범위는 보육시설과 놀이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보육시설을 보내는 양육자의 경우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자녀가 보육시설에서 하원한 이후에는 놀이터에서 자녀의 놀이활동을 지원하거나 교육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활동범위는 교육시설이나 시장, 주민센터 등 목적지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약 300~400미터 정도로 확장된다. 그림 3-1에서 신월4동의 경계를 넘어 방문하는 시설은 400미터 범위에 포함되는 동측 경창시장과 남측 신곡시장임을 볼 수 있다. 매일 방문하는 장소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는 시설들은 최대 400미터 범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센터의 내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 주민센터 인근에 거주하는 양육자는 자주 이용하지

만 400미터이상 거리에 거주하는 양육자의 경우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까지의 거리가 이용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시장이나 병원 등 방문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도 일상적인 도보권은 400미터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에 작은 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큰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집으로 와요. 평일에는 어디 가는데 특별히 없어요. 주로 병원 아니면 시장 정도. 시장을 한 바퀴 돈다거나 그 정도이고, 평일에는 주로 집에서 활동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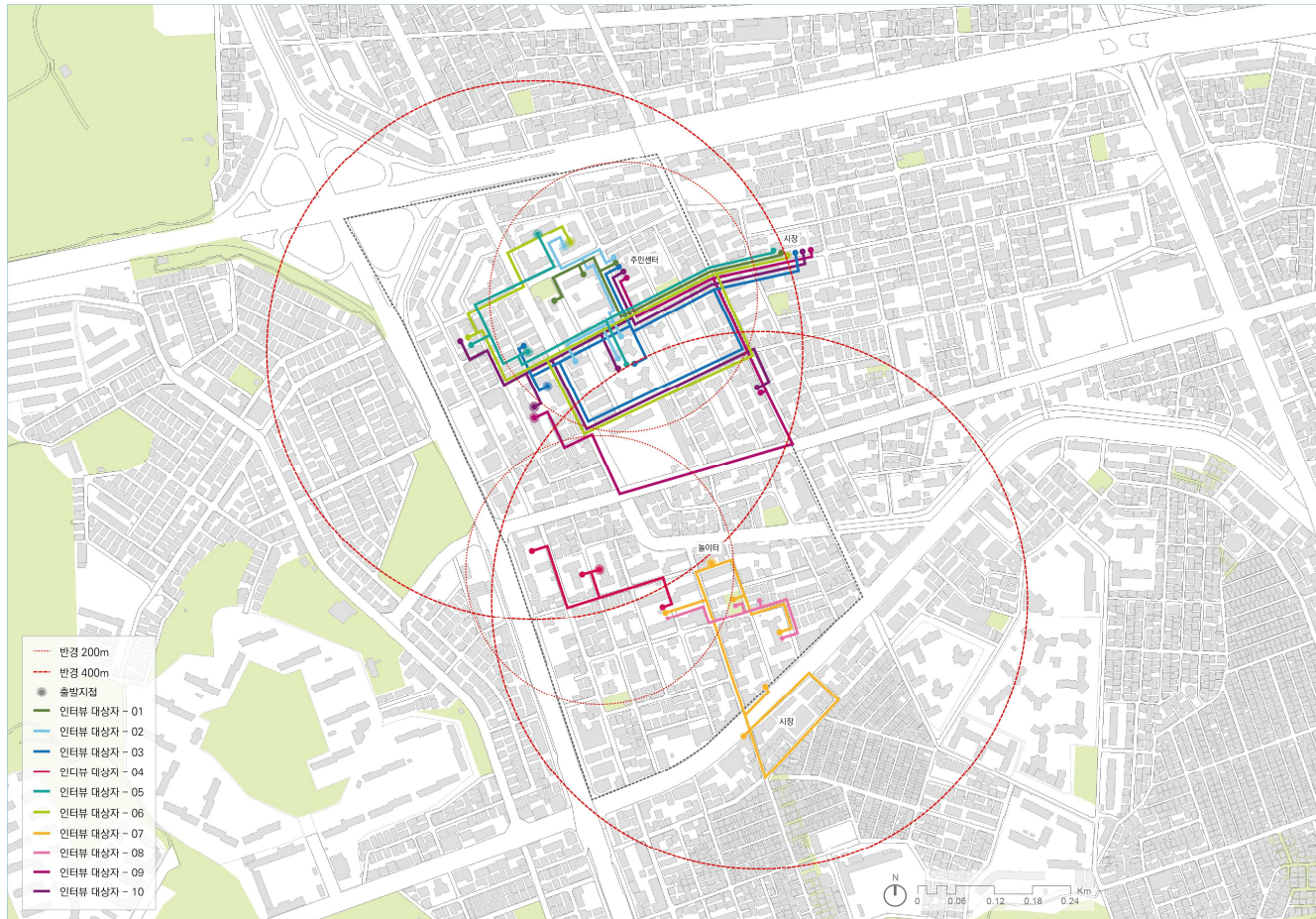
(2세/4세 자녀, 30대 시간제취업, 다세대주택 6년 거주)

하원하면 장을 보러 갈 때도 키크보드를 타거나 걸어서 시장에 가요. 병원도 그 쪽에 있고. 동네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해요.

(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취업준비중, 아파트 3년 거주)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 꼭 필요한 활동이라 판단하는 경우는 400미터이상의 범위라 하더라도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양육자가 주중에 일상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활동하는 범위는 약 400미터 이내 범위 이내로 판단된다.





<그림 3-4> 주중 양육활동 범위

## (2) 주말 양육활동 범위

주말은 취업에 종사하는 여성 양육자와 배우자가 양육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간이다. 그림 3-2는 주말 양육활동의 공간범위는 신월4동의 경계 밖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는 아래의 면담자 녹취내용에서 보듯이, 주말 양육활동의 범위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대부분 차를 이용하여 멀리 나가기 때문이다. 특히 주변에 갈만한 곳에 별로 없다는 시설에 대한 불만족 인식 큰 경우 차를 이용하여 멀리 외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미취학 자녀가 2명이상이면서 막내 자녀가 어린 경우도 도보로 활동하지 않고 주로 차를 이용하여 외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주말에 남편이랑 차로 목동에 가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동네에서는 잘 안다니고 외곽으로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일산이나 서울 시내나 체험학습 할 만한 데를 찾아서 주로 다니고 있어요.

(0세/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 아파트 20년 거주)

주말에는 차타고 여기저기 다니죠. 주말에는 이 동네에서는 안 놀아요. 항상 차타고 다녀요.

(4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 단독주택 8년 거주)

둘째 태어나고는 애가 아직 어리고 데리고 다니기 힘들니까 아예 차타고 멀리 나가요. 아빠랑 같이 차에 썬썬카도 다 싣고 그냥 멀리 나가서 놀아요. 동네에서는 집근처에만 다니고 과천, 일산, 용인, 김포, 인천 이쪽으로 멀리 가서 놀아요.

(2세 자녀, 30대 전일제취업, 아파트 8년 거주)

주말에는 신랑이 집에 있으면 차로 가요. 저는 운전을 못하니까. 애들 체험하는 데나 보고 뭐 하는데 체험관 그런데 다녀올 때도 있고요. 동네에는 그럴만한 데가 별로 없고.

(5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13년 거주)

주말에 도보로 근린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미취학 자녀가 유아기로 연령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부모가 함께 도보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범위는 크게 확장된다. 부모가 함께 자녀와 이동할 때는 약 800미터 정도의 범위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는 신월4동 밖에 위치한 공원이 이에 해당하는 주요한 주말 여가활동 목적지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애들이 좀 커서 공원을 많이 다녀요. 애들이 크니까 걸어 다니기 좋아해서 공원 갔다가 시장구경 하고 돌아오는 코스로 한 시간 정도 동네를 돌아서 산책해요. 돌아올 때 힘들면 버스를 타기도 하고.

(6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6년 거주)

남편이랑 애들이랑 다 같이 주말에 공원에 가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거기 잘 되어 있어서 애들이 놀 수 있게. 뛰어놀긴 좋아요. 애들 데리고 다니기 힘들니까 아빠 있는 주말에 차로 움직여요.

(5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11년 거주)

그러나 주말에도 부모 중 한 명이 같이 나가지 못해 혼자 자녀를 데리고 활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주중 활동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범위는 약 400내외의 범위로 나타나 주중보다 조금 넓어지지만 부모가 함께 다니는 범위에 비해서는 활동 범위가 크게 확장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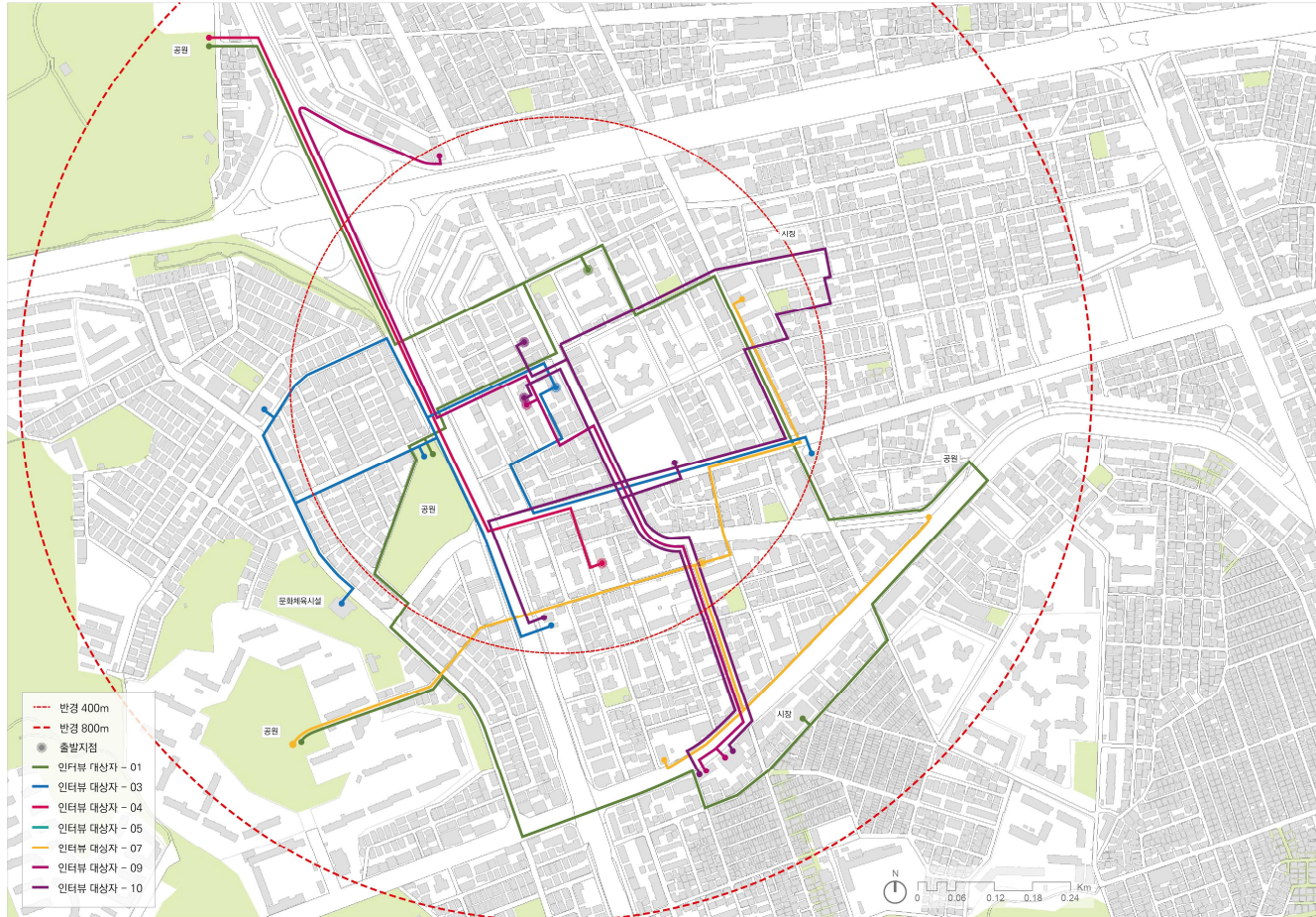
주말에는 키즈카페 갈 때도 있는데 시장 쪽에 다 있어요. 주말에 날이 좋고 따뜻할 때는 좀 크게 돌아요. 여기 빵집 거쳐서 이쪽으로 오는 정도예요. 날이 따뜻할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시장 가는데 추우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죠. 큰애는 킥보드나 자전거 타고 작은애는 유모차 타고 그러고 가요.

(2세/4세 자녀, 30대 시간제취업, 다세대주택 6년 거주)

주말에 동네에 있을 때도 있어요. 제가 평일에 거의 애들을 보니까 주말에 저는 좀 쉬거나 일할 거 있으면 하고 신랑이 애들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셋

이 멀리가긴 힘드니까 큰애는 자전거 둘째는 킥보드나 자전거 가지고 나가서 놀이터를 돌아다녀요. 아빠가 몸으로 많이 놀아주려고 해서 가끔 서서울 공원도 가고 해요.

(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취업준비중, 아파트 3년 거주)



<그림 3-5> 주말 양육활동 범위

## 제4절 소결

사례연구 대상지인 신월4동은 서울의 일반적인 서민주거지의 근린양육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총 197명의 설문응답 여성 양육자는 80%이상이 중위 또는 그 이하의 가구소득계층으로서, 20~30대가 82.7%이고 40대 양육자가 15.7%이다. 설문에 참여한 양육자들의 약 45%는 전업으로, 나머지 다수는 전일 또는 시간제 취업을 하면서 일부는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가며 자녀를 양육하며 배우자도 양육에 참여하고 있다. 응답자는 주중에는 하루 평균 6.0시간, 주말에는 하루 평균 9.8시간을 자녀를 돌보는데 쓰고 있다. 이들 양육자에게 동네는 집 밖으로 나가 아이를 키우는 근린양육환경이다. 집 밖에서의 양육활동은 방문시설, 방문 빈도, 방문시간, 이동수단에 의해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이 일어나는 지리적 위치는 양육활동의 공간범위를 나타내 준다.

동네에서 양육활동을 위해 가장 많은 양육자가 이용하는 장소는 공원녹지, 상업시설, 놀이터, 의료시설, 공공보육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장소는 보육시설, 놀이터, 교육시설, 상업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은 정기적으로 등하원을 해야 하는 시설임을 고려할 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중 놀이터와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육시설, 놀이터, 상업시설, 교육시설에 대한 방문은 대부분의 양육자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수행하는 양육활동으로 나타났다.

이용시간은 이용자 수와 이용빈도와는 달리 이용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시간에서 2~3시간이상 오랜 시간 머무르는 빈도가 높은 시설은 민간놀이시설과 공원·녹지로서 자녀의 놀이와 산책을 위해 방문하는 시설이며, 이용시간이 1시간~2시간 비율이 높은 시설은 도서관과 교육시설로 나타났다. 30분~1시간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놀이터, 주민커뮤니티 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상업시설로 나타났으며 30분미만 비율이 높은 시설은 의료시설과 기타편의시설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을

제외하면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이용시간이 길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양육자의 활동 범위는 주중과 주말 다르게 나타났는데, 주중 보육시설, 놀이터 등 일상적인 양육활동 범위는 100~200미터이며, 목적을 가진 양육활동 범위는 400미터이고, 주말 양육활동범위는 800미터로 확대된다. 이는 주말에는 여성 양육자와 배우자가 근무에서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양육활동의 범위를 늘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범위는 자녀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유아 자녀를 둔 양육자의 경우에는 주중 최대 양육활동 범위가 400미터에 이르지만, 영아와 유아 두 자녀를 둔 양육자의 경우 주중 100~200미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말에 부모가 함께 활동하며 유아 이상 연령이 높은 자녀를 동반하여 활동하는 경우 활동 범위는 약 800미터까지 확장된다. 그러나 주말이라도 양육자 혼자 자녀를 동반하여 활동하는 범위는 최대 400미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주말과 주중에 따라 보행을 통한 양육활동의 공간범위는 200미터, 400미터, 800미터로 구분되며, 이러한 공간범역 내에서도 자녀의 연령, 외출 시 다른 사람과의 동행여부에 따라 여성 양육자의 양육활동 범위는 차이를 보이는 점도 확인되었다.

양육자의 활동범위를 살펴본 결과 보육시설과 놀이터 등 양육자가 매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200미터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주일에 한두 번 이용하는 시설은 적어도 400미터 범위 내에는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0미터 범위 내에 위치하더라도 넓은 간선도로 등 보행접근이 어려운 환경인 경우 자주 이용하지 못하므로 영유아를 동반하여 시설까지 보행접근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제4장 물리적 근린양육환경에 대한 양육자 인식 분석

앞 장에서는 사례연구 대상지인 신월4동의 여성 양육자들이 수행하는 양육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들의 근린양육활동은 아이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 특정 시설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활동과 그 시설까지 접근하는 이동활동으로 구성된다. 시설방문활동과 이동활동은 주중과 주말에 따라 각기 다른 패턴을 보이고, 주중의 경우 대부분 400미터의 공간범위 내에서, 일부 시설의 경우는 800미터의 공간범위 내에서 주로 보행이동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말의 경우는 근린 범위 내 뿐 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하여 보다 원거리로 놀이, 여가, 쇼핑 성격의 양육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양육활동이 일어나는 주거지의 근린양육환경은 물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리적인 측면은 양육활동을 물리적으로 지원하는 시설환경과 보행환경을 의미하고, 사회적 측면은 양육자간의 사회적 교류와 도움의 관계망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연구 대상지의 물리적 근린양육환경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1) 물리적 양육환경인식을 시설환경과 보행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성·안전성·편의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2) 물리적 양육환경 인식을 양육스트레스 측면에서 살펴보고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활동과 환경만족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본다.



## 제1절 시설환경에 대한 양육자 인식

### 1. 시설환경 만족도 인식

#### (1) 시설환경에 대한 충족도와 만족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근린 내 입지된 시설의 충족도와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이 충분한지에 대한 충족도 인식은 평균적으로 보통(3.0)보다 낮은 2.61점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에 대한 만족도 역시 2.70으로 보통이하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앞 장의 3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양육자들은 신월4동 및 주변에 위치한 시설을 다양한 빈도 및 시간으로 이용하지만, 이 시설들이 충분하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4-1> 시설충족도와 만족도

구분		5점 리커트 척도					총계	평균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시설 충족도	비율	7.6	38.1	39.6	14.7	0.0	100.0	2.61
	응답수	15.0	75.0	78.0	29.0	0.0	197.0	
시설 만족도	비율	6.6	34.0	42.1	17.3	0.0	100.0	2.70
	응답수	13.0	67.0	83.0	34.0	0.0	197.0	

이러한 평균적 인식은 신월4동의 자녀 양육의 시설환경에 대한 양육자의 전반적인 평가를 보여주지만, 양육자에 따라 만족도가 어떻게 다른지는 나타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표 4-1에서 5점 리커트 척도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신월4동의 시설환경에 대해 일부 응답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수의 응답자는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시설의 충족도와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인식을 가진 응답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

체 197명의 응답자 중 15% 내외가 시설의 충족도(14.7%)와 만족도(17.3%)에 대해 만족한다는 4점 척도의 인식을 보였다. 아래의 면접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부 양육자들은 신월4동에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집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어서 좋고, 병원도 가까이 있어서 좋고, 앞에는 놀이터 있어서 금방 가고, 집 앞에 마트 있어서 금방 갈 수 있어서 좋고.

(3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시험준비중, 다세대주택 2년 거주)

다른 동네보다 어린이집도 많아서 선택권이 있어서 좋아요. 놀이터가 많아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2세 자녀, 30대 전일제취업, 아파트 8년 거주)

어린이집 많아서 선택권이 많아요. 대기를 하지 않아요.

(3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시험준비중, 다세대주택 2년 거주)

여기 공원이 많아요. 애가 작으면 유모차 가지고 다니기는 힘든데 우리 애는 뛰어다니고 걸어 다니고 하니까 도보로 15분쯤 나가면 공원이 있으니깐 좋죠.

(6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6년 거주)

그러나 15% 내외의 응답자가 양육 시설환경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보다 다수의 응답자는 보통 수준보다도 낮은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 시설충족도에 대해서는 39.6%, 시설만족도에 대해서는 42.1%의 응답자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충족도의 경우 45.7%, 만족도의 경우는 40.6%가 부정 또는 강한 부정의 인식을 보였다. 197명의 응답자 중 13~15명은 시설의 충족도와 만족도에 대해 매우 강한 불만(1점 척도)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 보다 약간 낮은 2.6~2.7의 리커트 척도가 시사하는 시설충족도와 시설만족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응답자가 40~45%에 이른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시설측면에서 신월4동의 근린양육환경은 보통으로 인식하는 비중에 버금

가는 다수의 양육자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전반적으로 동네에서는 갈만한 곳이 없고 부족한 시설이 많다는 시설 부족 인식과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다. 면접조사에서 자녀를 데리고 활동할만한 시설이 별로 없다는 의견이 많았고, 가까운 목동 신시가지와 신정택지개발지구로 구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비교하여 근린 양육환경이 부족하다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사 오기 전 신시가지에 거주했던 면접자와 신도시로 이사 예정인 면접자 역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근린양육환경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신시가지로 구성된 지역에 비해 기성시가지 지역이 상대적으로 양육환경으로서의 만족도가 낮다는 선행연구결과(전현숙 외, 2013)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인식 내용은 다음과 같은 면접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애들한테 필요한 시설 같은 게 부족한 거 같아요. 항상 뭘 하려면 이 동네에는 없어서 나가야 되고. 문화시설 같은 거 교육시설 같은 게 부족하죠. ... 애들 데리고 할 만한 데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목동 같은 데는 공원도 중간 중간에 많고 체험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5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13년 거주)

엄마네 집이 그 근처(신정택지개발지구)인데 ... 제가 이쪽 동네에 가봤을 때 단지 안에 공원이 잘 형성되어 있어요. ... 자연을 어디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애랑 같이 유모차 끌고 가면 솔방울 강아지풀 이런 거 다니면서 볼 수 있고, 오리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취업준비중, 아파트 3년 거주)

일산에는 문화센터 같은 무료이면서 2시간정도 놀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큰 아이는 많이 데리고 갔거든요.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돈도 들이지 않고 아이들도 위험하지 않고 좋았어요. 키즈카페만큼 안전하고 오히려 키즈카페보다 더 쾌적하고 좋은데, 여기는 키즈카페처럼 돈을 쓰지 않으면 아이들을 놀릴 수 없으니까 안좋더라고요.

(3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시험준비중, 다세대주택 2년 거주)

하계동 살았을 때 미술관이 있었어요. 공원도 있고 행사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가까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나가서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취업준비중, 아파트 3년 거주)

지금 이사 가려는 데가 좋은 이유는 도서관이랑 박물관이 가까이 있어요. 거기 는 애들 이용할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 애들 폭신평신크 매트도 있고 소파도 있고 그런 게 좋은데. 여기는 그런 데가 없어요.

(4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 단독주택 8년 거주)

표 4-2는 양육자의 특성에 따라서 충분성과 만족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T-검정을 통해 시설에 대한 충족도와 만족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미취학 자녀수로 나타났다. 이는 미취학 자녀가 2명인

<표 4-2> 시설충족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구분		시설충족도				시설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값	p값	평균	표준 편차	t값	p값
전체 평균		2.61	0.829	-	-	2.70	0.831	-	-
미취학 자녀수	1명	2.74	0.796	2.539	0.012*	2.83	0.816	2.730	0.007*
	2명	2.44	0.848			2.51	0.820		
자녀 연령	영아	2.70	0.889	1.182	0.239	2.74	0.880	0.791	0.430
	유아	2.56	0.786			2.68	0.801		
취업 형태	취업	2.59	0.808	-0.495	0.621	2.67	0.830	-0.489	0.625
	미취업	2.65	0.855			2.73	0.836		
소득 구분	500만원 미만	2.66	0.861	1.708	0.089	2.77	0.856	2.427	0.016*
	500만원 이상	2.41	0.644			2.41	0.644		
주택 유형	아파트	2.54	0.812	-1.359	0.176	2.63	0.882	-1.178	0.240
	비아파트	2.70	0.844			2.77	0.768		

\*.p<0.05

경우 각각의 자녀를 위한 시설이 요구되지만 이를 모두 충족시키는 시설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만족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근린 양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지불의사와 능력이 높아 더 양질의 시설을 요구하게 되지만 이러한 기대와 현실과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의 수와 소득을 제외한 그 외의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에 따른 만족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일반 저층주거지보다 양육환경 측면에서 양육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충족도와 만족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지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 지역이 아니고 저층 단독주택으로 개발된 후 소단위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해 개발된 나홀로 아파트 또는 소형 아파트단지가 저층주택과 혼합된 특성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시설환경 부족 인식

부족한 시설에 대해 중복선택이 가능하도록 조사한 결과는 표 4-3와 같으며, 약 60%의 응답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가장 부족한 시설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설환경 충족도와 만족도 분석 결과에서도 문화시설 부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타나 미취학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 뒤로 공원·녹지, 교육시설, 민간놀이시설, 주민 커뮤니티 시설, 도서관 순으로 응답자의 40% 이상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실내놀이터, 체험시설 등 다양한 놀이공간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돈을 써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지역에서 해주는 문화적인 공간이 있으면, 책도 좀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고 엄마들도 애들 보면서 얘기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3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시험준비중, 다세대주택 2년 거주)

대상지에 입지한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신월문화체육센터와 해맞이 도서관이 대상지 중심에서 직선거리로 약 500미터 범위에 위치하며, 오솔길공원은 300미터 범위, 서서울 공원은 약 800미터 범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문화체육시설과 공원녹지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시설로 조사된 것은 아래 면접내용에서 보듯이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고, 여기에 더하여 시설의 편의성과 개인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3> 근린환경 내 부족한 시설

구분		놀이 터	공원 녹지	민간 놀이 시설	주민 커뮤 니티 시설	도서 관	공공 문화 체육 시설	교육 시설	보육 시설	기타
전체 응답자 비율(%)		11.7	49.7	46.2	42.6	41.1	59.9	47.2	8.6	11.2
미취학 자녀수	1명	12.2	52.2	49.6	40.0	40.0	58.3	40.9	6.1	12.2
	2명	11.0	46.3	41.5	46.3	42.7	62.2	56.1	12.2	9.7
자녀 연령	영아	13.0	53.2	59.7	37.7	29.9	51.9	33.8	15.6	13.0
	유아	10.8	47.5	37.5	45.8	48.3	65.0	55.8	4.2	10.0
취업 형태	취업	15.4	52.9	43.3	42.3	45.2	59.6	47.1	8.6	9.6
	미취업	7.5	46.2	49.4	43.0	36.6	60.2	47.3	8.6	12.9
소득 구분	500만원 미만	3.8	50.0	43.2	38.4	46.1	57.7	54.8	10.6	10.6
	500만원 이상	20.4	49.5	49.4	47.3	35.5	62.4	38.7	6.5	11.7
주택 유형	아파트	10.6	46.9	46.9	46.3	33.7	58.1	44.3	10.0	9.4
	비아파트	16.2	62.2	43.2	27.0	73.0	67.6	59.5	2.7	18.9

신월문화체육관이 있긴 한데 여기는 길 건너가기가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직장 다니느라 데려갈 시간도 없고. 유아 프로그램도 거의 없어요.

(2세 자녀, 30대 전일제취업, 아파트 8년 거주)

제대로 된 도서관이 잘 없어요.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한두 번 이용하다가 안 가게 되요. ... 가는 길에 횡단보도도 건너야하고.

(4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 단독주택 8년 거주)

공원이 애들 데리고 가기엔 멀어요. 주차공간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면 걸어가는 길은 힘들고 그렇죠.

(2세/4세 자녀, 30대 시간제취업, 다세대주택 6년 거주)

문화체육센터,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과 공원시설이 자녀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용시간제약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점도 면접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여기는 도서관이 5시까지밖에 안해요. 장난감도서관이 1층에 있고 2층 도서관이 있고 3층 열람실 있는데 애들 데리고 이용하려면 어린이집 갔다 오면 끝나는 거예요.

(3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시험준비중, 다세대주택 2년 거주)

도서관에 데려가면 둘째는 맨날 울고. 가면 편하게 잘 되어있지도 않고. 책만 몇 개 빌려서 오는데 갔다 왔다 하는 과정이 힘든 거에 비해서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크지도 않고.

(4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 단독주택 8년 거주)

부족한 시설에 대한 인식은 자녀 특성, 양육자 특성, 주거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영아의 경우 유아에 비해 민간놀이시설과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유아의 경우 영아에 비해 도서관과 교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활동이 다르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걷지 못하는 영아의 경우 실외 활동이 제한적이므로 아동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실내공간이 필요하

다. 이에 영아 양육자의 경우 키즈카페와 같은 민간놀이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용을 지불하는 민간시설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부족한 시설 기타 의견으로 공공실내놀이터에 대한 요구도 확인되었다.

키즈카페가 별로 없어요. 키즈카페나 문화시설이 있으면 좋겠어요.

(2세 자녀, 30대 전일제취업, 아파트 8년 거주)

여기는 돈을 들여서 키즈카페를 가지 않는 이상은 놀이터 하나 빼놓고는 풀어놓고 놀 수 있는 데가 없어요.

(3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시험준비중, 다세대주택 2년 거주)

놀이터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1.7%이고, 보육시설은 8.6%로 설문  
에 응한 대상지 거주 양육자들에게 크게 부족하다고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놀이터에 대한 인식은 주택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놀이  
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10.6%이지만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16.2%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면접조사 결과 놀이터가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인  
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일부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의 경우 주변에 차  
량이 다녀 안전하지 못하고 시설이 양육자와 아동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대상지 내 보육시설과 놀이터는 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체육시설이나 공원은 멀지 않지만 가기 힘  
든 것으로 나타나 양육자의 활동범위에 따라 이용가능 시설이 달라질 수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3장에서 양육활동범위는 일상적으로 400미터 범위라  
는 것을 고려할 때 양육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400미터 범위  
내에 위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대상지에서도 주민센터와 복합된 작은 도  
서관은 인근 거주 양육자들은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까지의 거리  
가 가깝고 접근성이 좋아야 이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영유아를  
동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은 약 400미터 단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있는 공원이나 문화체육시설은 동네 단위로 위치하기 어려우므



로 영유아를 동반한 시설까지의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시설 내 영유아와 함께 이용 시 불편한 점을 개선한다면 보다 양육친화적인 근린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시설환경 접근성·안전성·편의성 인식

근린양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충족도와 만족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 환경에 대한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으로 나누어 설문하였다(표 4-4). ‘접근성’은 그 시설이 접근하기에 가깝고 용이한 정도를 의미하고, ‘안전성’은 시설이 이용하기에 사고나 범죄로부터 안전한지를 나타내며, ‘편의성’은 시설이 목적에 맞게 공간과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말한다. 전체적으로 접근성이 3.24, 안전성 3.75, 편의성 3.69로 응답하여 보통 수준보

<표 4-4> 시설환경에 대한 접근성·안전성·편의성 인식

구분	이용자 수(명)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시설별 평균
전체 평균	197	3.24	3.75	3.69	3.56
보육시설	165	4.21	4.30	4.15	4.22
놀이터	182	4.21	3.93	3.92	4.02
의료시설	171	3.50	4.02	4.00	3.84
공원, 녹지	190	3.16	3.78	4.04	3.66
도서관	88	3.16	3.91	3.80	3.62
민간놀이시설	146	2.93	3.79	4.05	3.59
상업시설	187	3.59	3.44	3.50	3.51
기타편의시설	90	3.67	3.41	3.38	3.49
주민커뮤니티시설	37	2.73	3.59	3.59	3.30
교육시설	77	2.69	3.60	3.52	3.27
공공문화체육시설	34	2.44	3.62	3.53	3.20
유아학원시설	20	2.55	3.55	2.75	2.95

다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참여자는 제외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참여자만 평가하였기 때문에 시설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충족도와 만족도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별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에 대하여 표 4-4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육시설과 놀이터는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모두 4.0내외의 만족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월4동 대상지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공원이 5개소 지정되었으며, 추가적으로 150세대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마다 놀이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놀이터의 수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인구 비율이 높아 다수의 어린이집이 생겨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개개한 면접내용에서 “대상지가 어린이집이 많아 대기하지 않으며, 선택권도 많다”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설 접근성 인식은 공공문화체육시설 2.44, 유아학원시설 2.55, 교육시설 2.69, 주민커뮤니티시설 2.73, 민간놀이기구시설 2.93으로 나타나 접근성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시설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충족도와 만족도 인식에서도 나타난 부분으로서, 이러한 시설들이 대부분 신월4동의 외부에 위치하고 있어 근린 환경 내 충분하지 못하며, 근린 환경 내 입지된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자녀의 연령과 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같은 거리라도 자녀의 수가 적고 연령이 높은 경우 접근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자녀의 수가 많고 연령이 낮은 경우는 접근하기 어렵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공원에 차 가지고 가요. 여기 가면 큰 공원이니까 좋은데 차로 꼭 이동해야하니까 힘들고 그래요.

(3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시험준비중, 다세대주택 2년 거주)

놀이터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은 만족하는 수준에 가깝게 나타났으나 면접조사를 통해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로 이용하는 놀이터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에 불만족함을 알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와는 달리 주변이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나타나며,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놀이터 시설이 파손되어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터도 안전하지는 않아요. 놀이터 바로 옆에 차가 계속 다니니까 애들 밖으로 나올까봐 계속 불안해요.

(4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 단독주택 8년 거주)

시설들도 많이 파손되요.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오고해서. 큰애들이 시설도 계속 망가뜨리고 바닥도 파이고 그래요.

(4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 단독주택 8년 거주)

시설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은 전반적인 충족성과 만족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이용자에 한해 조사한 결과이므로 미이용자를 포함한 분석 결과인 전반적인 충족성과 만족도의 수준이 보통이하라는 양육자의 인식을 전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조사결과는 시설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충족도와 만족도를 낮게 인식하는 양육자일수록 시설의 이용에 소극적일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양육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환경

심층면접을 통해 신월4동 시설환경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에 대한 양육자들의 인식을 현장맥락과 연결시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근린환경에서 양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양육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요인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1) 접근성 인식 영향 요인

### 넓은 폭의 간선도로

블록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왕복 6차선의 간선도로로 인해 건너편에 시설이 있어도 도로를 건너가는 것이 위험해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의 접근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양육자의 일상적인 활동은 간선도로를 건너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건너편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어도 자녀를 데리고 걸어가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걸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힘들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힘든 경험이 지속되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차로 이동하는 것을 선택하여 도보권 활동 범위는 더욱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원이나 이런 게 가깝지 않아서 힘들죠. 가까이 서서울 공원도 있고 하지만 걷고 즐기면 좋지만 걸어가는 길이 힘들어요.

(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취업준비중, 아파트 3년 거주).

신월 IC 건너편에 마트가 있어요. 예전에는 육교가 있었는데 공사하면서 육교가 없어졌어요. 횡단보도도 없고. 건너기 너무 힘들어요.

(5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11년 거주)

자전거를 타려면 큰 길 건너 시영아파트 안에 자전거 타는 트랙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길 건너기가 위험하죠.

(6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6년 거주)

신월문화체육관이 있긴 한데 여기는 길 건너가기가 너무 위험해요.

(2세 자녀, 30대 전일제취업, 아파트 8년 거주)

## (2) 안전성 인식 영향 요인

### 도로와 인접한 어린이공원

자녀가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활동의 형태

와 활동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양육자가 주로 활동하는 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환경 요인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의 경우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하여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의 경우 차량이 진입하지 않으므로 차량으로 인한 위험이 없어 안심하고 활동 범위가 넓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자녀의 활동이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양육자도 불안감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 놀이터 : 아파트 놀이터

엄마들은 앉아 있고 애들은 놀고, ... 이렇게 놀죠.

(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취업준비중, 아파트 3년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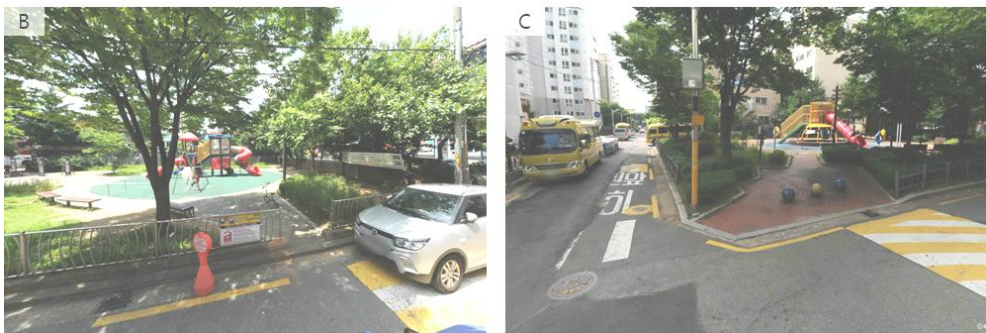
이 놀이터 주변이 키크보드 타기 잘 되어 있거든요. 애들이 키크보드 탈만한 데가 별로 없어서 여기에 자주 가는 편이죠.

(2세/4세 자녀, 30대 시간제취업, 다세대주택 6년 거주)

#### B 놀이터 : 어린이공원

출입구에 막는 게 없어서 애들 수시로 나오니까. 출입구가 차가 많이 다니는 쪽이라서 위험해요. ... 안전한 아이들 전용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게 하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해요. 아이들한테 신경쓰느라. 언제 뛰어나갈지 모르고.

(3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시험준비중, 다세대주택 2년 거주)



<그림 4-1> 안전성 인식과 관련된 시설환경

사진출처 : 다음지도 로드뷰(2018), <http://map.daum.net>

### C 놀이터 : 어린이공원

여기는 더 커서 좋은데 옆에 도로가 있는데 막 나가서 위험하더라고요. 공 같은 것도 도로로 나가고 하면 위험하고. 지금은 좀 커서 괜찮은데 예전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자주 안 가게 되요.

(5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11년 거주)

## (3) 편의성 인식 영향 요인

### 놀이터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

아파트에 거주하는 양육자의 경우 대부분 단지 내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보 접근이 가능한 놀이터가 여러 개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근처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양육자의 경우에도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A 놀이터의 경우 주변에 거주하는 양육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놀이터로 나타났다.

A 놀이터에서 양육자의 활동은 큰 불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놀이시설 주변으로 양육자들이 앉아서 지켜볼 수 있는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B 놀이터의 경우 앉을 수 있는 장소가 있긴 하



<그림 4-2> 편의성 인식과 관련된 시설환경

사진출처 : 연구자 촬영(2018)

지만 놀이터와 떨어져 있어 자녀들이 놀이를 하는 동안 양육자는 계속 그 주변에 서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A 놀이터 : 아파트 놀이터

놀이터도 여기만 그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애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단지 안에 놀이터도 미끄럼 하나밖에 없거든요. 놀이터도 가고 싶어도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타기 힘들죠. 놀이시설이 많이 없는데 이런 걸 충족할만한 데가 많지 않아요.

(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취업준비중, 아파트 3년 거주)

바로 옆에 놀이터가 추워요. 햇빛도 잘 안들고 추우니까 잘 안가고 여기(A 놀이터) 가게 되더라고요.

(2세/4세 자녀, 30대 시간제취업, 다세대주택 6년 거주)

#### B 놀이터 : 어린이공원

프랑스는 놀이터가 가운데 있고 엄마들이 주변을 뱅 둘러싸있어요. 그때는 아이도 없고 하니까 그냥 생소하고 신기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런 환경이면 좋겠다 싶어요. 여기는 애들 보는 데가 너무 멀리 있어요. 미끄럼틀 타는 데서는 엄마들이 다 옆에 서서 있어야 하고.

(3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시험준비중, 다세대주택 2년 거주)

그러나 사례지역 놀이터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이므로 아파트 주민이 아닌 경우 불편함을 겪게 된다. 출입이 막혀 있지는 않아서 주변 양육자들도 같이 이용하지만 공공에서 건립한 놀이터로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개방된 놀이터가 아니라 민간에서 건립한 단지 내 주민을 위한 놀이터이므로 이용 시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 놀이터가 주변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놀이터에 비해 편의성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로 해석된다.

#### A 놀이터 : 아파트 놀이터

놀이터는 여기 잘 가는데 가끔 애들이 너 여기 살아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

더라고요. 놀이터가 아파트 주민을 위해 만들어진 건 맞잖아요. 근데 저희는 빌라에 살잖아요. 애들은 그냥 난 여기 안살아 하고 애들은 괜찮았는데 그런 게 몇 번 있어서 좀 마음이 불편했죠.

(2세/4세 자녀, 30대 시간제취업, 다세대주택 6년 거주)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놀이터에서 이웃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주로 민간 놀이시설이나 집에서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놀이시설은 안전하고 편리하지만 경비를 지출하여 이용해야 하므로 놀이터처럼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이들도 보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전 살던 곳에는 문화센터 같은 곳인데 무료이면서 2시간정도 놀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큰 아이 어릴 때 많이 데리고 갔거든요.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돈도 들이지 않고 아이들도 위험하지 않고 좋았어요. 키즈카페만큼 안전하고 오히려 키즈카페보다 더 쾌적하고 좋은데, 여기는 키즈카페처럼 돈을 쓰지 않으면 아이들을 놀릴 수 없으니까 안좋더라고요.

(3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시험준비중, 다세대주택 2년 거주)

그 외 이웃이 만나는 실내 공간으로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이 있는데 자녀들이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기에 적합하지 않아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식당에서도 자주 만나고요. 이 동네는 놀이방이 있는 식당은 거의 없어요. 애들이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이나 책 같은걸 준비해가요. 빨리 마치고 집으로 가서 놀죠. 정 안되면 스마트폰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취업준비중, 아파트 3년 거주)

식당에 가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애들은 시끄럽게 떠드는데 계속 조용히 시켜야 해요. 먹고 바로 와야 되고. 큰 가게 같은 데는 놀이방이 따로 있지만 여기는 그런 데가 별로 없어서.

(4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 단독주택 8년 거주)



시설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세분화하여 설문한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에 대해서는 접근성에 대해서는 보통이하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하였고, 안전성과 편의성에 대해서는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평가를 하였다. 면접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근린환경 요인을 확인한 결과 시설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못한 경우 양육자의 활동은 해당 시설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넓은 간선도로는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시설 안전성과 편의성은 대체로 보통을 상회하지만 양육자가 주로 이용하는 놀이터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제2절 보행환경에 대한 양육자 인식

### 1. 보행환경 만족도 인식

#### (1)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보행환경 만족도는 2.95로 보통(3.0)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97명의 응답자 가운데 129명(65.5%)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보행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37명으로서 18.8%를 차지한다. 이 중 33명(16.8%)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4명(2.0%)은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31명(15.7%)은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만족스럽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없었다.

보행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특성, 양육자 특성, 주거 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미취학 자녀수의 t값은 <표 4-5> 보행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전체 평균		2.95	0.637	-	-
미취학 자녀수	1명	3.08	0.580	3.460	0.001*
	2명	2.77	0.672		
자녀연령	영아	2.96	0.637	0.208	0.836
	유아	2.94	0.639		
취업형태	취업	2.94	0.636	-0.161	0.872
	미취업	2.96	0.641		
소득구분	500만원미만	2.98	0.624	1.182	0.239
	500만원이상	2.84	0.688		
주택유형	아파트	2.93	0.612	-0.383	0.702
	비아파트	2.97	0.667		

\*.p<0.05

3.460,  $p$ 값은 0.001로 나타나 미취학 자녀의 수에 따라 보행환경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수가 2명인 경우는 만족도가 2.77로 1명인 경우의 만족도 3.08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이는 자녀를 둘 이상 데리고 걸어 다닐 때 보행환경이 더 불만족스럽게 인식됨을 알 수 있다. 다음 면접내용은 두 자녀를 데리고 이동하는 양육자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아무래도 큰애는 손을 계속 잡고 다니지 않으니까 애들 데리고 걸어 다닐 때 위험할 수 있어요.

(2세/5세 자녀, 30대 시간제취업, 아파트 7년 거주)

그 외 자녀연령, 취업형태, 소득구분, 주택유형과 같은 다른 특성들은 보행환경 만족도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보행환경에 대한 불만족 인식

보행환경 만족도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장 빈도수가 높은 불만족 이유는 도로변에 주차된 차가 많다는 것이며, 이 요인은 모든 특성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다는 점, 도로에 다니는 차가 많다는 점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주거지 내부 도로에 보도가 없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로 인해 골목길이 주차장이 된 일반적인 저층 내지 혼합 주거지의 특성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자녀 연령에 따라서 살펴보면 유아 양육자는 영아 양육자에 비해 차량으로 인한 위험에 더 민감하지만 영아 양육자는 유아 양육자에 비해 보도의 질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보행편의성에서 턱이 있거나 울퉁불퉁한 경우 유모차 통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취학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 비해 2명인 경우가 불법주차 많음, 보차구

분 없음, 차가 많음 항목의 불만족 빈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 미취학 자녀가 2명인 경우 보행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 유형에 따라서는 2개동 아파트의 경우 턱 계단에 대한 불만족이 낮는데 비해 나머지 유형에서는 불만족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6> 보행환경 불만족 요인

구분		보차 구분 없음	차가 많음	불법 주차 많음	보도 좁음	보도 울퉁 불퉁	턱 계단 많음	사람 거의 없음	밤에 어두 움	방범 장치 부족	기타
전체 응답자 비율(%)		65.1	62.9	80.6	24.2	27.4	23.7	1.1	5.9	10.2	2.2
미취학 자녀수	1명	58.1	58.1	78.1	23.8	30.5	23.8	1.0	3.8	11.4	1.0
	2명	74.1	69.1	84.0	24.7	23.5	23.5	1.2	8.6	8.6	3.7
자녀 연령	영아	56.8	58.1	68.9	29.7	24.3	29.7	1.4	5.4	9.5	2.7
	유아	70.5	66.1	88.4	20.5	29.5	19.6	0.9	6.3	10.7	1.8
취업 형태	취업	70.1	63.9	86.6	21.6	27.8	19.6	2.1	5.2	13.4	1.0
	미취업	59.6	61.8	74.2	27.0	27.0	28.1	0.0	6.7	6.7	3.4
소득 구분	500만원 미만	63.2	62.5	78.9	25.0	25.0	23.7	0.7	6.6	9.2	2.6
	500만원 이상	73.5	64.7	88.2	20.6	38.2	23.5	2.9	2.9	14.7	0.0
주택 유형	아파트	67.7	62.5	82.3	27.1	24.0	21.9	2.1	6.3	14.6	1.0
	비아파트	62.2	63.3	78.9	21.1	31.1	25.6	0.0	5.6	5.6	3.3

## 2. 보행환경 접근성·안전성·편의성 인식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안전성, 편의성, 접근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안전성은 보행환경이 얼마나 차량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지(차량안전성)와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인식하는지(범죄안전성)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설문결과 차량안전성에 대해서는 보통이하의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2.86)으로 인식하고 있고, 범죄 안전성은 보통정도(3.28)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활동 시 범죄 보다는 차량이 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그 수준도 보통이하의 수준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면접조사는 양육자들의 보행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준다. 보행로에 차량과 함께 혼재되어 다니는 경우가 많아 차량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가 골목골목이 많고 차가 많아요. 그래서 킥보드 탈 때 걱정되요. 애는 썰가는데 차가 갑자기 나올 수 있으니까. 차량 사람이랑 같이 다니니까 그런 경계 없어서 위험하죠.

(2세/4세 자녀, 30대 시간제취업, 다세대주택 6년 거주)

주차도 많고. 차도 많이 다니고. 차가 양쪽으로 다니고 하니까 위험해요.

(5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11년 거주)

차량에 대한 불안감은 블록을 둘러싼 간선도로를 건너갈 때에도 크게 나타난다. 간선도로 건너편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싶지만 도로를 건너는 것이

<표 4-7> 보행환경에 대한 접근성·편의성·안전성 인식

구분		차량 안전성	범죄 안전성	보도 편의성	대중교통 접근성
전체 평균		2.86	3.28	2.78	2.42
미취학 자녀수	1명	3.02	3.34	2.87	2.48
	2명	2.63	3.21	2.66	2.34
자녀연령	영아	2.92	3.35	2.73	2.34
	유아	2.82	3.24	2.82	2.48
취업형태	취업	2.83	3.22	2.80	2.47
	미취업	2.89	3.35	2.76	2.37
소득구분	500만원미만	2.89	3.33	2.82	2.41
	500만원이상	2.73	3.11	2.62	2.49
주택유형	아파트	2.90	3.27	2.76	2.37
	비아파트	2.81	3.30	2.75	2.48

위험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시설을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썩썩카 같은 거 탈 데가 없어요. 아파트 놀이터에서만 타는 거 같아요. ... 미취학 애들은 운동할만한 데가 없어요. 오솔길공원은 경사가 있어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타려면 큰 길 건너 시영아파트 안에 자전거 타는 트랙까지 가야 되요. 그런데 길 건너기가 위험하죠.

(6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6년 거주)

차량으로 인한 불안감은 미취학 자녀수가 1명인 경우보다 2명인 경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행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도가 2명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난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미취학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손을 잡지 않고 걸어 다니는 비율이 높으며 미취학 자녀 두 명을 함께 데리고 다닐 때 통제하기가 어려워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원에 주말에 남편이랑 갈 때도 있고 할머니랑 갈 때도 있는데, 둘을 데리고 혼자 다니는 건 불가능하죠. 혼자 둘을 데리고 다니는 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2세/4세 자녀, 30대 시간제취업, 다세대주택 6년 거주)

범죄에 대한 안전성은 3.28로 전반적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와 자녀 특성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주택 유형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미취학 자녀의 경우 대부분 양육자가 항상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안전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가 혼자 다니게 될 경우에 대해 불안해하는 의견이 있어 범죄에 대한 안전성은 자녀의 독립활동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이랑 같이 매일 다니고 밤에 잘 안다니니까 별로 안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길이 외진 곳도 사실 많기는 해요.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밤에는 어둡고 그런 건 있어요.

(0세/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 아파트 20년 거주)

여기 동네가 다 골목들이 크지 않은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안다녀요. 혼자 다니

기에는 좀 위험해 보이는 게 있어요. 애들만 혼자 보내기에는 골목 자체가 환하지도 않고 좀 불안해요.

(5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11년 거주)

보행편의성에 대한 인식은 2.78로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보행환경 불만족에서 불법주차 된 차량으로 인한 불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면접조사에서도 대부분 주차된 차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양육자 모두의 문제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다 도로에 대요. 그러니까 차들이 다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주차가 많아서 사람이라도 섞여 다니니까 힘든 것 같아요. 원래는 일방인데 일방으로 안다니고 같이 다니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대가 지나가면 차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야 되고 이런 게 힘들죠.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다녀요. 이 길도. 차 지나갈 때까지 주차되어 있는 차 뒤에 가서 기다렸다가요.

(2세/4세 자녀, 30대 시간제취업, 다세대주택 6년 거주)

보행편의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 특성에 따라 큰 차이는 없으나 자녀 특성에 따라 유아 양육자에 비해 영아 양육자의 인식이 좀 더 낮게 나타나며, 미취학 자녀가 2명인 경우 1명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이는 영아 양육자가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는 비율이 높아 보도시설의 연속성이나 불편한 부분에 민감한 것으로 판단되며, 미취학 자녀를 두 명 데리고 다닐 때에는 유모차 보행과 독립 보행 두 경우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보행편의성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작은 애가 유모차 타고 큰 애 데려다 줄 때 턱이 있어서 지나가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날씨 좋을 때는 유모차 타지 말고 걸어가자고 했어요. 턱 때문에 힘들니까.

(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취업준비중, 아파트 3년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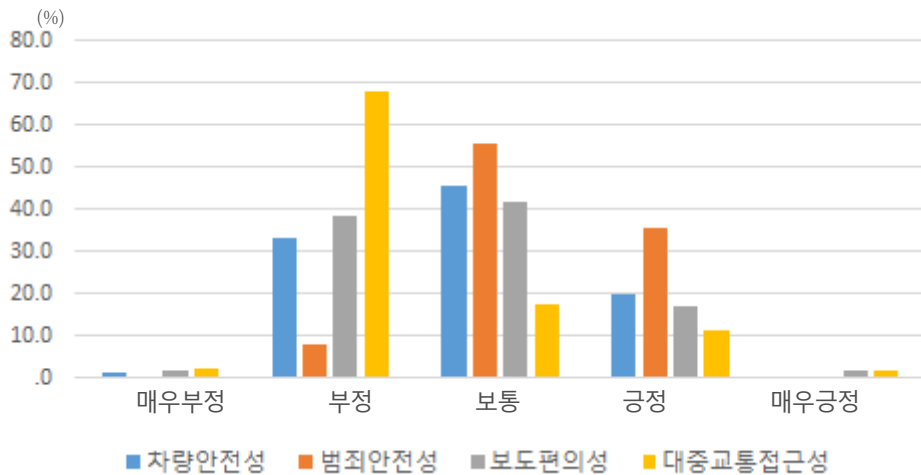
유모차 끌고 다니면 인도가 턱이 있다 보니까 인도로 잘 안다니게 되더라고요. 요기 아파트 앞에만 있는데 인도가 있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잘 안다니게 되요. 저도 차도로 다니거든요.

(2세/5세 자녀, 30대 시간제취업, 아파트 7년 거주)

여기 신월문화체육센터에 작은 애 어린이집 다니기 전에 잠깐 (작은 애만) 데리고 다녔어요. 차 운전을 못해서 유모차를 끌고 갔죠. ... 애랑 같이 다녀도 보여줄 것도 별로 없고. 여기 가려면 경사도 있고 해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취업준비중, 아파트 3년 거주)

대중교통에 대한 보행 접근성은 2.42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자녀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영아 양육자가 유아 양육자에 비해 조금 낮게 나타나며 미취학 자녀수가 2명인 경우 낮게 나타난다. 이는 유모차로 대중교통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미취학 자녀가 2명인 경우 모두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보행환경에 대한 인식 분포



둘 다 데리고 나가면 무조건 택시로 이동해요.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불편해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0세/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 아파트 20년 거주)

둘째는 어린이집 보내고 큰 애만 데리고 다닐 때는 버스타고 지하철 타고 다녀요. 둘 데리고 다닐 때는 차를 가지고 다녀요.

(3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시험준비중, 다세대주택 2년 거주)

차량안전성, 범죄안전성, 보행편의성, 대중교통접근성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별 응답 비율을 보면, 신월4동 양육자의 보행환경에 대한 인식은 내용별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차량안전성의 경우, 보통과 불만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범죄안전성의 경우에는 보통과 만족이 다수를 차지한다. 보행편의성을 경우는 보통과 불만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다수를 이루고, 대중교통접근성은 불만족스럽게 인식하는 응답자가 다수이다. 어떤 측면이든지 매우 불만족스럽다거나 매우 만족스럽다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수의 응답자만이 해당되었다.

### 3. 양육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보행환경

심층면접을 통해 신월4동 보행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에 대한 여성 양육자들의 인식을 현장맥락과 연결시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편의성의 측면에서 양육자의 이동활동을 어렵게 하는 구체적인 환경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 (1) 안전성 인식 영향 요인

##### 넓은 폭의 간선도로 횡단

신월4동 경계부 블록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왕복 6차선의 간선도로는 보행안전성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선도로의 건너편에 시

설이 있어도 도로를 건너가는 것이 위험해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차량으로 인한 불안감은 양육활동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행안전성과 시설접근성은 관련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A, B지점

공원 갈 때 걸어가긴 하는데 신월IC 근처에서 차량 만나는 곳이 위험해요. 자전거 타고 가면 자전거 내려서 끌고 가야 해요. 근데 차가 빨리 달리고 길이 너무 위험하니까 자전거 거의 못가지고 다녀요.

(6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6년 거주)

서서울 공원이 걸어가기에는 위험해요. 우리는 애들도 어리고 유모차 끌고 가기는 힘들어서 안가요.

(2세 자녀, 30대 전일제취업, 아파트 8년 거주)



<그림 4-4> 안전성 인식과 관련된 보행환경

사진출처 : A, B, D - 다음지도 로드뷰(2018), <http://map.daum.net>, C - 연구자 촬영(2018)

### 신호등이 없는 집산도로 횡단

차로의 폭이 넓지 않더라도 신호가 없어 차량이 우선되는 도로인 경우 위험하다고 인식한다. 골목길에서 나와서 집산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에게는 차량의 체감속도가 빠른 것으로 느껴져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불법주차가 되어 있거나 물건이 쌓여 있어 차가 다니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불안감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에 자주 다니는 길의 경우 위험하다고 인식하더라도 조심하며 다닐 수밖에 없으므로 자녀와 항상 같이 다니고 손을 꼭 잡고 다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육자에게는 양육스트레스가 되고 아동에게는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미취학 자녀가 2명인 경우 상대적으로 큰 아이는 손을 잡지 않고 다니게 되므로 양육자의 불안감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로에 신호가 없는 경우는 자녀를 데리고 다닐 때도 불안감이 크지만 자녀가 혼자 다니는 경우 더 커지는 것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환경에 대한 불안감은 자녀가 취학연령이 되어도 혼자 다니지 못하게 하여 자녀의 독립보행을 지연시키고 활동범위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C지점

여기가 위험해요. 여기는 시장길이라 진짜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호가 없어서 위험해요.

(6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6년 거주)

여기 시장길이 엄청 위험해요. 여기 건너갈 때 신호등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 상가가 많아서 물건 때문에 정차된 차들이 많아요. 건널 때 정차된 차들 때문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기 힘들어요. 여기도 차가 많아서 위험해요.

(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취업준비중, 아파트 3년 거주)

애들 데리고 시장갈 때 위험하니까 꼭 손을 잡고 가야되잖아. 차들이 많고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 잘 안보여서 위험해요.

(6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6년 거주)

시장길은 간선도로에서 차가 우회전해서 들어오면서 차가 계속 빨리 달려요.  
여기는 위험해서 큰 애(초등학생)도 혼자 보내지 않아요.

(2세 자녀, 30대 전일제취업, 아파트 8년 거주)

학교를 보낸다고 하면 복개도로에 신호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위험  
해요. 여기는 한 3학년이 되어도 데리고 가야할 것 같아요. 학교가 가깝지만 위  
험해요. 인도가 있을 공간이 없지만 그래도 차량 구분이 좀 되면 좋겠는데. 주  
차장 반 도로 반이라서 ... 안전한 길이 있으면 좋겠어요.

(3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시험준비중, 다세대주택 2년 거주)

### 블록 내부 도로 교차지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격자형 주거지역은 블록 내부에 교차하  
는 지점이 많으며, 이러한 교차점이 양육자에게는 안전하지 못한 장소로 인식  
되고 있다. 차량은 아동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안감이 양육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독립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연령대의 자녀가 양육자와  
떨어져서 걸어가는 경우 더 위험하게 인식하게 되며, 이는 양육자에게 큰 스트  
레스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먼저 가는 경우 위험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멈추고 함께 이동해야하므로 보행 시 계속 아동의 행동을 살피고 제어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보행활동은 양육자에게 일상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보도가 확보되지 못하고 연속적이지 못한 점도 위험요인으로 인식된다. 보  
도가 있는 경우는 안전하게 아이가 독립적으로 다닐 수 있지만 보도가 끊어지  
는 지역은 항상 위험하고 불안한 지점이 된다.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위험한 것으로 인지된다. 차와 사람이 함께 교차하는 경  
우, 보도가 연결되지 않아 끊어진 지역에 차가 많이 다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차가 많으면서 좁은 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 불편하고 위험하게 인  
식하고 있다. 이 지역의 경우 아파트 주변으로는 보도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외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4미터 폭의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골목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골목에 주차가 많고 차량 통행량이 많으면 걸어가기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차가 제일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다 차가 다니니까. 맨날 소리 질러요. 차 조심! 차조심! 킥보드 탈 때도 그렇고. 킥보드 자전거 많이 타야하는데 그런 거 못해요. 차 때문에.

(3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시험준비중, 다세대주택 2년 거주)

차가 위험해서 계속 손 꼭 잡고 다녀야 해요.

(4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 단독주택 8년 거주)

여기가 골목골목이 많고 차가 많아요. 그래서 킥보드 탈 때 걱정돼요. 애는 썩 가는데 차가 갑자기 나올 수 있으니까. 보도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여기 경계가 별로 없어요. 차량 사람이랑 같이 다니니까 그런 경계가 없어서 위험하죠.

(2세/4세 자녀, 30대 시간제취업, 다세대주택 6년 거주)

도로가 좁은데다가 인도도 많이 없고, 여기서는 인도가 끊겨요. 인도가 없으면 차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차가 양쪽으로 다니니까 애들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가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요. “애들아, 애들아. 잠깐 기다려.”

(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취업준비중, 아파트 3년 거주)

차가 천천히 온다고 하는데 차가 안보이니까 위험하죠. 골목 양쪽에서 다 차가 나오는데 애들은 안보고 그냥 가니까 불안해요.

(2세/4세 자녀, 30대 시간제취업, 다세대주택 6년 거주)

## (2) 편의성 인식 영향 요인

###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공간 부족

블록 내부 아파트단지 주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4미터 내외의 폭을 가진 골목길로 이루어져 있다. 4미터이하의 폭의 골목에 불법주차를 하고 차량이 지나가는 경우 불법주차로 인해 충분한 보행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보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A 지점 뿐 아니라 블록 내 전반에 걸친 문제로 나타

난다. 좁은 길에서의 불법주차는 보행공간을 침범하여 차량이 지나가는 경우 유모차를 동반하거나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는 보행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며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며 연속적인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보행로가 확보된 지역에도 차량이 많이 몰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경우 불법주차 된 차량들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은 블록 내부 전반에서 나타나므로 양육자의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

#### A 지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다 도로에 대요. 그러니까 차들이 다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주차가 많아서 사람이라도 섞여 다니니까 힘든 것 같아요. 원래는 일방인데 일방으로 안다니고 같이 다니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대가 지나가면 차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되고 이런 게 힘들죠.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다녀요. 이 길도. 차 지나갈 때까지



<그림 4-5> 편의성 인식과 관련된 보행환경

사진출처 : A, D- 연구자 촬영(2018), B, C - 다음지도 로드뷰(2018), <http://map.daum.net>

주차되어 있는 차 뒤에 가서 기다렸다가요.

(2세/4세 자녀, 30대 시간제취업, 다세대주택 6년 거주)

#### B 지점

애들이 많아서 차들이 거의 서행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주차문제가 장난 아니에요. 유모차를 끌고 다닐 때는 주차된 차 때문에 비켜주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하원시간에 특히 어린이집 차량, 학원 차량, 택배 차량이 많아서 다니기 좀 힘들어요.

(6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6년 거주)

### 보도의 비연속성 및 미설치

블록 내부 4미터 골목은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2개동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단지 주변으로 모두 보도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만 설치되어 있어 보도가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가 비연속적으로 설치된 경우 보행자들은 보도를 거의 이용하지 않아 보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보도가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 차량 통행이 많은 경우는 보행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A 지점

아파트 앞에 인도가 있는데 꼭 사람들이 인도로 안가고 차도로 다녀요.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닐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꼭 차도로 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유모차 끌고 다니면 인도가 턱이 있다 보니까 인도로 잘 안다니게 되더라고요. 요기 아파트 앞에만 있는데 인도가 있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잘 안다니게 되요. 저도 차도로 다니거든요. 차도가 더 빠른 느낌.

(2세/5세 자녀, 30대 시간제취업, 아파트 7년 거주)

#### C 지점

큰애 아침에 학교 데려다 줄 때는 작은애도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작은 애 유모차 태워서 같이 다녔는데 여기는 인도가 끊어져 있는데 차가 많아서 엄청 북

잡해요. 차는 어디든 많겠죠. 그런데 복잡한 도로에서는 인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학교 바로 옆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인도가 끊어져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죠.

(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취업준비중, 아파트 3년 거주)

인도로 웬만하면 다니고 건널 때도 횡단보도에서 손을 들고 건너고, 다시 건너면 인도로 올라오고 하라고 하죠. 그런데 킥보드나 자전거 타고 다니면 인도가 너무 좁아요. 그렇다고 도로로 갈 수도 없어요. 도로는 차가 이중으로 다니니까.

(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취업준비중, 아파트 3년 거주)

도로의 폭이 넓더라도 차량과 보행 통행량이 많은 보차혼용도로의 경우 마주 오는 차들을 계속 피해 다녀야 하므로 양육자가 자녀를 데리고 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의 불편은 불안과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어 자녀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게 된다.

#### D 지점

이 길이 식당가가 많아요. 차들도 많고. 보행로가 없어요. 그냥 도로로 다니는 거니까 그게 위험하죠. 차가 계속 오니까 계속 손잡고 뛰지 마 천천히 가 그래야 하니까. 돌아가면 차길이라 위험해요. 이 길이 제일 빠르고 좋은데 위험해요. 초등학생 둘째도 손을 꼭 잡고 다녀요. 주차도 많고. 차도 많이 다니고. 차가 양쪽으로 다니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아직은 손을 잡는 게 안전하죠.

(5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11년 거주)



### 제3절 양육환경인식 및 양육활동과 양육스트레스 영향 관계

본 절에서는 위와 같은 근린환경에 대한 인식에 따라 양육활동이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본다. 사람들이 근린환경을 어떻게 인식(perception)하는가에 따라 보행과 같은 활동(activity)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즉, 물리적으로 동일한 거리라도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멀게, 어떤 사람을 가깝게 인식하며, 이러한 인식에 따라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한 교통수단 선택이 달라지는데, 가깝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보행활동을 선택할 개연성이 멀다고 인식하는 사람보다 높다는 것이다(Moudon, et. al., 2006). 같은 논리로 양육환경의 관점에서 볼 때, 동네의 시설환경과 보행환경에 더 만족하는 양육자 일수록 집 밖으로 나가는 양육활동의 빈도와 시간이 더 클 개연성을 상정할 수 있다. 이는 동네의 물리적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 양육자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받고,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양육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육자의 외부 양육활동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확인해본다.

#### 1. 근린환경만족도와 양육활동 관계

양육자의 근린환경 만족도와 양육활동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상관관계분석에서 나타났다. 먼저 시설환경 만족도 및 보행환경 만족도 모두 양육활동의 빈도·시간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8). 이는 시설환경이나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해서 집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빈도와 시간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보행환경의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에 대한 양육자의 만족도와 양육활동 간의 상관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9).

<표 4-8> 양육활동과 근린환경인식 상관관계

		활동빈도	활동시간	보행만족도	시설만족도
활동빈도	Pearson 상관계수	1	0.752**	-0.040	-0.087
	유의확률 (양쪽)	-	0.000	0.576	0.222
	N	197	197	197	197
활동시간	Pearson 상관계수	0.752**	1	0.025	-0.060
	유의확률 (양쪽)	0.000	-	0.727	0.406
	N	197	197	197	197
보행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0.040	0.025	1	0.328**
	유의확률 (양쪽)	0.576	0.727	-	0.000
	N	197	197	197	197
시설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0.087	-0.060	0.328**	1
	유의확률 (양쪽)	0.222	0.406	0.000	-
	N	197	197	197	197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 4-9> 양육활동과 보행환경인식 상관관계

		활동 빈도	활동 시간	차량 안전성	범죄 안전성	보도 편의성	대중교통 접근성
활동 빈도	Pearson 상관계수	1	0.752**	-0.190**	-0.155*	-0.020	-0.009
	유의확률 (양쪽)	-	0.000	0.007	0.029	0.783	0.902
	N	197	197	197	197	197	197
활동 시간	Pearson 상관계수	0.752**	1	-0.104	-0.139	-0.032	-0.031
	유의확률 (양쪽)	0.000	-	0.147	0.052	0.654	0.668
	N	197	197	197	197	197	197
차량 안전성	Pearson 상관계수	-0.190**	-0.104	1	0.472**	0.526**	0.311**
	유의확률 (양쪽)	0.007	0.147	-	0.000	0.000	0.000
	N	197	197	197	197	197	197
범죄 안전성	Pearson 상관계수	-0.155*	-0.139	0.472**	1	0.368**	0.272**
	유의확률 (양쪽)	0.029	0.052	0.000	-	0.000	0.000
	N	197	197	197	197	197	197
보도 편의성	Pearson 상관계수	-0.020	-0.032	0.526**	0.368**	1	0.605**
	유의확률 (양쪽)	0.783	0.654	0.000	0.000	-	0.000
	N	197	197	197	197	197	197
대중교통 접근성	Pearson 상관계수	-0.009	-0.031	0.311**	0.272**	0.605**	1
	유의확률 (양쪽)	0.902	0.668	0.000	0.000	0.000	-
	N	197	197	197	197	197	197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이처럼 시설 및 보행환경의 만족도와 양육활동의 빈도·시간이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양육자의 일상적 활동은 대부분 선택적 활동이 아닌 필수적 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집 밖으로 나가는 양육활동이 주로 어린이집 등하원, 시장이나 병원 시설 이용, 교육시설 등하원, 자녀 놀이와 같은 활동이기 때문이다. 면접조사에서도 보행활동이 목적보행인 경우 환경에 따른 인식과 관계가 없으며, 여가보행인 경우만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Sugiyama et al., 2008; 이경환·안전혁, 2008).

그러나 시설유형별로 상관성을 살펴보면, 보육시설과 교육시설과 같이 등하원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시설을 제외하고 놀이여가시설, 공공시설, 상업편의시설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4-11, 4-12). 놀이여가시설은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활동시간이 길어지

<표 4-10> 놀이여가시설 양육활동과 양육환경인식 상관관계

		놀이여가시설 활동빈도	놀이여가시설 활동시간	놀이여가시설 접근성	놀이여가시설 편의성	놀이여가시설 안전성
놀이여가 시설 활동빈도	Pearson상관계수	1	0.488**	0.537**	0.555**	0.494**
	유의확률 (양쪽)	-	0.000	0.000	0.000	0.000
	N	197	197	197	197	197
놀이여가 시설 활동시간	Pearson상관계수	0.488**	1	0.602**	0.689**	0.745**
	유의확률 (양쪽)	0.000	-	0.000	0.000	0.000
	N	197	197	197	197	197
놀이여가 시설 접근성	Pearson상관계수	0.537**	0.602**	1	0.820**	0.766**
	유의확률 (양쪽)	0.000	0.000	-	0.000	0.000
	N	197	197	197	197	197
놀이여가 시설 편의성	Pearson상관계수	0.555**	0.689**	0.820**	1	0.887**
	유의확률 (양쪽)	0.000	.000	0.000	-	0.000
	N	197	197	197	197	197
놀이여가 시설 안전성	Pearson상관계수	0.494**	0.745**	0.766**	0.887**	1
	유의확률 (양쪽)	0.000	0.000	0.000	0.000	-
	N	197	197	197	197	197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업편의시설은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이 높을수록 활동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의 경우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이 활동빈도와 시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시설은 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양육활동(방문빈도 및 체류시간)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면접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주민센터 내 도서관의 경우 블록 내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으며, 내부 시설도 자녀를 동반하여 이용하기 안전하고 편리하여 자주 방문하는 장소이다.

신월4동 주민센터에 도서관이 있어요. 여기 좋아요. 여름엔 시원하고. 초등학생들은 혼자 걸어서 가기도 좋아요.

(2세 자녀, 30대 전일제취업, 아파트 8년 거주)

책 빌리러도 가고 음악도 듣고 잘되어 있거든요. 큰애 방학이면 둘째가 방학이 아닐 때 혼자 데리고 가요.

(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취업준비중, 아파트 3년 거주)

<표 4-11> 상업편의시설 양육활동과 양육환경인식 상관관계

		상업편의시설 활동빈도	상업편의시설 활동시간	상업편의시설 접근성	상업편의시설 편의성	상업편의시설 안전성
상업편의 시설 활동빈도	Pearson상관계수	1	0.215**	0.650**	0.648**	0.677**
	유의확률 (양쪽)	-	0.002	0.000	0.000	0.000
	N	197	197	197	197	197
상업편의 시설 활동시간	Pearson상관계수	0.215**	1	0.426**	0.437**	0.375**
	유의확률 (양쪽)	0.002	-	0.000	0.000	0.000
	N	197	197	197	197	197
상업편의 시설 접근성	Pearson상관계수	0.650**	0.426**	1	0.789**	0.767**
	유의확률 (양쪽)	0.000	0.000	-	0.000	0.000
	N	197	197	197	197	197
상업편의 시설 편의성	Pearson상관계수	0.648**	0.437**	0.789**	1	0.939**
	유의확률 (양쪽)	0.000	0.000	0.000	-	0.000
	N	197	197	197	197	197
상업편의 시설 안전성	Pearson상관계수	0.677**	0.375**	0.767**	0.939**	1
	유의확률 (양쪽)	0.000	0.000	0.000	0.000	-
	N	197	197	197	197	197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주민센터도 일주일에 두 번씩 가요. 둘째는 책나래 프로그램 하고. 막내는 아직 할 나이가 안 되서 도서관에 있어요. 도서관은 잘 되어 있어서 편하고 좋아요. 잘 되어 있어요.

(5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11년 거주)

반대로 주민센터보다 규모가 큰 구립도서관의 경우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여 이용빈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에 데려가면 둘째는 맨날 울고. 가는 길에 횡단보도도 건너야하고. 가면 편하게 잘 되어있지도 않고. 책만 몇 개 빌려서 오는데 갔다 왔다 하는 과정이 힘든 거에 비해서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크지도 않고.

(4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 단독주택 8년 거주)

<표 4-12> 공공시설 양육활동과 양육환경인식 상관관계

		공공시설 활동빈도	공공시설 활동시간	공공시설 접근성	공공시설 편의성	공공시설 안전성
공공시설 활동빈도	Pearson상관계수	1	0.887**	0.842**	0.900**	0.899**
	유의확률 (양쪽)	-	0.000	0.000	0.000	0.000
	N	197	197	197	197	197
공공시설 활동시간	Pearson상관계수	0.887**	1	0.897**	0.949**	0.907**
	유의확률 (양쪽)	0.000	-	0.000	0.000	0.000
	N	197	197	197	197	197
공공시설 접근성	Pearson상관계수	0.842**	0.897**	1	0.942**	0.897**
	유의확률 (양쪽)	0.000	0.000	-	0.000	0.000
	N	197	197	197	197	197
공공시설 편의성	Pearson상관계수	0.900**	0.949**	0.942**	1	0.958**
	유의확률 (양쪽)	0.000	0.000	0.000	-	0.000
	N	197	197	197	197	197
공공시설 안전성	Pearson상관계수	0.899**	0.907**	0.897**	0.958**	1
	유의확률 (양쪽)	0.000	0.000	0.000	0.000	-
	N	197	197	197	197	197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2. 양육스트레스 영향 요인 추정

### (1) 물리적 환경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특성

물리적 근린환경에서 양육자가 활동하면서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받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측정 항목은 근린의 물리적 환경으로 인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원하는 만큼 활동하지 못해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측정하였으며, 외부활동 제약에 따른 부담감, 고립감, 자책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자녀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보통인 3점 아래로 나타났다.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는 것은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다’는 2.96, ‘원하는 만큼 자주 밖에 나가지 못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2.85, ‘원하는 만큼 자주 밖에 나가지 못해 고립감이 든다’는 2.56으로 평균적으로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리커트 척도별 응답자수의 분포를 보면 일부 그룹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척도를 선택한 응답자 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녀를 동반한 외출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양육자는 197명의 응

<표 4-13> 물리적 환경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특성

구분		5점 리커트 척도					총계	평균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담감	비율	3.6	31.5	32.0	31.5	1.5	100.0	2.96
	응답수	7.0	62.0	63.0	62.0	3.0	197.0	
고립감	비율	6.6	43.7	36.5	13.2	0.0	100.0	2.56
	응답수	13.0	86.0	72.0	26.0	0.0	197.0	
자책감	비율	8.6	31.0	28.9	29.9	1.5	100.0	2.85
	응답수	17.0	61.0	57.0	59.0	3.0	197.0	

답자 중 33%에 달하는 65명이다. 자주 나가지 못해 고립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26명으로서 전체 응답자의 13%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주 나가지 못해 아이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응답자는 62명으로 31.4%에 이르며, 이 가운데 3명은 매우 미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월4동 양육자의 일부는 집 밖으로의 외출에 부담을 느끼고, 이에 따라 자녀에게 미안한 자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2)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추정

외출제약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자의 일상적인 활동 시 나타나는 스트레스이므로 양육활동과 관련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보행환경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오성훈 외, 2015) 물리적 근린환경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활동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양육스트레스(3개 평균값 2.79)를 종속변수로 두고 양육활동을 설명변수로 두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양육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미취학 자녀수, 자녀 연령, 취업형태, 주택유형, 소득수준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설정된 변수는 표 4-14와 같이 설정되었으며, 회

<표 4-14>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활동 요인 변수 설정

변수 구성			변수 설명	
종속변수	양육스트레스		부담감, 고립감, 자책감 합산 평균 값	
설명변수	양육활동	활동빈도	시설별 활동빈도 합산 평균 값	
		활동시간	시설별 활동시간 합산 평균 값	
통제변수	미취학 자녀수		0 = 자녀수 1명	1 = 자녀수 2명
	자녀 연령		0 = 영아	1 = 유아
	취업 형태		0 = 취업	1 = 미취업
	소득 구분		0 = 500만원미만	1 = 500만원이상
	주택 형태		0 = 아파트	1 = 비아파트

귀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y(\text{종속변수}) = a(\text{상수}) + B_1 \times (\text{활동빈도}) + B_2 \times (\text{활동시간}) + B_3 \times (\text{미취학자녀수}) \\ + B_4 \times (\text{자녀연령}) + B_5 \times (\text{취업형태}) + B_6 \times (\text{주택유형}) + B_7 \times (\text{소득구분})$$

분석 결과 양육활동빈도와 시간은 외출 부담감, 고립감, 자녀외출 제한에 대한 자책감 등 외출제약 관련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소득구분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5). 이는 앞서 양육활동에서 살펴 보았듯이 자녀를 동반한 외부활동은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목적활동인 경우가 많아 양육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목적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5>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활동 요인

종속변수	설명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양육스트레스	(상수)	3.204	0.232	-	13.829	0.000
	활동빈도	-0.033	0.022	-0.162	-1.479	0.141
	활동시간	0.002	0.018	0.014	0.131	0.896
	자녀수	0.194	0.114	0.122	1.695	0.092
	자녀연령	-0.092	0.131	-0.058	-0.702	0.483
	취업형태	-0.123	0.112	-0.079	-1.101	0.272
	소득구분	0.472	0.151	0.236	3.114	0.002**
R=0.342, R <sup>2</sup> =0.117, 수정된 R <sup>2</sup> =0.084, F=3.580						

p\*\* = 0.05이하에서 유의함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두고 근린환경만족도를 설명변수로 두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양육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개인특성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변수는 표 4-16와 같다.



<표 4-16>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요인 변수 설정

변수 구성			변수 설명	
종속변수	양육스트레스		부담감, 고립감, 자책감 합산 평균 값	
설명변수	근린환경 만족도	시설만족도	시설만족도 5점 리커트 척도	
		보행만족도	보행만족도 5점 리커트 척도	
통제변수	미취학 자녀수		0 = 자녀수 1명	1 = 자녀수 2명
	자녀 연령		0 = 영아	1 = 유아
	취업 형태		0 = 취업	1 = 미취업
	소득 구분		0 = 500만원미만	1 = 500만원이상
	주택 형태		0 = 아파트	1 = 비아파트

설정된 변수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분석을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y(\text{종속변수}) = \alpha(\text{상수}) + B_1 \times (\text{보행만족도}) + B_2 \times (\text{시설만족도}) + B_3 \times (\text{미취학자녀수}) + B_4 \times (\text{자녀연령}) + B_5 \times (\text{취업형태}) + B_6 \times (\text{주택유형}) + B_7 \times (\text{소득구분})$$

<표 4-17> 근린환경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영향 요인

종속변수	설명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양육스트레스	(상수)	4.312	0.310	-	13.925	0.000
	보행만족도	-0.446	0.085	-0.363	-5.246	0.000**
	시설만족도	-0.012	0.065	-0.013	-0.189	0.850
	자녀수	-0.004	0.108	-0.003	-0.039	0.969
	자녀연령	-0.231	0.109	-0.144	-2.114	0.036**
	취업형태	-0.100	0.104	-0.064	-0.955	0.341
	소득구분	0.421	0.143	0.210	2.947	0.004**
	R=0.475 , R <sup>2</sup> =0.225 , 수정된 R <sup>2</sup> =0.197 , F=7.853					

p\*\* = 0.05이하에서 유의함

시설만족도는 양육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행환경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7). 구체적으로 보행만족도가 1점 높아질수록 양육스트레스는 0.446만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행만족도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적지만 통제변수 중 자녀연령과 소득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은 영아인 경우에 비해 유아인 경우 양육스트레스는 0.231만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 양육자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 500만원미만보다 양육스트레스가 0.421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은 경우 근린양육환경에 대한 충분성과 만족도 모두 낮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의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영아와 유아가 함께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확충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3) 양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추정

외출에 대한 부담감, 외출제약으로 인한 고립감과 자책감 등 양육스트레스도 근린환경으로 인해 형성되는 양육자의 인식 중 하나로 볼 때 양육스트레스가 경험적으로 쌓이면서 양육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외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클수록 집 밖으로 나가는 활동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외출관련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양육활동(활동빈도와 시간)을 종속변수로 두고 양육스트레스의 각 항목을 설명변수로 두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양육자의 개인특성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고 설정된 변수는 표 4-18와 같다.

<표 4-18> 양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 요인 변수 설정

변수 구성			변수 설명
종속변수	양육활동		활동빈도와 활동시간 총량 계산 값
설명변수	양육 스트레스	부담감	부담감 5점 리커트 척도
		고립감	고립감 5점 리커트 척도
		자책감	자책감 5점 리커트 척도
통제변수	미취학 자녀수		0 = 자녀수 1명      1 = 자녀수 2명
	자녀 연령		0 = 영아      1 = 유아
	취업 형태		0 = 취업      1 = 미취업
	소득 구분		0 = 500만원미만      1 = 500만원이상
	주택 형태		0 = 아파트      1 = 비아파트

설정된 변수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귀식을 설정하였다.

$$y(\text{종속변수}) = \alpha(\text{상수}) + B_1 \times (\text{부담감}) + B_2 \times (\text{고립감}) + B_3 \times (\text{자책감}) + B_4 \times (\text{미취학자녀수}) + B_5 \times (\text{자녀연령}) + B_6 \times (\text{취업형태}) + B_7 \times (\text{주택 유형}) + B_8 \times (\text{소득구분})$$

분석 결과 자녀를 동반한 외출에 부담감을 느낄 때 양육활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9). 부담감이 증가하면 활동은 2.6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자의 특성 중 자녀수와 자녀연령이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1명에 비해 2명인 경우 양육활동은 증가하고 자녀의 연령이 영아보다 유아인 경우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양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 요인

종속변수	설명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양육활동	(상수)	22.194	2.859		7.763	0.000
	부담감	-2.226	0.852	-0.210	-2.614	0.010**
	고립감	2.038	1.118	0.169	1.823	0.070
	자책감	-0.819	0.922	-0.084	-0.888	0.376
	자녀수	4.405	1.260	0.225	3.497	0.001**
	자녀연령	9.244	1.313	0.467	7.040	0.000**
	취업형태	-1.424	1.234	-0.074	-1.154	0.250
	소득구분	1.561	1.714	0.063	0.911	0.364
	R=0.548, R <sup>2</sup> =0.300, 수정된 R <sup>2</sup> =0.270, F=10.064					

p\*\* = 0.05이하에서 유의함

양방향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앞서 양육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두고 양육활동을 설명변수로 두었을 때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양육스트레스 중 부담감이 늘어날수록 양육활동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양육활동과 양육만족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필수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양육활동에 양육스트레스라는 양육자의 인식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필수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환경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활동량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활동에 영향력을 미치므로 외출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질수록 양육자의 외부활동은 많아질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육자가 원하는 만큼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제4절 소결

양육자에게 집 밖의 동네는 자녀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물리적 근린양육환경이다. 물리적 근린환경은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보육, 놀이, 산책, 의료, 구매 등을 지원하는 ‘시설환경’과 이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공간을 제공하는 ‘보행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신월4동 여성 양육자들의 인식과 인식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신월4동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어 어린이 놀이터, 공원, 주민센터 등 도시계획시설이 대상지역 내외에 분포하고, 대부분의 양육관련 시설은 민간부문에서 공급되어 있다. 신월4동의 시설환경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보통수준보다 약간 낮은 2.6~2.7의 리커트 척도로 인식하고 있다. 15% 내외의 응답자가 양육 시설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충족도의 경우 45.7%, 만족도의 경우는 40.6%가 부정 또는 강한 부정의 인식을 보였다. 보육시설과 놀이터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많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동네에서는 자녀를 데리고 갈만한 곳이 없고 부족한 시설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공원,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결핍감이 크게 나타났다. 가까운 목동 신시가지와 신정택지개발지구로 등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시가지와 비교하여 역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시설환경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시설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세분화하여 설문한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에 대해서는 신월4동의 양육자들은 접근성에 대해서는 보통이하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하였고, 안전성과 편의성에 대해서는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평가를 하였다. 전반적인 만족도에 비해 평가가 높은 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만 응답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공시설 중에서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주민커뮤니티 시설이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이 모두 보통이하로 나타났으며 민간 시설에서는 유아학원시설과 교육시설이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이 모두 보통이하로 나타나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보행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리커트 척도 평균 2.95로 보통(3.0)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197명의 응답자 가운데 65.5%가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18.8%이고, 16.8%은 불만족, 2.0%는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한다. 보행하면서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범죄 안전성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수준(리커트 척도 4)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차량안전성, 보행편의성, 대중교통접근성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차량으로 인한 위험과 불편 인식이 크며, 차량으로 인한 불안감은 자녀를 동반하여 걸어 다니는 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차량으로 인해 양육자가 자녀를 동반하여 보행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미취학 자녀가 2명인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더 크게 인식되었다. 신월4동 양육자들은 불법주차, 보도 부재 및 연속성 단절, 차로 인한 골목길 지배 등을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며, 주로 넓은 폭의 간선도로, 신호등이 없는 집산도로, 블록 내부 교차로를 위험한 지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차량의 속도가 빠른 경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하고,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가 차단되는 경우에도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격자형 도로로 구성된 일반주거지역은 교차로가 많아 차량과 보행자가 교차해야 하는데 교차지점이 위험요인으로 인식되어 양육자가 자녀를 동반하여 보행할 때 항상 불안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물리적 근린환경(시설환경, 보행환경) 만족도와 양육활동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상관관계분석에서 나타났다. 이는 시설환경이나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해서 집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빈도와 시간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보행환경의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에 대한 양육자의 만족도와 양육활동 간의 상관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량으로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육시설, 놀이터 등 필수적인 활동보다 선택적인 활동인 경우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공공시설의 경우 활동 빈도와 시간 모두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놀이여가시설은 시설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이 높을수록 활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며, 상업편의시설도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이 양육활동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으로 선택적인 활동의 경우 시설환경과 보행환경의 안전성, 편의성, 접근성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양육자는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집 밖으로 자녀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의미하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보통인 3점 아래로 나타났다.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는 것은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다’는 2.96, ‘원하는 만큼 자주 밖에 나가지 못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2.85, ‘원하는 만큼 자주 밖에 나가지 못해 고립감이 든다’는 2.56으로 평균적으로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리커트 척도별 응답자수의 분포를 보면 일부 그룹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양육자는 197명의 응답자 중 33%에 달했고, 자주 나가지 못해 고립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13%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주 나가지 못해 자녀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응답자는 31.4%에 이르렀다.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월4동 양육자의 약 1/3은 집 밖으로의 외출에 부담을 느끼고 이에 따라 자녀에게 미안한 자책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시설환경보다 보행환경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 양육자보다 영아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양육스트레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의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영아와 유아가 함께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확충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활동에 대해 양방향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양육활동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양육스트레스 중 외출 부담감이 늘어날수록 양육활동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외출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질수록 양육자의 외부활동은 많아질 것이라 판단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원하는 만큼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제5장 사회적 근린양육환경에 대한 양육자 인식 분석

앞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서울의 일반 서민층 주거지인 신월4동은 여성 양육자가 집 밖으로 나가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시설과 이동의 공간을 제공해주는 물리적 양육환경이다. 도시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는 물리적 근린환경이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져 왔다. 사회적 관계형성이 물리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간 환경의 특성에 따라 사람들의 사회적 행태와 관계는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고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Jacobs, 1961; Whyte, 1980; Sommer, 1983; Gehl, 1987).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도 물리적 근린환경은 사회적 관계형성과 양육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효정 외, 2018; 김진경·서주현, 2010; 차삼숙·신유림, 2005; 이정신·최영희, 2010; 노신애·진미정, 2012).

이 장에서는 연구 대상지의 근린환경에서 양육활동을 통해 양육자의 사회적인 이웃관계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형성되고 이것이 양육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살펴본다. 양육자는 어디서, 어떤 계기로, 어느 정도 이웃을 만나 이웃관계를 형성하는지, 얼마나 이웃과 교류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는 이웃관계로 발전하는지, 이웃의 양육도움은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육자의 이웃도움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물리적 근린환경계획에 대한 함의를 찾아본다.



## 제1절 근린양육환경에서의 이웃관계망 형성

### 1. 이웃관계망 형성과 발전

#### (1) 이웃관계망 형성의 정도

신월4동의 197명 설문응답 여성 양육자가 자녀양육을 통해 알게 된 이웃의 수는 평균 4.6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가장 알게 된 이웃 수가 적은 경우는 0명이었으며, 가장 많은 경우는 15명이었다. 이 가운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이웃의 수는 평균 0.61명으로 응답하였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이웃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는 5명이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알고 지내는 이웃관계망이 자녀를 잠시 맡기는 실제적인 양육 도움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5-1> 이웃관계 형성의 정도

구분	평균	최저	최고
알게 된 이웃의 수	4.60	0	15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웃의 수	0.61	0	5

‘양육을 통해 알게 된 이웃의 수’(평균 4.6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시행한 결과 미취학 자녀수와 연령과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알고 지내는 이웃의 수는 많아지는데 이는 각각의 자녀마다 이웃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녀가 영아인 경우보다 유아인 경우 이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유아의 경우 영아보다 상대적으로 외부활동이 많아지므로 이에 따라 이웃관계도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면접내용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표 5-2> 이웃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전체 평균		4.60	2.793	-	-
미취학 자녀수	1명	4.04	2.234	-3.426	0.001*
	2명	5.39	3.284		
자녀연령	영아	3.66	2.263	-3.928	0.000*
	유아	5.21	2.939		
취업형태	취업	4.28	2.778	-1.737	0.084
	미취업	4.97	2.780		
소득구분	500만원미만	4.58	2.758	-0.303	0.762
	500만원이상	4.73	2.978		
주택유형	아파트	4.69	2.880	0.468	0.640
	비아파트	4.51	2.705		

\*.p<0.05

<표 5-3> 양육도움 이웃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전체 평균		0.61	0.933	-	-
미취학 자녀수	1명	0.50	0.777	-1.971	0.050
	2명	0.77	1.103		
자녀연령	영아	0.32	0.616	-3.593	0.000*
	유아	0.80	1.050		
취업형태	취업	0.48	0.935	-2.142	0.033*
	미취업	0.76	0.914		
소득구분	500만원미만	0.63	0.962	0.532	0.595
	500만원이상	0.54	0.803		
주택유형	아파트	0.68	0.884	1.090	0.277
	비아파트	0.54	0.984		

\*.p<0.05

큰애는 큰애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모임이 되더라고요.

(5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13년 거주)

큰애는[큰애를 통해 알게 된] 동네 이웃이랑 학교 엄마가 따로 있고, 둘째는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집 엄마들이랑 애들이 나이가 같으니까 그 엄마들이랑 오래 사귀는 거 같아요. 막내도 어린이집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있죠. 많지는 않지만. (연구자의 문구조정 삽입)

(5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11년 거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웃의 수’에 대해서도 T-검정을 시행한 결과 자녀 연령, 자녀의 수, 취업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다(표 5-3). 앞의 분석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녀연령과 미취학 자녀수가 많을수록 알게 되는 이웃의 수가 많아지므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웃의 수도 많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전일제 취업 양육자의 경우 대부분 자녀를 주로 돌보는 주양육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미취업 양육자의 경우 자녀돌봄을 부탁할 친인척이 없는 경우 이웃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가 공부하다보니 늦을 때도 있는데 아이들도 엄마들도 같이 친하면 잠깐 봐 달라고 하면 봐주고. 애들도 친하고 엄마들도 친하고 다 같이 친하니까 도움을 많이 받았죠.

(3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시험준비중, 다세대주택 2년 거주)

## (2) 이웃관계 형성의 계기와 교류장소

표 5-4는 신월4동의 설문응답 양육자들이 이웃을 알게 된 계기로 제시된 항목에 대해 복수응답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웃과 알게 된 계기는 같은 보육시설을 다녀서가 가장 높은 비율인 88.8%를 차지했고, 놀이터나 공원에서 자주 마주쳐서가 4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집 주변에서 자주 마주

처서가 22.3%로 나타났고, 그 외의 선택 항목은 10%정도 또는 그 이하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양육을 통한 이웃관계 형성이 주로 집 근처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활동의 빈도가 매일단위로 일어나는 보육시설과 놀이터가 동네에서 양육자간 사회적 접촉과 관계형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회적 매개공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면접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첫 애 유치원을 여기 다녔거든요. 6살에서 7살까지 다녔는데 유치원 엄마들을 알게 됐죠. ... 둘째 어린이집 친구 엄마, 그 친구의 아시는 분들을 또 알고 지내게 됐죠. ... 아파트에서 한두 번 인사했는데 애들 또래가 비슷하거나 하면 또 알고 지내게 되죠.

(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취업준비중, 아파트 3년 거주)

놀이터 나가면 얼굴은 다 알아요.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놀이터에서 자주 만나

<표 5-4> 이웃을 알게 된 계기

구분		집주변 에서 자주 마주침	놀이시 설에서 자주 마주침	공공시 설에서 자주 마주침	같은 보육 시설을 다님	같은 교육 시설을 다님	자녀 모임을 통해서	기타
전체 비율(%)		22.3	48.2	8.6	88.8	10.2	7.6	2.5
미취학 자녀수	1명	25.2	50.4	7.0	84.3	11.3	7.0	3.5
	2명	18.3	45.1	11.0	95.1	8.5	8.5	1.2
자녀 연령	영아	29.9	37.7	6.5	79.2	3.9	7.8	3.9
	유아	17.5	55.0	10.0	95.0	14.2	7.5	1.7
취업 형태	취업	15.4	46.2	10.6	92.3	12.5	8.7	1.9
	미취업	30.1	50.5	6.5	84.9	7.5	6.5	3.2
소득 구분	500만원미만	21.9	46.9	6.3	87.5	8.1	8.8	3.1
	500만원이상	24.3	54.1	18.9	94.6	18.9	2.7	0.0
주택 유형	아파트	22.1	49.0	8.7	94.2	9.6	9.6	1.0
	비아파트	22.6	47.3	8.6	82.8	10.8	5.4	4.3

고 얘기하다가 보면 또 더 친해지고. 애들도 또래고 그러다보면 친해지죠.

(5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13년 거주)

자녀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영아 양육자의 경우 집주변에서 마주쳐서 알게 된 경우가 유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놀이터에서 만나는 경우는 유아에 비해 영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에 비해 영아의 경우 실외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므로 아동의 활동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계기로 형성된 이웃 관계는 교류로 이어진다. 이웃과의 교류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웃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활동이다. 신월4동 197명의 설문응답자는 이웃과 대화를 나누는 장소로 복수응답한 결과는 놀이터(25.9%), 민간놀이시설(23.8%), 보육시설근처(22.4%), 우리집 또는 이웃집(10.5%)의 순이다. 이웃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보육시설과 놀이터가 이웃과 교류하는 중요한 장소임을 알 수 있고, 민간놀이시설과 양육자의 집이 주요한

<표 5-5> 이웃교류 장소

구분		놀이터	공원 녹지	민간 놀이 시설	주민 커뮤 니티 시설	도서 관	공공 문화 체육 시설	교육 시설	보육 시설 근처	집	기타
전체		25.9	2.1	23.8	1.4	0.7	1.4	2.8	22.4	10.5	9.1
미취학 자녀수	1명	26.2	0.0	27.9	1.6	0.0	1.6	3.3	23.0	13.1	3.3
	2명	25.6	3.7	20.7	1.2	1.2	1.2	2.4	22.0	8.5	13.4
자녀 연령	영아	23.5	3.7	30.9	0.0	0.0	0.0	1.2	27.2	7.4	6.2
	유아	29.0	0.0	14.5	3.2	1.6	3.2	4.8	16.1	14.5	12.9
취업 형태	취업	33.3	1.8	26.3	1.8	1.8	3.5	1.8	24.6	0.0	5.3
	미취업	20.9	2.3	22.1	1.2	0.0	0.0	3.5	20.9	17.4	11.6
소득 구분	500만원미만	23.0	1.6	23.8	1.6	0.0	1.6	2.4	25.4	10.3	10.3
	500만원이상	47.1	5.9	23.5	0.0	5.9	0.0	5.9	0.0	11.8	0.0
주택 유형	아파트	21.8	1.3	21.8	2.6	1.3	1.3	2.6	19.2	15.4	12.8
	비아파트	30.8	3.1	26.2	0.0	0.0	1.5	3.1	26.2	4.6	4.6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거의 매일단위로 이용하는 일상적인 시설이다. 공원녹지, 도서관, 공공문화체육시설, 교육시설은 소수의 응답자에게만 이웃과 교류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3장에서 본 것처럼 이 시설들은 대체로 신월4동 외부에 위치하고, 이용 빈도도 주간 또는 월간단위로 나타나며,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를 건너가야 하는 등 접근성도 낮게 인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녀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가 영아이거나 미취학 자녀수가 2명인 경우 집에서 교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활동특성상 실내 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가 1명일 경우에 비해 2명인 경우 민간놀이시설의 비중이 낮고 집에서 만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가 다른 자녀들을 편하게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설문결과로부터 동네 가까이에 있어서 일상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에서 이웃과 만나고 교류가 계속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면접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아래의 면접내용은 보유시설과 놀이터가 양육자의 사회적 관계형성에 중심적인 매개체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시장도 중요한 이웃 만남의 장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5에서 시장이 이웃 교류의 계기가 되는 장소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응답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22.3%를 차지한 ‘집 주변에서 자주 마주침’에 포함되어 응답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네 엄마들이니까 차를 타고 나가기보다는 동네에서 만나게 되죠. 낮에는 놀이터에서 자주 만나요.

(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취업준비중, 아파트 3년 거주)

애들은 애들끼리 놀이터에서 놀고 엄마들끼리 수다를 떨고. 주로 집 앞 놀이터에서 많이 만나죠.

(5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13년 거주)

큰애 어린이집 근처에서 제일 많이 마주치죠. 인사하고. 작은애 어린이집은 가

정어린이집이라서 애들이 많지 않아서 큰애 어린이집에서 많이 마주쳐요.

(2세/4세 자녀, 30대 시간제취업, 다세대주택 6년 거주)

유치원 등원시간에 만나서 자주 만나고 인사하고 그러죠. ... 우연히 마주쳐서 인사하는 건 시장길에서 대부분 다 만나는 거 같아요.

(6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6년 거주)

여기 시장길에서 제일 많이 마주쳐요. 많이 보면 10명도 만나요. 제가 아는 분들이 이 주변에 계시니까 이 라인에서 진짜 많이 마주쳐요.

(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취업준비중, 아파트 3년 거주)

### (3) 이웃교류 빈도 및 시간

이웃을 만나는 빈도와 시간을 살펴보면 빈도는 일주일에 1~2번이 32.0%이며, 일주일에 이웃을 만나는 평균 시간은 1.43시간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2번은 24.4%, 거의 만나지 않음이라는 응답도 27.4%를 차지해 이웃과의

<표 5-6> 이웃교류 빈도 및 시간

구분		교류 빈도					교류 시간
		거의 만나지 않음	한달에 1~2번	일주일 1~2번	일주일 3~4번	거의 매일 만남	
전체		27.4	24.4	32.0	14.7	1.5	1.43
미취학 자녀수	1명	29.6	25.2	28.7	15.7	0.9	1.34
	2명	24.4	23.2	36.6	13.4	2.4	1.54
자녀 연령	영아	20.8	27.3	37.7	11.7	2.6	1.25
	유아	31.7	22.5	28.3	16.7	0.8	1.56
취업 형태	취업	45.2	32.7	18.3	3.8	0.0	0.88
	미취업	7.5	15.1	47.3	26.9	3.2	1.78
소득 구분	500만원미만	21.3	23.8	35.0	18.1	1.9	1.21
	500만원이상	54.1	27.0	18.9	0.0	0.0	1.08
주택 유형	아파트	25.0	26.9	26.0	21.2	1.0	1.63
	비아파트	30.1	21.5	38.7	7.5	2.2	1.18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웃교류 시간과 양육자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T-검정을 시행한 결과 양육자의 취업형태와 주택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웃과의 교류시간은 양육자의 취업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다음의 면접내용이 시사하듯이 취업 양육자의 경우 이웃교류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과 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전에 첫째 때는 놀이터에 많이 나가서 친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하니까 자주 안 나가서. ... 첫째는 여기서 유치원부터 쫓 다녀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둘째는 아직 어린이집 다니고 반도 5명밖에 없어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2세 자녀, 30대 전일제취업, 아파트 8년 거주)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이웃교류 빈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비아파트보다 아파트가 이웃교류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취학 자녀가 <표 5-7> 이웃교류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전체 평균		1.43	1.197	-	-
미취학 자녀수	1명	1.34	1.273	-0.995	0.322
	2명	1.54	1.089		
자녀연령	영아	1.25	0.989	-1.507	0.134
	유아	1.56	1.321		
취업형태	취업	0.88	0.884	-4.734	0.000*
	미취업	1.78	1.786		
소득구분	500만원미만	1.21	1.213	0.809	0.420
	500만원이상	1.08	1.079		
주택유형	아파트	1.63	1.186	2.283	0.024*
	비아파트	1.18	1.171		

\*.p<0.05



있는 경우 어린이 놀이터 등 계획적으로 조성된 공간에서 사회적 교류를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면(정유진, 2014), 아파트가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계획 공간이 비아파트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면접 조사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와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로 집 앞 놀이터에서 아는 엄마들 많다보니까. 먹을 거 좀 가져와서 같이 먹고 놀아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고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놀다가 도 화장실 급하면 바로 집에 가서 가져올 수 있고 이런 게 좋은 거 같아요.

(5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13년 거주)

여기는 아파트 단지 안이라 위험한건 없는데, 여기(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는 더 커서 좋은데 옆에 도로가 있는데 막 나가서 위험하더라고요.

(5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11년 거주)

## 2. 이웃관계의 발전과 양육도움

### (1) 이웃관계의 발전

양육을 통해 이웃을 만나게 되고 교류를 하면서 양육의 이웃관계망은 발전한다. 신월4동 여성 양육자와의 심층면접은 이웃관계가 발전되어 가는 구조를 보여준다. 반복적인 우연한 만남은 이웃을 알게 되고 친해지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보육시설, 같은 주거지역, 자녀 또래 등과 같은 이유가 중복될 때 친한 이웃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보육시설, 놀이터, 시장 등 집 근처에서 일상으로 만나면서 양육자들은 점점 더 친해지고, 알고 지내는 이웃의 수를 늘리며, 친교의 강도를 높이면서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함을 볼 수 있다.

놀이터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놀이터에서 자주 만나고 얘기하다가 보면 또 더 친해져요. 애들도 또래고 그러다보면 친해지고, 어린이집 엄마들은 옆에 놀이터에서 같이 있다가 어린이집 애들이 아니까 또 얘기하게 되죠.

(5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13년 거주)

친해지는 경우는 일단 아이가 같이 유치원에 다녀서 알게 되고, 마인드가 맞고 하면 친해지게 되죠.

(2세/5세 자녀, 30대 시간제취업, 아파트 7년 거주)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심화가 모든 양육자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양육자들은 자녀의 연령대와 함께 자신의 성격, 연령, 지위, 주거지 등에 따라 또는 다른 양육자의 소개로 사회적 관계망을 선택하고 심화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응답자에게 국한된 것이라 해도, 이웃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관련된 면접내용은 양육을 매개로 한 커뮤니티 형성에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

아는 사람이 많긴 한데 그 중에 일부만 친한 거예요.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은 큰애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때 같은 유치원을 나왔던 사람 중에 같은 아파트에 살고. 만나다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차 한 잔 마시고 밥 먹다 보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도 있고. 자주 만나게 되고. 자주 만나다 보면 계속 더 친해지죠.

(5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13년 거주)

지나치다가 마주치면 인사를 하게 되고 인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친해지는 경우는 아이가 동갑이거나, 같은 라인이거나, 아는 사람이 중간에 같이 있거나,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2세 자녀, 30대 전일제취업, 아파트 8년 거주)

## (2) 이웃의 양육도움

위와 같이 형성된 이웃관계는 신월4동 양육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양육도움을 동반한다. 이웃 간 양육도움 형태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 설문결과 육아 및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는 3.51,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서로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3.42, 이웃과 나의 자녀들이 친구가 된다는 3.27, 물건을 빌리거나 물려받는다 2.52, 자녀를 돌봐달라고 부탁한다는 2.17로 나타났다. 면접조사에서도 육아 및 교육과 관련된 정보 공유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육아정보공유에 대한 부분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정서적 지지와도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녀를 같은 보육시설에 보내거나 자녀와 비슷한 연령인 경우 이웃관계 형성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이웃관계망 특성에서 나타났으며, 자녀와 양육자가 함께 활동하면서 이웃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끼리 친구관계가 형성된다는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아용품 공유하거나 자녀를 직접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양육도움은 다른 도움 형태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자녀를 직접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자녀들과 양육자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신뢰가 쌓인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비중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육아상담을 많이 하죠. 아무래도 또래들이고 하다 보니 육아상담을 많이 하고 최근에는 유치원 상담을 많이 했어요. 잠깐 급한 일 있거나 병원 가거나 할 때 제가 맡아주기도 하고 하죠. 아빠들은 늦게 오고 하니까. 엄마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도움이 되죠.

(0세/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 아파트 20년 거주)

표 5-8은 이웃의 양육도움 형태에 대한 리커트 척도별 응답자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는 양육도움의 경우 45.7%에 달하는 90명이 보통수준을 넘어 그렇다(4점 척도)고 응답하였고, 이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11명은 매우 그렇다(5점 척도)고 응답하였다. 보통수

준(3점 척도)을 넘어 절반이상(51.3%)에 해당하는 101명의 응답자가 이웃으로부터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정서적 위안을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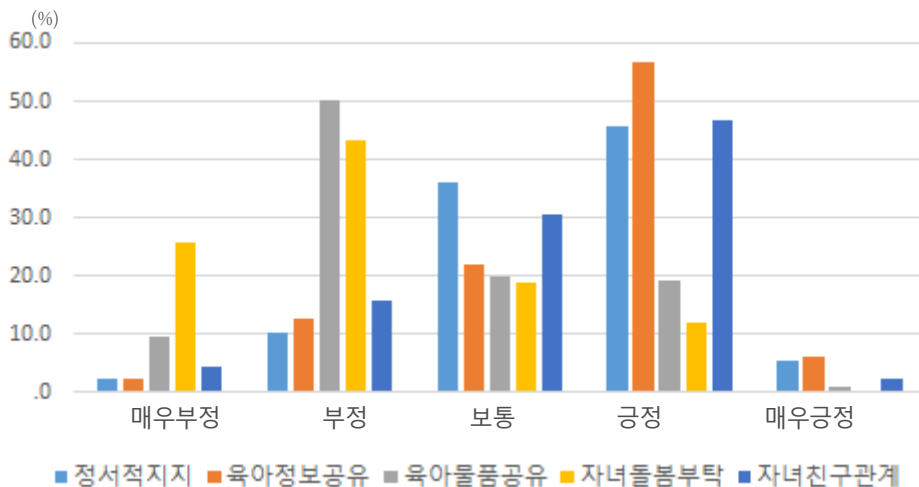
이웃 교류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정보공유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다수의 62.9%에 이르는 124명의 응답자가 그렇다(4점 척도, 56.9%, 112명), 또는 매우 그렇다(5점 척도, 6.1%, 12명)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육아의 물품을 공유하거나 돌봄을 부탁하는 보다 적극적인 도움의 관계로까지 나아간다고 응답한 경우는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하다. 육아 물품공유의 도움을 주고 받는 이웃교류를 긍정한 응답은 20.3%(40명)으로 나타났고, 이중 2명만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오히려 그렇지 않다(1, 2점 척도)는 응답자가 118명으로써 전체 197명 응답자의 59.9%를 차지하고 있다. 자녀를 서로 돌봐주는 도움을 주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의 69.0%에 이르는 136명이 그렇지 않다(1, 2점 척도)고 응답하였다.

<표 5-8> 이웃의 양육도움 형태

구분		5점 리커트 척도					총계	평균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정서적 지지	비율	2.5	10.2	36.0	45.7	5.6	100.0	3.42
	응답수	5.0	20.0	71.0	90.0	11.0	197.0	
육아정보공유	비율	2.5	12.7	21.8	56.9	6.1	100.0	3.51
	응답수	5.0	25.0	43.0	112.0	12.0	197.0	
육아물품공유	비율	9.6	50.3	19.8	19.3	1.0	100.0	2.52
	응답수	19.0	99.0	39.0	38.0	2.0	197.0	
자녀돌봄부탁	비율	25.9	43.1	18.8	12.2	.0	100.0	2.17
	응답수	51.0	85.0	37.0	24.0	.0	197.0	
자녀친구관계	비율	4.6	15.7	30.5	46.7	2.5	100.0	3.27
	응답수	9.0	31.0	60.0	92.0	5.0	197.0	

이들 도움형태별 경향은 평균치에서도 개략적으로 나타나지만, 리커트 척도별 응답분포는 신월4동의 양육자 간의 사회적 관계형성은 육아의 어려움에 대한 정서적 지지나 육아정보 공유의 차원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있고, 일부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육아물품을 공유하거나 자녀를 서로 돌보아 주는 관계로 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7명 응답자의 49.2%에 해당하는 97명의 응답자는 이웃교류가 자녀의 친구관계 형성으로 이어진다고 응답하여(4, 5점 척도),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1, 2점 척도) 40명(20.3%) 보다 우세하였다.

이웃교류가 적극적인 물품공유나 자녀돌봄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육자의 사회적 관계형성이 자녀의 친구관계형성으로 이어지고 다양한 형태의 물적, 비물적 도움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양육자에 제한되어 있기는 아니 만 이러한 관계는 적극적인 육아도움 관계로까지 발전한다는 것을 다음의 면접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 이웃도움에 대한 인식 분포

동네에 대한 정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낼 때 정보, 병원이나 먹는 거 같은  
소소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죠.

(6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6년 거주)

학원이나 교육정보 같은 거 들으면서 친해지기도 했고 먼저 키운 선배들이잖아  
요. 그래서 도움도 되고 친해지기도 하고 그랬죠.

(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취업준비중, 아파트 3년 거주)

친구들하고 얘기 못하는 애들에 대한 고민 같은 거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좋  
아요. 친구들은 이 아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웃  
들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대충 아니까 지금 문제만 얘기해도 딱 알아듣고 얘기  
해줄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이런 아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  
어요.

(2세 자녀, 30대 전일제취업, 아파트 8년 거주)

예를 들어 다른 집 둘째가 분리불안이 온 거예요. 첫째 때는 분리불안이 없었  
는데 둘째가 갑자기 분리불안이 오니까 엄청 걱정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애도  
분리불안이 있었다, 그때 이랬다 얘기해줄 수 있죠. 옆에서 같이 고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게 도움 되는 것 같아요.

(6세 자녀, 40대 전업주부, 아파트 6년 거주)

애들 옷 같은 거 작아지면 주거나, 내가 필요 없는데 많이 있는 거 나눠주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친구들은 멀리 사니까 주고 싶어도 빨리 줄 수 없으니까요.

(2세 자녀, 30대 전일제취업, 아파트 8년 거주)

## 제2절 양육도움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 영향 관계

커뮤니티에서 이웃관계의 형성과 신뢰구축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Putnam, 1998; Green & Haines, 2012), 커뮤니티 계획이나 마을공동체 정책은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교류하고 도움을 주는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을 중요시 해왔다(안현찬 외, 2016). 양육환경의 문제에 있어서도 양육을 통한 이웃교류활동이 활발할수록 이웃으로부터 양육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커지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앞서와 같이 형성된 이웃관계에 대해 신월4동의 여성 양육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웃으로부터 받는 양육도움에 대한 만족도와 도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감소효과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한다. 그리고 사회적 교류의 강도가 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본다.

### 1. 이웃의 양육도움에 대한 만족도

#### (1) 양육도움만족도 특성

설문결과 이웃의 양육도움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31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5-8). 197명의 응답자 중 절반이 약간 넘는 102명(51.8%)이 보통(3점 척도)이라고 응답하였고, 긍정적으로 만족하는 4, 5점 척도는 39.1%(77명),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1, 2점 척도는 9.1%(18명)의 분포를 보였다. 위에서 본 양육을 통해 형성된 이웃 관계와 도움에 대해 절반 정도는 특별한 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불만족보다는 만족을 느끼는 응답자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의 양육도움 만족도(평균값)가 양육자 특성, 자녀 특성, 주거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T-검정을 통해 분석해보면 취업형태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취업형태는 미취업양육자의 이웃양육도움 만족도가 3.44로 취업양육자의 만족도 3.19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확률 0.009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미취업 양육자의 경우 취업 양육자에 비해 이웃교류가 많으며 이웃과의 도움 만족도도 높아 이웃교류활동이 양육도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구분에 따라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양육도움 만족도가 높는데 유의확률 0.002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양육도움은 소득이 높고 주양육자가 있는 취업 양육자보다 소득이 낮고 직접 자녀를 돌보는 미취업 양육자에게 양육도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 만족도의 차이는 리커트 척도 3점대 하단 범위 내에 속해 있어 통계적 의미가 있다 해도 현격한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표 5-9> 이웃의 양육도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전체 평균		3.31	0.670	-	-
미취학 자녀수	1명	3.30	0.690	-0.131	0.896
	2명	3.32	0.646		
자녀연령	영아	3.27	0.621	-0.618	0.537
	유아	3.33	0.702		
취업형태	취업	3.19	0.655	-2.637	0.009*
	미취업	3.44	0.667		
소득구분	500만원미만	3.38	0.653	3.189	0.002*
	500만원이상	3.00	0.667		
주택유형	아파트	3.29	0.664	-0.468	0.640
	비아파트	3.33	0.681		

\*.p<0.05



## (2) 양육 도움 만족도와 이웃교류 활동의 관계

이웃교류 활동에 따라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앞서 살펴본 이웃교류활동의 빈도 및 시간과 이웃도움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웃과의 도움 관계는 이웃교류 활동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도움 만족도와 교류빈도와는 상관관계수가 0.632로 나타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교류시간과는 상관관계수 0.318로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류빈도와 시간의 증가는 모두 양육도움을 증가시키는 관계를 가지지만 교류빈도가 교류시간 보다 더 큰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웃관계가 도움을 주는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웃이 자주 마주치고,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근린환경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5-10> 이웃교류 활동과 양육도움 인식 관계

		교류빈도	교류시간	양육도움 만족도
교류빈도	Pearson 상관계수	1	0.523**	0.632**
	유의확률 (양쪽)		0.000	0.000
	N	197	143	197
교류시간	Pearson 상관계수	0.523**	1	0.318**
	유의확률 (양쪽)	0.000		0.000
	N	143	143	143
양육도움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0.632**	0.318**	1
	유의확률 (양쪽)	0.000	0.000	
	N	197	143	197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2. 양육스트레스 영향 요인 추정

### (1) 이웃관계와 양육스트레스

여성 양육자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육아의 어려움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며, 이는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양육자가 인식하는 양육부담을 양육스트레스라고 보고, 동네의 사회적 환경, 즉 이웃 관계에 따라 양육자의 양육부담이 얼마나 감소되는가를 살펴본다.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로 인해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받는지 살펴보기 위해 3가지 측면으로 설문하였다. 하나는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하는지’이고, 두 번째는 ‘이웃의 양육도움이 양육부담을 얼마나 덜어준다고 인식하는지’이며, 세 번째는 ‘이웃교류를 통한 자녀간의 친구 관계 형성을 통해 자녀 양육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인식이다. 설문 응답 분석 결과 이웃을 만나 대화를 하면 답답한 마음이 풀린다가 3개 항목 중 가장 높은 2.93으로 나타났다. 이웃의 자녀와 나의 자녀가 친구가 되어 아이를 돌보는 부담이 적어졌다는 2.27, 이웃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아이를 돌보는 부담이 적어졌다는 2.15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값은 모두 보통(3점 척도)이하로서 이웃의 도움이 양육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정도에 미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설문자 응답을 리커트 척도별도 구분해 보면 3개의 스트레스 측정 항목은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이웃을 만나 대화를 하면 답답한 마음이 풀린다’는 보통(3점, 65명, 33.0%)을 중심으로 긍정과 부정이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즉 긍정(4, 5점 척도)이 32%(63명), 부정(1, 2점 척도)이 35%(69명)이다. 이웃관계가 적어도 양육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는데 기여함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앞서 살핀 양육의 어려움을 서로 이해해 주는 정서적 지지를 양육도움으로 인식하는 응답결과(51.3% 긍정)와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웃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아이들 돌보는 부담이 적어졌다’고 응답한 것은 평균값에서 가장 낮은 2.15였는데, 리커트 5점 척도 분포도 이를 뒷

받침하고 있다. 전체의 7.1%(14명)만이 이를 긍정(4, 5점 척도)하였고, 71.1%(140명)은 이러한 부담의 감소를 부정하였다. ‘자녀가 친구가 되어 아이를 돌보는 부담이 적어졌다’는 응답도 긍정이 11.7%(23명), 부정이 62.4%(123명)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웃이 아이를 돌보아주거나 자녀 간 친구로 어울리기 때문에 양육부담이 감소된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약 10% 내외에 그치고 대부분의 경우 이웃의 도움은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관계에는 이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양육자간의 대화를 통해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긍정적 인식은 60%이상에 이르고 있다.

<표 5-11> 이웃관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구분		5점 리커트 척도					총계	평균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양육스트레스감소 이웃대화	비율	6.6	28.4	33.0	29.4	2.5	100.0	2.93
	응답수	13.0	56.0	65.0	58.0	5.0	197.0	
양육스트레스감소 돌봄부탁	비율	20.8	50.3	21.8	7.1	0.0	100.0	2.15
	응답수	41.0	99.0	43.0	14.0	0.0	197.0	
양육스트레스감소 자녀관계	비율	22.3	40.1	25.9	11.2	0.5	100.0	2.27
	응답수	44.0	79.0	51.0	22.0	1.0	197.0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개인적인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통해 양육스트레스 전체 평균값(2.45)이 양육자특성, 자녀특성, 주거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5-12). 취업형태와 소득수준이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보다 미취업 양육자가 이웃의 도움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이웃 교류와 이웃도움과의 상관성에서 취업 양육자의 절대적인 시간과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이웃도움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양육스트레스 감소는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500만원미만이 500만원이상 계층에 비해 이웃의 도

움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계층이 이웃도움으로 인한 양육도움에 더 큰 만족도를 가지며 이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감소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일수록, 미취업 상태 일수록 양육자는 이웃의 도움에 더 민감하며, 그만큼 양육에 있어 더 도움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취업준비 중인 전업주부의 면접 내용은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제가 공부하다보니 늦을 때도 있는데 아이들도 엄마들도 같이 친하면 잠깐 봐 달라고 하면 봐주고. 힘들 때 이집 가서 놀고 있고. 또 이집 애들이 오면 우리 애들도 즐겁고. 애들도 친하고 엄마들도 친하고 다 같이 친하니까 도움을 많이 받았죠. 공부 한참 할 때 다른 엄마가 애들 같이 데리고 키즈카페도 데리고 가지고 해서 고맙죠.

(3세/6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시험준비중, 다세대주택 2년 거주)

취업 준비하다가 늦어지고 하면 첫째는 친구 엄마들이 학원도 데려다주고 케어

<표 5-12>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전체		2.45	0.704	-	-
미취학 자녀수	1명	2.42	0.663	-0.562	0.575
	2명	2.48	0.761		
자녀연령	영아	2.39	0.665	-0.935	0.351
	유아	2.49	0.729		
취업형태	취업	2.29	0.652	-3.437	0.001*
	미취업	2.63	0.722		
소득구분	500만원미만	2.50	0.705	2.085	0.038*
	500만원이상	2.23	0.667		
주택유형	아파트	2.47	0.752	0.442	0.659
	비아파트	2.42	0.651		

\*.p<0.05

해주고 둘째는 종일반을 시켰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동생네에 하원한 후에 돌보는 걸 부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일 잠깐 하면서 느낀 건 주변에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지 제 딸을 주변에서 다 챙겨주고 하더라고요. 길도 같이 건네주고, 학원 잘 가는지도 봐주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못가는 경우도 봤어요. 주변에서 엄마들이 챙겨주면 일하러 가도 엄마가 안심되잖아요. 그런 게 커서 이사를 못가시더라고요.

(3세 자녀, 30대 전업주부/취업준비중, 아파트 3년 거주)

## (2) 양육스트레스 영향 요인 추정

이웃도움이 클수록 양육부담은 줄어든 것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이웃 도움이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더 미치는지는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스트레스(3개 평균값 2.45)를 종속변수로 두고 양육도움 형태를 설명변수로 두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설명변수에 포함된 양육도움 형태는정서적지지, 육아정보공유, 육아물품공유, 자녀돌봄부탁, 자녀친구관계 총 5개의 항목이며, 미취학 자녀수, 자녀연령, 취업 형태, 소득 <표 5-13>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웃도움 요인 변수 설정

변수 구성			변수설명
종속변수	양육스트레스 감소		양육부담감소 이웃대화, 돌봄부탁, 자녀관계 합산 평균 값
설명변수	양육도움 형태	정서적지지	정서적지지 5점 리커트 척도
		육아정보공유	육아정보공유 5점 리커트 척도
		육아물품공유	육아물품공유 5점 리커트 척도
		자녀돌봄부탁	자녀돌봄부탁 5점 리커트 척도
		자녀친구관계	자녀친구관계 5점 리커트 척도
통제변수	미취학 자녀수		0 = 자녀수 1명      1 = 자녀수 2명
	자녀 연령		0 = 영아              1 = 유아
	취업 형태		0 = 취업              1 = 미취업
	소득 구분		0 = 500만원미만      1 = 500만원이상
	주택 형태		0 = 아파트            1 = 비아파트

구분, 주거 유형과 같은 양육자의 개인특성은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회귀분석을 위해 설정된 변수는 표 5-13와 같으며,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y(\text{종속변수}) = \alpha(\text{상수}) + B_1 \times (\text{정서적지지}) + B_2 \times (\text{육아정보공유}) + B_3 \times (\text{육아 물품공유}) + B_4 \times (\text{자녀돌봄부탁}) + B_5 \times (\text{자녀친구관계}) + B_6 \times (\text{미취학자녀수}) + B_7 \times (\text{자녀연령}) + B_8 \times (\text{취업형태}) + B_9 \times (\text{주택 유형}) + B_{10} \times (\text{소득구분})$$

회귀분석 결과 5개의 항목 모두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자녀돌봄부탁은 1만큼 증가할 때 양육스트레스가 0.315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4). 그 다음으로 육아정보공유가 1만큼 증가할 때 양육스트레스는 0.182만큼 감소하며, 정서적지지는 0.136, 육아물품공유는 0.103만큼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 친구관계는 <표 5-14>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이웃도움 요인

종속변수	설명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양육 스트레스 감소	(상수)	0.644	0.185	-	3.477	0.001
	정서적지지	0.136	0.068	0.163	2.009	0.046**
	육아정보공유	0.182	0.068	0.229	2.683	0.008**
	육아물품공유	0.103	0.052	0.138	1.980	0.049**
	자녀돌봄부탁	0.315	0.050	0.427	6.265	0.000**
	자녀친구관계	-0.033	0.054	-0.042	-0.601	0.549
	자녀수	-0.062	0.078	-0.044	-0.804	0.422
	자녀연령	-0.057	0.086	-0.040	-0.665	0.507
	취업형태	-0.043	0.077	-0.030	-0.555	0.580
	소득구분	-0.179	0.104	-0.100	-1.719	0.087
	R=0.716 , R <sup>2</sup> =.0513 , 수정된 R <sup>2</sup> =0.487 , F=19.606					

p\*\* = 0.05이하에서 유의함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녀돌봄을 부탁할 수 있는 이웃관계는 알고 지내는 이웃관계에 비해 상당히 미약하지만 자녀돌봄을 부탁할 수 있는 이웃관계는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육자간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양육부담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근린환경에서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양육자의 사회적 관계망이 강화될수록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양육자가 이웃과 교류하는 빈도와 시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웃교류활동의 빈도와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고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관련된 3개 항목에 대한 합산 평균값(2.45)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설정된 변수는 표 5-15와 같으며,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y(\text{종속변수}) = \alpha(\text{상수}) + B_1 \times (\text{교류빈도}) + B_2 \times (\text{교류시간}) + B_3 \times (\text{미취학자녀수}) + B_4 \times (\text{자녀연령}) + B_5 \times (\text{취업형태}) + B_6 \times (\text{주택유형}) + B_7 \times (\text{소득구분})$$

<표 5-15> 양육스트레스 요인 추정을 위한 변수 설정

변수 구성			변수설명
종속변수	양육스트레스		양육부담감소 이웃대화, 돌봄부탁, 자녀관계 합산 평균 값
	이웃교류	교류빈도	교류빈도의 합산 평균 값
		교류시간	교류시간의 합산 평균 값
통제변수	미취학 자녀수		0 = 자녀수 1명      1 = 자녀수 2명
	자녀 연령		0 = 영아              1 = 유아
	취업 형태		0 = 취업              1 = 미취업
	소득 구분		0 = 500만원미만      1 = 500만원이상
	주택 형태		0 = 아파트            1 = 비아파트

분석 결과 교류빈도가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6). 교류빈도가 1만큼 증가할 때 양육스트레스는 0.187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웃과의 교류빈도가 증가할수록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웃과의 교류시간이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5-16>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이웃교류 요인

종속변수	설명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양육 스트레스 감소	(상수)	1.853	0.245	-	7.570	0.000
	교류빈도	0.187	0.087	0.218	2.143	0.034**
	교류시간	0.058	0.056	0.103	1.038	0.301
	자녀수	0.182	0.113	0.135	1.617	0.108
	자녀연령	0.168	0.119	0.124	1.415	0.159
	취업형태	0.024	0.114	0.018	0.213	0.831
	소득구분	-0.186	0.181	-0.090	-1.026	0.307
	R=0.357 , R <sup>2</sup> =0.127, 수정된 R <sup>2</sup> =0.082 , F=2.813					

p\*\* = 0.05이하에서 유의함



### 제3절 소결

서울의 일반적인 서민층 주거지인 신월4동에서의 이웃관계는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여성 양육자에게 사회적 양육환경으로 작용한다. 본 장에서는 양육 활동을 매개로 서로 알게 되고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때로는 양육에 도움을 주는 단계에 이르는 지역공동체로서의 현실과 가능성을 살펴해보았다.

설문응답자 197명의 양육자는 평균 4.6명의 이웃을 양육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들은 주로 보육시설, 놀이터, 집근처에서 마주친 것을 계기로 알게 되었고, 놀이터, 보육시설, 시장 같은 거의 매일 들리는 일상생활공간에서 이웃과 만나 대화하고 교류한다.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이웃을 많이 알고 있으며, 취업양육자 보다는 전업양육자가 보다 많은 이웃을 알고 교류한다.

양육자간의 교류빈도는 일주일에 1~2번이 32.0%, 한 달에 1~2번이 2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비중도 27.4%에 이르러 응답자의 약 1/4는 양육을 통한 이웃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일주일에 3~4번 이상 자주 만나는 비율은 전체의 15.2%로 나타났다. 만나서 교류하는 시간은 평균 1.43시간이었다. 교류시간에 있어서도 취업양육자보다는 낮 시간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는 미취업양육자가 활발하였다.

양육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만남의 횟수가 증가하면서 강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주고받는다. 육아정보의 공유, 정서적지지, 자녀친구관계 형성에 대해 부정 보다는 긍정의 응답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육아용품 공유나 자녀 돌봄 부탁 같은 양육도움 응답은 미약한 비중에 그쳤고, 부정 응답이 우세하였다.

이웃의 양육도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 3.31로 보통 이상이며, 양육자의 취업형태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육아정보공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지지, 자녀친구관계, 육아물품공유, 자녀돌봄부탁 순으로 나타났다. 교류빈도와 교류시간의 증가는 이웃관계를 양육도움관계로 발전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교류빈도가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심리적 양육부담을 양육스트레스라고 정의할 때, 양육자의 스트레스에 감소에 도움이 되는 이웃도움은 정서적지지, 양육 정보공유 같은 간접도움보다 육아 물품공유나 자녀 돌봄부탁 같은 직접도움의 영향력이 2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교류 빈도도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만날수록 당면한 양육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웃의 경험담을 들으며 정신적으로 위안을 받기 때문임을 면접조사는 보여준다.

이웃의 양육도움은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육자에게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자녀돌봄을 부탁할 수 있는 이웃관계는 알고 지내는 이웃관계에 비해 상당히 미약하지만 자녀돌봄을 부탁하는 이웃도움은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육자간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양육부담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근린환경에서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양육자의 사회적 관계망이 강화될수록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이웃교류 빈도 및 시간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교류빈도가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웃과의 교류빈도가 증가할수록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양육자의 교류빈도가 높은 놀이터와 시장의 경우 이웃교류를 위한 중요한 장소로 고려되어야 하며 주거지역의 커뮤니티 계획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웃교류를 위한 장소를 민간시설에 의존하게 되면 일부 계층만 이용하는 불평등한 환경이 조성되므로 모든 양육자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마련하여 양육자가 자녀를 동반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는다.

## 제6장 결론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포용도시(inclusive city)의 관점에서 서민층 여성 양육자가 근린주거환경에서 겪는 양육의 부담과 어려움을 사례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형성된 서울시 양천구 신월4동을 단일사례지역으로 하여 197명의 양육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10명의 양육자에 면접조사를 통해 근린환경과 양육활동,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 및 양육활동의 상관성,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및 이웃관계의 상관성에 대해 근린환경맥락과 연결시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신월4동 197명의 설문 응답자는 모두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20~40대의 연령대이며, 중위 또는 그 이하의 가구소득계층에 속하는 서민층 여성 양육자이다. 설문에 참여한 양육자들의 약 45%는 전업주부이며 나머지 다수는 전일 또는 시간제 취업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일부는 친인척의 도움을 받고 있고, 남편 배우자도 양육에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61.9%가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34.0%는 1명을 양육하고 있어서, 95%이상이 2명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연구의 주요한 발견 점은 다음과 같다.

#### 근린환경과 양육활동

신월4동 근린환경에서 여성 양육자의 양육활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취업상태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주중에는 하루 6.0시간, 주말에는 하루 9.8시간을 아이를 키우는데 쓰고 있다. 양육자의 취업상태에 따라 주중에는 54.8%의 양육자 본인이 직접 육아를 담당하고, 나머지는 친인척, 도우미, 배우자의 도움을 받고 있다. 주말

에는 양육자가 직접 담당하는 비중은 84.3%로 증가하고, 배우자의 참여 비중도 높아지며, 친인척의 비중은 1.5%로 낮아진다. 응답자의 약 80%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고, 약 20%는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고 있다.

동네에서 양육활동을 위해 양육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는 공원녹지, 상업시설, 놀이터, 의료시설, 공공보육시설, 민간놀이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장소는 보육시설, 놀이터, 교육시설, 상업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설에 대한 방문은 일간 또는 주간 빈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부분의 양육자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수행하는 양육활동장소로 볼 수 있다. 이용시간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데, 가장 자주 방문하는 놀이터, 공공문화시설, 상업시설의 경우 30분~1시간 또는 1시간 내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시설에 접근하기 위한 자녀를 동반한 이동도 주요한 근린양육활동인데, 놀이터, 의료시설, 편의시설 등 신월4동 내부 및 인접한 시설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행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다소 거리가 있는 공원녹지, 도서관,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은 보행과 함께 버스·택시 및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육관련 시설로의 이동은 주로 보행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양육자의 활동 범위는 주중과 주말 다르게 나타난다. 영아와 유아 두 자녀를 함께 동반하는 활동 및 주중 보육시설, 놀이터 방문과 같은 일상적인 양육활동 범위는 200미터 범위로 제한되며, 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 목적을 가진 양육활동은 주로 400미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말에는 신월4동의 경계 밖에 위치한 공원이나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양육활동범위는 800미터로 확대되고, 여가활동을 겸하여 차량이동을 통해 공간범위는 더욱 확장된다. 이러한 양육활동의 공간범위는 자녀의 연령, 외출 시 다른 사람과의 동행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점도 확인되었다.

###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 및 양육활동의 상관성

신월4동의 물리적 근린환경을 양육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아이

를 키우는데 필요한 보육, 놀이, 산책, 의료, 구매 등을 지원하는 ‘시설환경’과 이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공간을 제공하는 ‘보행환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시설환경에 대해서 양육자들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리커트 5점 척도 중 평균 2.6~2.7). 보육시설과 놀이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감을 나타냈으나 전반적으로 동네에서는 자녀를 데리고 갈만한 곳이 없고 부족한 시설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공원, 공공문화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에 대한 결핍감이 크게 나타났다. 이들 공공시설에 대한 인식은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의 측면에서 모두 보통이하로 나타나 일반적인 서민층 주거지역이 양육자에게 양육친화적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행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 정도의 수준(리커트척도 2.95)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범죄안전성에 대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인식한 응답결과를 반영한 평균값으로서, 차량안전성, 보행편의성, 대중교통 접근성 측면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면접조사는 신월4동에서 양유아를 키우기 위한 집 밖 나들이가 얼마나 양육자에게 어려움을 주는가를 보여준다. 양육자들은 차량으로 인한 위험과 불편을 자녀를 동반하여 걸어 다니는 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차량으로 인해 양육자가 자녀를 동반하여 보행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미취학 자녀가 2명인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더 크게 인식되었다. 불법주차, 보도 부재 및 연속성 단절, 차로 인한 골목길 지배 등을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넓은 폭의 간선도로, 신호등이 없는 집산도로, 블록 내부 교차로가 위험한 지점으로 지적되었고, 차량의 속도가 빠르고 차량과 보행자가 교차하는 경우 양육자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행환경에 대한 양육자의 불안감은 자녀의 독립보행을 지연시키고 활동범위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양육자의 물리적 근린환경(시설환경,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양육활동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시설환경이나 보행환경에 대한 만

족도가 더 높다고 해서 집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빈도와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총량으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육시설, 놀이터 등 필수적인 활동보다 선택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상관성을 보인다. 공공시설의 경우 활동빈도와 시간 모두와 만족도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놀이여가시설은 시설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이 높을수록 활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며, 상업편의시설도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이 양육활동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공시설 방문과 같은 선택적인 활동의 경우 시설환경과 보행환경의 안전성, 편의성, 접근성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양육자는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시설환경 및 보행환경에 따라 외출에 대한 부담감, 외출제약으로 인한 고립감, 자녀교육 미흡에 대한 자책감 같은 양육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데 대해 신월4동의 양육자는 보통이하(리커트 척도 2.56~2.96)로 응답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리커트 척도별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부담감(33%), 고립감(13%), 자책감(31%) 유형별로 일부의 응답자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월4동 양육자의 약 1/3은 집밖으로의 외출에 부담을 느끼고 이에 따라 자녀에게 미안한 자책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시설환경보다 보행환경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 양육자보다 영아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양육스트레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의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영아와 유아가 함께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확충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활동에 대해 양방향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양육활동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양육스트레스 중 외출 부담감이 늘어날수록 양육활동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외출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질수록 양육자

의 외부활동은 많아질 것이라 판단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원하는 만큼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및 이웃관계 상관성 이해

동네에서의 이웃관계는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여성 양육자에게 사회적 양육환경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활동을 매개로 서로 알게 되고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때로는 양육에 도움을 주는 단계에 이르는 지역공동체로서의 현실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신월4동의 양육자가 양육을 통해 알게 된 이웃의 수는 평균 4.6명이며, 응답자의 1/4은 이웃관계가 없다. 이웃은 주로 보육시설, 놀이터, 집근처에서 마주친 것을 계기로 알게 되었고, 놀이터, 보육시설, 시장 같은 거의 매일 들리는 일상생활공간에서 이웃과 만나 대화하고 교류한다. 교류빈도는 일주일에 1~2번이 32.0%, 한 달에 1~2번이 2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만나서 교류하는 시간은 평균 1.43시간이다. 교류빈도와 시간 모두 취업양육자보다는 낮 시간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는 미취업양육자가 활발하였다. 양육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만남의 횟수가 증가하면서 강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주고받는다. 이웃의 양육도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이상이며, 양육자의 취업형태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도움의 형태로는 육아정보공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지지, 자녀친구관계, 육아물품공유, 자녀돌봄부탁 순으로 나타났다. 교류빈도와 교류시간의 증가는 이웃관계를 양육도움관계로 발전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교류빈도가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거지 위치, 자녀의 연령, 개인적 성격 등 양육자의 개인특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면접조사는 확인해 준다.

이웃의 양육도움은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육자에게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자녀돌봄을 부탁할 수 있는 이웃관계는 알

고 지내는 이웃관계에 비해 상당히 미약하지만 자녀돌봄을 부탁하는 이웃 도움은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육자간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양육부담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근린환경에서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양육자의 사회적 관계망이 강화될수록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이웃교류 빈도 및 시간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교류빈도가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웃과의 교류빈도가 증가할수록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양육자의 교류빈도가 높은 놀이터와 시장의 경우 이웃교류를 위한 중요한 장소로 고려되어야 하며 주거지역의 커뮤니티 계획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웃교류를 위한 장소를 민간시설에 의존하게 되면 일부 계층만 이용하는 불평등한 환경이 조성되므로 모든 양육자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마련하여 양육자가 자녀를 동반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는다.



## 제2절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신월4동의 물리적 근린환경이 여성 양육자들에게 불만족스럽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필요한 시설도 충분히, 가깝게 있지 않으며, 아이와 함께 동네를 이동하는 일은 위험하고 힘든 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집 밖으로 나가는 양육활동도 영향을 받고 있고, 다양한 심리적 부담과도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소수이기 하지만 일부 양육자들은 서로 교류하고 도움의 관계망을 발전시켜가면서 정서적, 실질적 도움을 주고받으며 양육부담을 줄이고 있다. 서울의 일반적인 서민주거지역인 신월4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양육환경의 현실은 한국의 도시가 포용도시로 나가는데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바람직한 근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양육자의 활동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양육자의 접근성이 자녀로 인해 제한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시켜준다(김현미, 2008). 영아와 유아 두 자녀를 함께 동반하는 보행활동 및 주중 보육시설, 놀이터 방문과 같은 일상적인 양육활동 범위는 200미터 범위로 제한되며, 그 외 경우에도 양육자 혼자 자녀를 데리고 다니는 활동범위는 최대 400미터 범위로 제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내 일상적 양육활동을 하는 근린환경에서 양육자가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는 근린환경요인을 개선하고, 활동범위를 제한시키는 요인을 제거하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린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활동범위가 한정된 양육자의 경우 근린환경 내 양육과 관련된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접근 가능한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활동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육자의 활동과 인식을 반영한 근린환경 내 공공시설 확보가 중요하며, 동시에 공공시설까지의 보행환경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시설까지의 접근성이 좋은 경우 시설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므로 보행접근성 확보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편 영아와 유아 두 자녀를 함께 동반하는 활동 및 주중 보육시설, 놀이터 방문과 같은

일상적인 양육활동 범위는 200미터 범위로 제약된다는 발견 점은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400~500미터를 보행권으로 삼는 도시계획 기준의 적용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신시가지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 일반적인 주거지역은 다양한 양육관련 공공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조성된 사례지역의 경우 놀이터와 보육시설은 어느 정도 여성 양육자의 필요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은 근린단위로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아동의 비중이 높은 대상지 특성에 따라 보육시설도 선택의 다양성을 부여할 만큼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 양육자들이 결핍을 느끼는 것은 놀이와 산책을 할 수 정도의 규모가 있는 공원과 도서관, 수영장 등을 제공하는 문화체육시설, 그리고 다양한 육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시설 등 공공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조성비용 및 이용자 확보 문제로 인해 근린단위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반경 400미터의 보행권 밖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이용빈도가 낮아진다. 반경 400미터 이내에 위치하더라도 간선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등 위험하고 불편한 보행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역시 이용빈도가 낮아진다. 구축되어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활동 범위와 특성을 고려한 보행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며, 양육자와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남수현 외, 2014; 조연숙 외, 2015; 남수현 외, 2016; 장미현 외, 2016; 장명선 외, 2016). 동네의 보행권 범위 내에 추가적인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용지와 비용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들 시설을 집적시키거나 다른 용도와 복합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양육자와 아동의 안전하고 편리한 활동을 위하여 주거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양육자는 자녀를 데리고 활동하면서 차량으로 인한 불안과 불편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이러한 인식은 양육자와 아동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Prezza et al., 2005; Santos et al., 2013;

Mitra et al., 2013). 보행안전성과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불법 주차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다니는 차가 많고 속도가 빠른 경우, 차와 사람이 함께 교차하는 경우, 보도가 부재하거나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안전성은 차량의 속도에 영향을 받으며 편의성은 보행공간의 확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지역에 위치하는 공원,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도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행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Koohsari et al., 2013). 내부 골목에서의 주차문제 해결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보도의 확충과 연속성 강화, 간선도로 횡단환경의 개선 등 다양한 지역교통환경개선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양육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보행환경 개선은 양육자의 활동과 지역 전체적인 환경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이웃과의 관계는 양육도움 증진과 함께 아동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부합한다(Kepper et al., 2016; Prezza et al., 2005). 그리고 옥외공간에서의 활동은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킨다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일관된다(Lund, 2002; Leyden, 2003; Wood, 2010; French et al., 2014; 이경환, 2009).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이 일부 그룹에 국한되어 나타난다고 해도, 양육자의 심리적, 실질적 양육지원을 위해 그것이 확장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웃교류 장소로서 놀이터, 보육시설과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 시설이 보다 접근하기 쉽고 안전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으로 구성되어 양육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자주 찾고, 아이들이 활동하는 동안 다른 양육자와 교류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갖추도록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시장은 동네의 커뮤니티 중심시설로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시장을 다니는 것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장소로 인식되어 여가보행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시장 내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하여 양육자의 사회적 교류가 보다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은 주로 등하원을 위한 목적보행이 이루어지

는 시설이지만 주변에 놀이터가 있는 경우 이웃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보육시설과 놀이시설을 함께 고려한 근린환경 조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웃의 양육도움은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육자에게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일상적인 만남을 넘어 양육도움관계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교류빈도와 시간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양육자의 교류빈도가 높은 놀이터와 시장의 경우 이웃교류를 위한 중요한 장소로 고려되어야 하며 주거지역의 커뮤니티 계획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웃교류는 양육자의 취업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미취업 양육자 뿐 아니라 취업 양육자의 이웃교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양육자의 활동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웃교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이웃교류를 위한 장소를 민간시설에 의존하게 되면 일부 계층만 이용하는 불평등한 환경이 조성되므로 모든 양육자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마련하여 양육자가 자녀를 동반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는다.

### 제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서울 신월4동을 대상으로 한 단일사례연구로서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먼저 연구의 의의로서는 여성 양육자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서민층 주거지역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점을 들 수 있다. 양육환경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수의 사례지들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관심 변수에 대한 상관성을 도출하고 일반화하는데 기여했다. 본 연구는 단일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환경맥락과 양육자의 환경인식을 연결시켜 근린환경에서 여성 양육자의 양육경험을 보다 생생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주거지 양육환경에 대한 기존의 관심이 주로 아파트 지역과 비아파트 지역의 비교에 초점을 두었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이러한 구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층주거지와 아파트 단지가 혼합된 일반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도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서울의 주거지역은 아파트단지와 저층주거지로 단순화하기 어렵다. 자연발생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저층주거지는 재건축 과정을 통해 점차 나홀로 아파트나 소규모 아파트단지가 저층 주택과 혼합되는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도 흔히 저층주거지에 비해 양호한 양육환경을 제공한다고 이해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닌 저층 시가지내 나홀로 아파트 단지나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놀이터 시설의 측면에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그 이외에는 비아파트 주택 유형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별화된 양육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단일사례연구로서, 그리고 연구의 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는 사례대상지 선정의 문제이다. 사례 선정은 서울시 주거지역 중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임희지, 2006; 황세원, 2018) 일반적인 형태의 주거지역을 선정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자기선택(self-selection)의 한계가 존재한다. 신월4동이 일반적인 서민층 주거지역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여성 양육자를 한정된 점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지속적인 여성의 경제참여 증가로 인해 여성의 역할이 변화되고, 남성 양육자와 조부모 양육자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여성이 양육을 전담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 한정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여성 양육자 뿐 아니라 남성 양육자와 조부모 양육자 등 다양한 양육자의 활동과 인식 특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모든 양육자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설문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평균값 위주로 해석했다는 점도 한계이다. 일부 분석항목에서 평균값과 함께 리커트 척도별 분포를 주목했으나 제한적 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는 근린양육환경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을 평균 값 만으로 이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시설환경과 보행환경의 만족도, 활동제약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이웃교류와 도움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에 있어서 5점의 리커트 척도는 긍정과 부정의 스펙트럼에서 평균치에서 이탈되어 더욱 긍정하거나 더욱 부정하는 소수의 그룹을 나타낸다. 이들은 주어진 근린환경에서 더욱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 양육자를 포함한다. 같은 맥락에서 근린양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양육자의 자녀연령, 자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옥외활동을 더 요구하는 유아일수록 양육자가 겪는 어려움은 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소수자 또는 어려움을 겪는 그룹에 주목하고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포용도시 철학과 가치에 부합되는 연구태도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구민지 (2017). "근린생활권 내 보행환경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동진 (2012). "조손가족 조부모의 삶의 질에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의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기독교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수진 (2017). "OECD 공간적 포용정책 동향." 국토, 426(37-42).
- 김현미 (2008).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도시기회 접근성의 시·공간적 구속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3(3), 358-374.
- 김혜영, 홍승아, 선보영, 정재훈, 진미정,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가족 및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실행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김효정, 반영운, 박경옥 (2018). "다세대주택 주거지와 아파트단지 주거지에서 양육자의 일상적 이용공간에 대한 접근성 비교분석."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0(1), 111-114.
- 남수현, 장미현, 남희경, 최정선 (2016). "성인지적 분석을 통한 시·구민회관의 설치기준 개선 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2(12), 3-14.
- 남수현, 장미현, 조연숙, 최정선, 남희경 (201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 노신애, 진미정 (2012).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인식이 미취학자녀 부모의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3), 135-149.
- 린다, 맥도웰 (2010).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한울아카데미,
- 박소현, 최이명, 서한림, 김준형 (2009). "주거지 보행환경 인지가 생활권 보행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5(8), 253-261.
- 박소현, 최이명, 서한림, 김효정, 여성가족부, 가족문화팀, 서울대학교 (2006).

- 가족친화 마을환경 개념 및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가족문화팀.
- 박인권 (2015). "포용도시 : 개념과 한국의 경험." 공간과 사회, 51(-), 95-139.
- 박인권, 이민주(2016). "도시 포용성 구성개념과 지표체계의 개발: 한국의 포용도시 의제 설정을 위하여." 공간과 사회, 58(109-158).
- 박진희 (2013). "아동의 일상적 활동에 근거한 주거단지 외부공간 특성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태원, 천현숙, 송향숙 (2013). "여성친화형 공동주택 계획요소와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77(-), 17-34.
- 변미리 (2018). "포용도시를 향하여\_서울형 포용도시 지표개발과 포용성 진단." 정책리포트, -(245), 1-26.
- 서주현, 김진경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3(-), 101-121.
- 서주현, 김진경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3(-), 101-121.
- 송향숙 (2013).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 광운대학교 대학원.
- 송향숙, 박태원 (2013). "계층분석기법을 활용한 여성친화도시 계획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 도시 행정 학보, 26(4), 361-383.
- 신혜란 (2007).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15 : 심층인터뷰 연구방법론: 타인에게 배우는 데이터 수집,분석기법." 국토 : planning, policy, 307(-), 60-68.
- 안지영, 박성연 (2002). "2~3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Family, Environment Research, 40(1), 53-68.
- 안현찬, 위성남, 유창복 (2016). 마을 공동체. 서울: 서울연구원.
- 오성훈, 이소민, 박수조 (2015). "유모차 통행 환경에 대한 만족도 영향요인과 육아 스트레스."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1(7), 75-82.
- 유인창, 강부성, 박지연 (2014). "미취학 아동 육아환경에 관한 거주유형별 만족도



- 비교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0(6), 31-38.
- 유진아 (2016). "미취학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경환 (2008). "근린 환경이 지역 주민의 보행 시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경환, 안건혁 (2008). "지역 주민의 보행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 환경 특성에  
관한 실증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4(6), 293-302.
- 이미원, 여성가족부 (2009).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발전 방향. 서울: 여성가족부.
- 이정신, 최영희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13(1), 19-32.
- 이주림 (2014). "주거 생활권의 육아환경 평가체계 및 영유아 부모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 임희지 (2006). "서울시 일반주택지내 과다열거구(過多列街區) 밀집지역의 가구단위  
정비모델 개발 연구."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 ), 1-137.
- 장명선, 박선영, 장미현, 조연숙, 최정선, 유한결 (2016). 출산양육지원 법령 및  
돌봄시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 장미현 (2013). "도시 및 건축 분야의 성인지적(Gender-Sensitive) 분석모형에 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장미현, 조연숙, 최정선 (2016). "공공시설로서 주민센터 설치기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여성연구, 90(-), 219-255.
- 장미현, 최정선, 박민아 (2017).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세종특별자치시.
- 정유진 (2014). "이웃관계의 중요도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 로즈, 질리언 (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 정현주 역. 파주: 한길사.
- 조복희 (2006). 아동발달 = Child Development / 조복희 지음. 제개정판..판. 서울:  
서울 : 교육과학사.
- 조연숙, 장미현, 최정선 (2015). "도시공공시설 젠더이슈에 대한 이용자 성별 수요

- 분석." 도시 행정 학보, 28(2), 27-54.
- 조혜민, 이수기 (2016). "보행목적별 보행활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특성분석." 국토계획, 51(4), 105-122.
- 차삼숙, 신유림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집, 25(1), 163-181.
- 차성란 (2011).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방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3), 23-42.
- 천현숙, 정희남, 김혜승, 하수정, 오민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 서울: 국토연구원.
- 최유진 (2013).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발전 방안 연구
- 최재순 (2013). "아동양육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경." 건축, 57(9), 18-2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김혜영, 유연규, 상마직자, 조순주, 진미정(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승아 (2013).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황명주 (2015). "돌봄노동이 된 아동보행."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황세원 (2018). "(the) Morphological Consequences of Apartment Complex Building in Seoul/ 황세원." 서울: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 ADB(Asia Development Bank). (2011). Inclusive Cities. Mandaluyong City.
- Centre, U. I. R. (2004).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 A framework for action: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Chawla, L. (2002). Growing up in an urbanized world. London: Earthscan.
- Chawla, L., & Heft, H. (2002). Children's competence and the ecology of communities: a functional approach to the evaluation of

- particip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2(1-2), 201-216.
- Christensen, P., & O'Brien, M. (2003). *Children in the city*. New York: RoutledgeFalmer.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Davison, K. K., & Lawson, C. T. (2006). Do attributes in the physical environment influence children's physical activity?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3(1), 19.
- Ewing, R., & Handy, S. (2009). Measuring the unmeasurable: Urban design qualities related to walkability. *Journal of Urban Design*, 14(1), 65-84.
- Ewing, R., Pendall, R., & Chen, D. (2003). Measuring sprawl and its transportation impacts.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Journal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1831), 175-183.
- Fainstein, S. S. (2010). *The just city*: Cornell University Press.
- Fainstein, S. S., & Servon, L. J. (2005). *Gender and planning: A reader*: Rutgers University Press.
- Fortuijn, J. D., & Karsten, L. (1989). Daily activity patterns of working parents in the Netherlands. *Area*, 365-376.
- French, S., Wood, L., Foster, S. A., Giles-Corti, B., Frank, L., & Learnihan, V. (2014). Sense of Community and Its Association With the Neighborhood Built Environment. *Environment and Behavior*, 46(6), 677-697.
- Gehl, J. (1987). *Life between buildings : using public space* / Jan Gehl translated by Jo Koch. New York: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 Gleeson, B., & Sipe, N. G. (2006). *Creating child friendly cities : reinstating kids in the city* / edited by Brendan Gleeson and Neil Sipe. London New York: London New York : Routledge.

- Green, G. P. (2012). *Asset building & community development* / Gary Paul Green, Anna Haines (3rd ed.. ed.). Thousand Oaks, Calif.: Thousand Oaks, Calif. : SAGE.
- Handy, S. (1996). Methodologies for exploring the link between urban form and travel behavior.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D: Transport and Environment*, 1(2), 151-165.
- Handy, S., Cao, X. Y., & Mokhtarian, P. L. (2006). Self-sele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ilt environment and walking - Empirical evidence from northern California.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2(1), 55-74.
- Handy, S. L., Boarnet, M. G., Ewing, R., & Killingsworth, R. E. (2002). How the built environment affects physical activit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3(2//SUP1), 64-73.
- Hayden, D. (1980). What would a non-sexist city be like? Speculations on housing, urban design, and human work.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5(S3), S170-S187.
- Hayden, D. (2002). *Redesigning the American dream: The future of housing, work, and family life*: WW Norton & Company.
- Heerman, W. J., Mitchell, S. J., Thompson, J., Martin, N. C., Sommer, E. C., van Bakergem, M. & Barkin, S. L. (2016). Parental perception of built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nd built environment use among Latino families: a cross-sectional study. *Bmc Public Health*, 16.
- Inoue, S., Ohya, Y., Odagiri, Y., Takamiya, T., Ishii, K., Kitabayashi, M. & Shimomitsu, T. (2010).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walking among adults in 4 cities in Japan. *Journal of epidemiology*, 20(4), 277-286.
- Islam, M. Z., Moore, R., & Cosco, N. (2016). Child-friendly, active, healthy neighborhoods: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children's time outdoors. *Environment and Behavior*, 48(5), 711-736.

-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 Jane Jacobs. New York: New York : Random House.
- Jan, G. (2010). *Cities for people*. Pan American Copyright Conventions.
- Kepper, M., Broyles, S., Scribner, R., Tseng, T. S., Zabaleta, J., Griffiths, L., & Sothorn, M. (2016). Parental perceptions of the social environment are inversely related to constraint of adolescents' neighborhood physical ac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3(12), 1266.
- Koohsari, M. J., Karakiewicz, J. A., & Kaczynski, A. T. (2013). Public open space and walking: the role of proximity, perceptual qualities of the surrounding built environment, and street configuration. *Environment and Behavior*, 45(6), 706-736.
- Leyden, K. M. (2003). Social capital and the built environment: The importance of walkable neighborhood.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9), 1546-1551.
- Leyden, K. M. (2003). Social capital and the built environment: the importance of walkable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9), 1546-1551.
- Lund, H. (2002). Pedestrian environments and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21(3), 301-312.
- Mitra, R., Faulkner, G. E. J., Buliung, R. N., & Stone, M. R. (2014). Do parental perceptions of the neighbourhood environment influence 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 Evidence from Toronto, Canada. *Urban Studies*, 51(16), 3401-3419.
- Moudon, A. V., Lee, C., Cheadle, A. D., Garvin, C., Johnson, D., Schmid, T. L. & Lin, L. (2006). Operational Definitions of Walkable Neighborhood: Theoretical and Empirical Insights. *Journal of Physical Activity & Health*, 3(s1), S99.
- Nordstrom, M. (2010). *Children's Views on Child-friendly Environments in*

- Different Geographical, Cultural and Social Neighbourhoods. *Urban Studies*, 47(3), 514-528.
- OECD. (2014). Report on the OECD Framework for Inclusive Growth. Paris.
- Patton, M. Q. (1980).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Beverly Hills. In: Ca: sage.
- Pikora, T., Giles-Corti, B., Bull, F., Jamrozik, K., & Donovan, R. (2003). Developing a framework for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walking and cycling. *Social Science & Medicine*, 56(8), 1693-1703.
- Prezza, M., Alparone, F. R., Cristallo, C., & Luigi, S. (2005). Parental perception of social risk and of positive potentiality of outdoor autonomy for children: The development of two instrumen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5(4), 437-453.
- Putnam, R. D. (1988). Social capital: Its importance to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Housing Policy Debate*, 9(2), v-viii.
- Putnam, R. D. (2001).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 Santos, M. P., Pizarro, A. N., Mota, J., & Marques, E. A. (2013). Parental physical activity, safety perceptions and 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 *Bmc Public Health*, 13(1), 584.
- Sommer, R. (1983). *Social design : creating buildings with people in mind / Robert Sommer*. Englewood Cliffs, N.J.: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Sugiyama, T., Leslie, E., Giles-Corti, B., & Owen, N. (2008). Associations of neighbourhood greenness wi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do walking, social coherence and local social interaction explain the relationships?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62(5), e9-e9.

- Swisher, R., Sweet, S., & Moen, P. (2004). The family - friendly community and its life course fit for dual - 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281-292.
- Tivers, J. (1985). *Women attached: the daily lives of women with young children*: Croom-Helm.
- Voydanoff, P. (2001). Conceptualizing community in the context of work and family. *Community, Work & Family*, 4(2), 133-156.
- Warner, M. E., & Rukus, J. (2013). Planners' role in creating family-friendly communities: Action, participation and resistance. *Journal of Urban Affairs*, 35(5), 627-644.
- Whyte, W. H. (1980).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 by William H. Whyte. Washington, D.C.: Washington, D.C. : Conservation Foundation.
- Wood, L., Frank, L. D., & Giles-Corti, B. (2010). Sense of commun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walking and neighborhood design. *Social Science & Medicine*, 70(9), 1381-1390.
- Yin, R. K. (2006). *Case Study Methods*.

서울열린데이터광장	<a href="http://data.seoul.go.kr">http://data.seoul.go.kr</a>
국토지리정보원	<a href="http://www.ngii.go.kr">http://www.ngii.go.kr</a>
국가공간정보포털	<a href="http://www.nsdi.go.kr">http://www.nsdi.go.kr</a>
다음지도	<a href="http://map.daum.net">http://map.daum.net</a>

## 부록

### 주거지역 근린환경에 대한 양육자의 활동 및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양육환경에 대하여 박사학위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다면 연구에 필요한 귀중한 정보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을 통해 얻은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가 종료된 후 모두 파기됩니다.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양육 관련 기본 정보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여성	2) 남성
SQ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1) 20대 3) 40대	2) 30대 4) 50대 이상
SQ3	함께 사는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모두 표시)	1) 자녀 4) 자녀의 조부	2) 배우자 5) 기타( )
SQ4	귀하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1) 1명	2) 2명
SQ5	자녀 중 미취학 자녀는 몇 명입니까? (2012~2018년생)	3) 3명	4) 4명 이상

※ 이후 설문 내용은 모두 “미취학 자녀”를 생각하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취학 자녀는 제외)

SQ6. 미취학 자녀의 성별과 출생년도를 표시해주세요. 둘 이상인 경우 나이순으로 차례로 표시해주세요.

	자녀 1		자녀 2		자녀 3	
성 별	1) 여아	2) 남아	1) 여아	2) 남아	1) 여아	2) 남아
출생년도	1) 2012	2) 2013	1) 2012	2) 2013	1) 2012	2) 2013
	3) 2014	4) 2015	3) 2014	4) 2015	3) 2014	4) 2015
	5) 2016	6) 2017	5) 2016	6) 2017	5) 2016	6) 2017
	7) 2018		7) 2018		7) 2018	

SQ7. 자녀 보육방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각 자녀별로 해당되는 번호를 써주세요.

- 자녀 1 (                      ), 자녀 2 (                      ), 자녀 3 (                      )
- 1) 어린이집 정규반      2) 어린이집 종일반      3) 유치원 정규반      4) 유치원 종일반
- 5)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등 학원 정규반      6)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등 학원 종일반
- 7) 가정에서 보육      8) 기타 (                      )

\* 정규반은 9:00~대략3:00 과정, 종일반은 7:30~7:30 과정임

SQ8. 자는 시간을 제외한 일과시간(아침~저녁)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보기에서 골라 써주시고, 여러 명인 경우 보기에서 모두 골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순”으로 써주세요.

구분	자녀 1	자녀 2	자녀 3
주중	(    ), (    ), (    )	(    ), (    ), (    )	(    ), (    ), (    )
주말	(    ), (    ), (    )	(    ), (    ), (    )	(    ), (    ), (    )
<보기>	1) 본인      2) 배우자      3) 친인척      4) 도우미      5) 기타(    )		

SQ9. 자는 시간을 제외한 일과시간(아침~저녁)에 귀하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주중과 주말에 얼마나 되십니까?

- 주중 : (                      ) 시간 (                      )분 / 하루 평균
- 주말 : (                      ) 시간 (                      )분 / 하루 평균

## 1. 동네의 양육환경

■ 동네에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보행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Q01.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곳에 대해 1-1.~1-3.의 내용을 표시해주세요. (시설이 없거나 안가면 가지 없음만 표시)

목적지	가지 없음	1-1. 방문 횟수				1-2. 방문 시 이용 시간					1-3. 이동 수단		
		한달에 1-2번	일주일 1-2번	일주일 3-4번	거의 매일	30분 미만	30분- 1시간	1-2 시간	2-3 시간	3시간 이상	도보	버스 택시	자가 용
놀이터													
공원, 녹지													
민간놀이시설 키즈카페, 놀이방 음식점 등													
주민커뮤니티시설 어린이공간/프로그램이 있는 곳													
도서관 장남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공공문화체육시설 어린이공간/프로그램이 있는 곳													
민간교육시설(차량서비스선택) 문화센터, 학원 등													
공공보육시설(차량서비스선택)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민간보육시설(차량서비스선택)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등													
의료시설 병원, 의원 등													
상업시설 마트, 시장 등													
기타시설 은행, 세탁소 등 가사업무편의													
이웃집													
기타 ( )													
기타 ( )													

Q02. 아이를 데리고 동네를 걸어 다닐 때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다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녀별로 해당 자녀와 다닐 때를 생각하고 아래 보기에서 골라 표시해주세요.

자녀 1 ( ), 자녀 2 ( ), 자녀 3 ( )

- |                           |                            |
|---------------------------|----------------------------|
| 1) 주로 유모차를 태우고 걸어 다님      | 2) 주로 아기띠로 안고 걸어 다님        |
| 3) 주로 손을 꼭 잡고 걸어 다님       | 4) 손을 잡을 때가 안 잡을 때 보다 더 많음 |
| 5) 손을 안 잡을 때가 잡을 때보다 더 많음 | 6) 주로 손을 안 잡고 걸어 다님        |

보행환경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동네 길은 차량으로부터 안전하다.					
동네 길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보도시설(폭, 바닥 등)이 연속적으로 잘 되어 있어 아이와 다니기 편하다.					
버스와 지하철은 아이를 데리고 쉽게 걸어가서 탈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보행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곳이 많다.

2) 도로에 다니는 자가 많다.

3) 도로변에 주차된 자가 많다.

4) 보도가 좁다.

5) 보도가 울퉁불퉁하다.

6) 턱이나 계단이 많다.

7)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 있다.

8) 밤에 어두운 곳이 있다.

9) CCTV, 비상벨 등 방범장치가 부족하다.

10) 기타 ( )

[illegible]

Q06. 동네에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부족함      2) 부족함      3) 보통      4) 충분함      5) 매우 충분함

Q07.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부족한(없는) 시설은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하고, 보기에 없으면 기타에 써주세요.

- 1) 놀이터      2) 공원, 녹지      3) 키즈카페, 놀이방음식점 등  
4) 주민커뮤니티시설      5) 도서관      6) 공공문화체육시설  
7) 문화센터, 학원 등      8) 어린이집, 유치원      9) 기타 (      )  
10) 기타 (      )      11) 기타 (      )      12) 기타 (      )

Q08. 동네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족함      2) 불만족함      3) 보통      4) 만족함      5) 매우 만족함

Q09. 다음은 동네 환경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동네환경과 양육스트레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는 것은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원하는 만큼 자주 밖에 나가지 못해 고립감이 든다.					
원하는 만큼 자주 밖에 나가지 못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 2. 동네에서의 이웃관계

■ 다음은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만난 이웃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Q10.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이웃의 수는 몇 명입니까? (      )명

Q11. 아이를 키우면서 이웃을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 1) 집 주변에서 자녀를 데리고 다니다 자주 마주쳐서      2) 놀이터, 공원 등에서 자주 마주쳐서  
3)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에서 자주 마주쳐서      4) 같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다녀서  
5) 자녀가 문화센터나 학원 등을 같이 다녀서      6) 육아공동체 등 자녀 모임을 통해서  
7) 기타 (      )

Q12. 아이를 데리고 이웃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횟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거의 만나지 않음(-> Q15로)      2) 한 달에 1-2번      3) 일주일에 1-2번  
4) 일주일에 3-4번      5) 거의 매일

Q13. 아이를 데리고 이웃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일주일 평균 얼마나 되십니까?

(      )시간 (      )분 / 일주일 평균

Q14. 아이를 데리고 이웃과 대화를 나누는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자주 가는 순으로 써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1) 놀이터      2) 공원, 녹지      3) 키즈카페, 놀이방음식점 등  
4) 주민커뮤니티시설      5) 도서관      6) 공공문화체육시설  
7) 문화센터, 학원 등      8)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      9) 우리 집 또는 이웃 집  
10) 기타 (      )

Q15.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이웃 도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웃은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서로의 사정을 이해한다.					
이웃과 육아 및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물건을 빌리거나 물려받을 수 있다.					
급한 일이 있을 때 자녀를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이웃과 알게 되면서 이웃과 나의 자녀들이 친구가 된다.					

Q16.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이웃 가운데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이웃의 수는 몇 명입니까?

( )명, ☐ 없음

Q17. 다음은 이웃 관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이웃관계와 양육스트레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웃을 만나 대화를 하면 답답한 마음이 풀린다.					
이웃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아이를 돌보는 부담이 적어졌다.					
이웃의 자녀와 나의 자녀가 친구가 되어 아이를 돌보는 부담이 적어졌다.					

Q18. 다음은 동네의 양육친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양육친화성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동네에서 가고 싶은 곳은 아이와 함께 쉽게 걸어갈 수 있다.					
우리 동네에서 아이와 일상생활을 할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우리 동네에서 아이와 일상생활을 할 때 불편함이 없다고 느낀다.					
우리 동네에 있는 이웃은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 동네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동네이다.					

#### 응답자 특성

DQ1	귀하의 취업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전일제 취업 3) 육아휴직 중	2) 시간제 취업 4) 전업주부
DQ2	거주하시는 주택유형은 무엇입니까?	1) 1개 동 아파트 3) 단독주택 5) 기타 ( )	2) 2개 동 이상 아파트 4) 다가구, 다세대·빌라, 연립
DQ3	주거점유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1) 자가	2) 전세, 월세 3) 기타 ( )
DQ4	현 거주지에서 얼마나 오래 사셨습니까?	1) 1년 미만 4) 5년 - 10년	2) 1년 - 3년 5) 10년 이상
DQ5	월 평균 총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전소득, 가족구성원 총 소득)	1) 100만원 미만 3) 300만원 - 500만원 5) 700만원 - 900만원	2) 100만 원 - 300만 원 4) 500만 원 - 700만 원 6) 900만원 이상
DQ6	귀하는 자가용을 운전 하십니까?	1) 운전을 한다.	2) 운전을 하지 않는다.

※ 바쁘신 가운데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주제와 관련된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는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서 진행되며, 약 30-6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연락처 : )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

## Abstract

# A Case Study on Neighborhood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 Focused on Parenting Activities and Perception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

Choi, Jeong Su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ordinary residential neighborhood from the perspective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Shinwol 4-dong, Seoul, was selected as a single case study area to gain a fuller contextual understanding of parenting realities. A total of 197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were surveyed in structured questionnaire form, and 10 were interviewed in unstructured and in-depth mode. The investigation was aimed at unveiling their outdoor parenting activities, satisfaction level toward the facilities

and pedestrian environment, mutual parenting support between mothers, and their parenting stresses.

The study finds that their outdoor parenting activities take place in daily, weekly, and monthly intervals, depending on the type of destination visited. The most vital and frequent destinations are day care centers, playgrounds, educational institutions, commercial sites, and public cultural facilities. Walking appears the most common travel mode. The spatial coverage of travel depends on the age of the child: the younger, the smaller the coverage. Coverage of 200 meters is common for a mother walking with a child younger than three years old, and 400 meters for a child older than that. On weekdays, most outdoor activities take place within 400 meters coverage: this expands to 800 meters and beyond on the weekends, when family leisure travel is practiced.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mothers in the study area think their neighborhood provides the needed facilities neither sufficiently nor satisfactorily. Day care centers and playgrounds are perceived as satisfactory, but they think the neighborhood lacks parks and public and community facilities providing various cultural, sports, and other educational opportunities. As to pedestrian environment, the parenting mothers express their dissatisfaction due to threatening car traffic, ill-maintained sidewalks, and poor accessibility to transit. They complain that these difficulties are persistent throughout their journeys with children. They feel unsafe as they navigate the car-dominated alleys and cross the wide arterials.

The study finds that this perception of neighborhood facilities and the pedestrian environment affects the level of outdoor activities

of mothers with their children. Such necessary activities as going to day care centers and playgrounds take place anyway, regardless of the satisfaction level. However, optional activities such as leisure pursuits and shopping are affected: the higher the satisfaction, the more such activities. In other words, the poor facilities and pedestrian environment discourage outdoor activities and tend to confine parents to home.

The study discloses that this confining effect may not lead to parenting stress in general. Yet there are small groups (13 to 33 percent of respondents) who experience a negative psychological burden due to their limited outdoor travel. This parenting stress includes a general sense of difficulty of outdoor travel, a sense of isolation, and a feeling of failing their children. Their troubles are due more to pedestrian environment than to facility dissatisfaction.

The study also shows that some portion of mothers in the study area develop relationships that provide mutual support for raising their children. On average, each mother comes to know 4.6 other parenting mothers, mostly from encounters at day care centers, on playgrounds, and around the home. Those places, as well as neighborhood markets, are cited as major meeting places where such relationships deepen.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more they have such encounters, the deeper is the relationship. This mutual support includes, in decreasing order: parenting information exchange, emotional comfort, development of friendship between children, sharing of parenting materials, and requests to care for children. The study also shows that more frequent meetings lead to a greater possibility of building a mutually helping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Thes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ordinary Korean neighborhoods should be more inclusive by considering parenting mothers in their planning and management. The residential neighborhoods need accessible public community facilities, safe and walkable residential streets, and more meeting places for mothers to make social contacts.

**Key words :** neighborhood environment, parenting activities,  
parenting perception, parenting stress, parenting mother

*Student Number : 2008-30677*